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5 No. 2

라틴아메리카연구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22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Editor

Soon-Joo Lee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Ulsan)

Managing Editor

Bradley Tatar (Division of General Studies,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young-Mo Gu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e-Soon Kim (Institute of Hispanic Studies, Korea University)

Editorial Board

Gian Luca Gardini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 (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 (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Hae-Sung Choe (Institute of Hispanic Studies, Korea University)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Koo-Byoung Park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Kyung-Hee Ka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Jeju National University)

Mi-Jung Le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am-Gyo Oh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iduk University)

Sang-Sub H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u-Jin Lim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Colima)

Suk-Kyun Woo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ae-Kyoon Lim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Seok Noh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oung-Seok Kim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 라틴아메리카연구 -

Vol. 35 No. 2 2022

Contents

Articles

001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희

033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Femicide)와 지배의 매트릭스
박윤주

059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n the Protests in Chile, Ecuador and Colombia during 2019
Pedro Aravena Lavín

083 Colombia and India: Analysis of the Trade Relationship (2000-2019)
Karol Stefany Rojas Tole / Alberto José Hurtado Briceño

ⓒ 2022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2) Vol. 35 No. 2: 1-31
https://doi.org/10.22945/ajlas.2022.35.2.1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희*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eminist Diplomacy: Focusing on the Case of Mexico: What are the factors behind the Mexican government's adoption of feminist diplomacy despite the fragile reality of gender human rights? How does Mexico's feminist diplomacy compare to the Western countries? Can Mexico's feminist diplomacy be a leading model for Latin America, the Caribbean, and non-Western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feminist diplomacy, focusing on the case of Mexico. There are many explanations that 'situational factors' were decisive for the Mexican government's adoption of feminist diplomacy. However, these arguments tend to underestimate the implications of Mexico's adoption of feminist diplomacy by overlooking the long-standing efforts of Mexican women and feminists that have influenced the declaration of feminist diplomacy. Considering thi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Mexico's adoption of feminist diplomacy by focusing on 'intrinsic factors' rather than 'situational factors'.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explain that the 'intrinsic factor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representation of Mexican women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xican feminist movement influenced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doption of Mexican feminist diplomacy.

Keywords: Feminist Diplomacy, Mexico, Gender Human Rights, Mexican Feminist Movement, Representation of Women / 페미니스트 외교, 멕시코, 젠더인권,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 여성의 대표성

---

* Kyeong-Hee Kang is a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Peace Studies(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t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khkang625@jejunu.ac.kr).

서론

최근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이 2014년에 페미니스트 외교를 공식 발표한 후 캐나다(2017년), 룩셈부르크(2019년), 프랑스(2019년), 멕시코(2020년), 스페인(2021년) 등 현재까지 총 여섯 개 국가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또는 페미니스트 국제원조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연방하원의회와 유럽의회도 2020년 9월, 12월에 각각 페미니스트 외교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IWDA 2021, 7), 영국 노동당은 2018년에 정당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언했다(Gill 2019; Quispe 2020, 28). 노르웨이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페미니스트 외교에 해당하는 외교 지침을 가지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독일의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2021년 11월에 페미니스트 외교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Gill-Atkinson and Pradela 21). 스웨덴이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언할 당시에는 '구체적 실체가 없다.''낙인찍힌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혼란을 유발하는 당혹스럽고 교활한 표현이다.' 등 이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우세했다(López-Valerio 2017). 그러나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페미니스트 외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별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Telles 2020; Ambassade De France Au Qatar 2022; Quispe Ojeda 2020; Tokatlian 2018; Kim 2020; Yoon 2021; Seol 2022). 아직은 페미니스트 외교 사례가 과소하고 축적된 연구가 많지 않아 해당 주제에 관한 이론적 일반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España Global 2021; IWDA 2020; Nehme 2021; Lee and Chang 2022).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본 논문이 주목한 문제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분석할 때 비교적 높은 실행력을 갖춘 스웨덴이 모범사례로 소개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같은 비서구권 국가의 페미니스트 외교 분석은 멕시코가 걸어온 역사적 특성이나 국내적 요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스웨덴에 비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González 2020; Lagunes 2020; Olamendi 2021).

멕시코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에서는 최초로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한 국가이다. 젠더인권에 있어 선진국으

로 고려되는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과 달리 멕시코는 여성살해 사건이나 여아실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젠더인권 취약국에 분류된다.[1] Olamendi(2021)[2]는 젠더인권 취약국인 멕시코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표방하는 것은 국내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Lagunes(2020)[3]도 멕시코의 젠더인권 침해 상황과 페미니스트 외교 방침 간 불일치를 강조하며,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가 선언에 그칠 뿐 명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젠더인권이 취약한 현실에도 멕시코 정부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한 요인은 무엇일까?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서구와 비교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Bárcena(2020)[4]의 바람대로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및 비서구권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서구권 국가들과 비교해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가 갖는 특징과 멕시코 정부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 채택에는 '상황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 많다.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25 세대평등포럼(Beijing+25 Generation Equality Forum) 주최국으로 선정되기 위한 수단으로(España Global 2021, 30), 혹은 2021~202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González 2020), 아니면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한 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포했다는 것이다(Lagunes 2020).

그러나 '상황적 요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페미니스트 외교 채택에 영향

---

1 국제공인시스템(SESNSP: Secretariado Ejecutivo del Sistema Nacional de Seguridad Pública) 사무국에 따르면, 2020년 멕시코에서는 860건의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했고 멕시코 주가 132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같은 해 911에 신고된 여성에 대한 폭력 건수 중 249,798건이 여성살해 사건이었다(Reyes 2021).

2 올라멘디(Patricia Olamendi)는 멕시코의 정의.인권연수원(Justice and Human Rights Training Institute) 대표이며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실무그룹 일원이다.

3 라구네스(Luis Lagunes Huerta)는 사회학자,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이며 유엔여성기구-멕시코(UN Women-Mexico) 시민사회자문위원회(Consejo Asesor de la Sociedad Civil)와 멕시코시티 차별방지근절위원회(Consejo para Prevenir y Erradicar la Discriminación de la Ciudad de México) 위원이다.

4 바르세나(Alicia Bárcena)는 멕시코의 대표적 여성정치인이며 유엔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23년 3월부터 멕시코 국립 외교아카데미인 마티아스로메로연구소(Instituto Matías Romero)를 이끌 예정이다.

을 미친 멕시코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 선언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논문은 '상황적 요인'보다 '내재적 요인'에 집중해 멕시코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고, 서구권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멕시코 사례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외교 분야에서 멕시코 여성의 대표성 확대,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의 제도화 등 내재적 요인이 멕시코 정부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페미니스트 외교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징을 스웨덴 등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의 채택 요인을 내재적 요인들을 통해 설명하고, 결론에서는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 선언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외교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페미니스트 외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는 2014년 스웨덴 전 외무장관인 발스트롬(Margot Wallström)이다. 발스트롬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외교는 성폭력 근절, 여성의 경제적 해방, 여성과 여아의 교육, 남성과 남아의 교육, 여성 리더십 강화, 정치적 의사결정 및 평화협상과 평화조약에 여성 참여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페미니스트 외교는 개발원조 정책의 일부로서 자금 조달을 통한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외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United Nations 2022).

사전적 의미로 페미니스트 외교란 현 국제체제를 분석하고 세계 속에서 한 국가가 존재하는 방법을 탐구할 때 '페미니스트적인 것'에 뿌리를 둔 정치이론 및 정치철학과 세계 페미니즘 운동의 의제와 관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López-Valerio 2017).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적인 것은 현상 유지보다 현상 타파를 지향하고, 권력과 무력의 비대칭적 관계를 시정하고자 하며, 안보 측면에서 패권국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이유로 페미니스트 외교는 글로벌 패권국이 채택하기는 어려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Telles 2020).

외교가 페미니스트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페미니

스트 외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과 이를 반영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을 비판하며 외교의 방향을 평화, 정의,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 도덕적·규범적 원칙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페미니스트 외교는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외교 영역에서 성차별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위계적 권력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여성과 여아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López-Valerio 2017).

페미니즘은 대체로 급진적인 방법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상이자 실천이지만, 때에 따라 법 개정이나 공공정책 등 개혁적 수단을 통해 여성의 권리와 자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외교는 개혁적 수단을 통해 외교 영역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 외교 영역에서 성에 기반을 둔 고정관념, 편견, 차별, 불평등, 폭력 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Naves 2020). 말하자면, 페미니스트 외교는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페미니스트 외교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권리 보장, 교육, 경제적 해방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정책 패러다임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5번 목표(성평등)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외교는 여성과 여아만을 위한 공공정책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더 나은 세상과 더 강한 민주주의 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United Nations 2022). 즉, 페미니스트 외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위한 사회 정의의 증진, 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세계적 불평등 상황의 개선,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환경 보호의 촉진, 부패 퇴치 등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 외교가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Naves 2020).

페미니스트 외교의 구상에 영향을 미친 학술적 논의로는 여성과 평화연구, 페미니즘과 평화연구, 페미니스트 안보연구 등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을 들 수 있다(Naves 2020).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의 목표는 국제관계에서 여성과 페미니즘의 존재와 역할을 가시화하고 국제정치 연구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다(Telles 2020).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 분야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López-Valerio 2017). 냉전기에 전쟁과 안보 연구에 집중했던 국제정치학자들은 탈냉전 후 새롭게 등장한 정치경제, 환경, 인권 등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도 탈냉전기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하였다(황영주 2013, 28).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티크너(J. Ann Tickner), 엔로(Cynthia Enloe), 엘시테인(Jean Bethke Elshtain), 실베스터(Christine Sylvester) 등이 있다(López-Valerio 2017).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의 토대를 만든 티크너는 헌팅턴(H. Morgenthau)의 (신)현실주의 권력 개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했다. 티크너는 '남성의 세계'로 인식되는 국제정치와 젠더화된 국가안보 개념을 비판하며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통해 국제정치와 국가안보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했다(황영주 2013, 29-31). 엔로는 주류 국제정치학이 전쟁이나 국가를 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비가시성과 배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이 젠더라는 분석단위를 활용해 전통적 국제정치 개념들을 비판하고 재개념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López-Valerio 2017). 페미니즘 안보연구를 진행한 실베스터는 인종, 문화, 종족, 종교 등에 따른 특수 상황과 여성의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영주 2013, 49).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의 이론과 개념들은 2014년 이후 페미니스트 외교가 구상되고 내용을 갖춰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제도화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이 페미니스트 외교의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논의와 제도화는 페미니스트 외교의 '선포'와 대외적 '확산'을 수월하게 했다. 실제로 스웨덴 등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언한 국가들은 이 외교가 여성 권리의 향상과 성평등의 달성을 목표로 확립된 국제협약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Nehme 2021).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논의와 이를 이행하려는 개별국가의 전통적 인권정책은 더욱 발전된 형태인 페미니스트 외교에 계승되었다.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의 도구로 삼는 것은 '조직된 위선(hipocrasia organizada)'이라는 크래스너(Stephen Krasner)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외교는 여성 인권의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한다(Telles 2020).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시작되었다. 자유주

의 페미니스트들은 유엔 및 지역기구의 인권규약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1945년 유엔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의 인권과 근원적 자유에 관한 협정,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9년 미주인권협약, 1981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87년 아프리카 인권 및 국민권리위원회 등에 '여성과 여아의 권리 조항'이 포함되는 성과를 보였다(허민숙 2013, 103-104). 유엔총회에 의해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인권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장은하 외 2019, 26-27). 이 협약은 1990년대 이후 비엔나행동강령(1993), 국제인구개발회의(1994) 등으로 이어지는 여성 인권 의제의 기본틀을 제공했다(장은하 외 2019, 32).

1993년 세계인권대회의 합의 결과로서 발표된 비엔나인권선언(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여성의 권리가 인권'임을 역사상 최초로 공식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Telles 2020). 또한 비엔나인권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적 차이, 관습, 관행 등으로 인한 여성 인권의 침해를 비판하였다(허민숙 2013, 116). 1994년에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는 인구증가 억제보다 재생산권리 등에서 여성 인권의 강화가 인구 문제의 주요 해결책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전 회의들과 차이화된다.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도출된 카이로행동계획은 개별 여성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누릴 권리 등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웰빙까지 재생산권리에 포함하고 있다(장은하 2019, 41-42).

세계적 차원에서 여성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된 계기는 1975년 유엔 국제 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와 여성을 위한 10년(Decade for Women, 1975-1985) 선언이었다.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멕시코), 1980년 제2차 세계여성대회(코펜하겐), 1985년 제3차 세계여성대회(나이로비),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베이징)를 거치면서 세계의 많은 여성들은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유엔여

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구개발회의, 세 차례 세계여성대회 등의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었다(장은하 외 2019, 46-53). 특히, 베이징여성행동강령에서 선포한 성 주류화는 남성이 과잉 대표된 외교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페미니스트 외교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Nehme 2021).

2000년에 발표된 여성·평화·안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는 여성과 분쟁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로서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포한 국가들에 강한 영감을 주었다(Naves 2020).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 연구의 결실(황영주 2013, 47)인 1325 결의안은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전쟁이 여성에 미치는 과도한 피해를 인정했고,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및 평화의 유지와 구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행동을 최초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장은하 외 2019, 72).

유엔이 2000년에 발표한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2015년에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기존의 국제사회 논의를 보편적인 글로벌 발전목표에 통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MDGs는 1번(기아), 2번(교육), 4번(아동사망률), 5번(모성사망률)의 공통 목표에 젠더가 포함되어 있고, 3번(양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에 젠더가 독자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3번 관련 지표로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평등'만을 적시하고 있어 그동안 국제사회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장은아 외 2019, 47-58). 이와는 달리, SDGs 수립을 위한 논의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그들의 의견이 글로벌 여성 의제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SDGs 5번(성평등)에는 젠더가 독자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SDGs 17개 목표 중 14개에 여성 의제가 공통 목표로 포함되었다.

2010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에 분산되어 있던 여성 관련 기구들(DAW, INSTRAW, UNIFEM, OSAGI)[5]이 통합되어 유엔여성기구(UN

5 DAW(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여성발전과), INSTRAW(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Women, 국제여성인재연수원),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유엔 여성개발기금), OSAGI(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to the Secretary-General on Gender Issues and

Women)가 창설되었다. 유엔여성기구는 2010년에 MDGs와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의 이행상황을, 그리고 2015년에는 SDGs를 비롯한 개발과 성평등 의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장은하 외 2019, 16).

2020년은 베이징여성행동강령 채택 25주년, 1325 결의안 채택 20주년, SDGs 수립 5주년이 되는 해이다. 유엔여성기구는 유엔 중심의 글로벌 여성 의제를 종합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같은 해 유엔은 여성 권한 강화와 성평등 달성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틀로서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을 실시했다. 이 포럼은 성평등에 대한 긴급한 조치와 책임을 촉구하는 국제적 대화의 장으로서 여성 인권운동과 페미니스트 연대, 그리고 변화를 위한 청년 리더십 행동이 포함되었다(Nehme 2021).

국가별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징

스웨덴은 페미니스트 외교를 공식 선언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2014년 말에 스웨덴은 성평등을 외교 지침으로 하여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할 것임을 선포했다. 스웨덴 정부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언하게 된 동기는 2014년에 집권당이 된 스웨덴 사민당이 대내적으로 성평등 국가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투영함으로써 세계 페미니스트 강국임을 인정받는 것이었다(Tokatlian 2018). 또한 스웨덴 사민당은 직전 보수정권과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보여주고자 하였다(Lagunes 2020).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여성 인권 존중, 여성의 대표성, 성평등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을 의미하는 이른바 '3R'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United Nations 2022). 첫째, 여성 인권 존중(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women)은 그동안 스웨덴 정부가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별개로 취급하여 인권정책에서 여성 의제를 배제해 왔다는 진단에 대한 응답이었다. 둘째, 여성 대표성(Representation)은 거버넌스에서 평화회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성평등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Resources)은 외교정책 방향을 성평등 달성에 두고 이에 대한 특별 예산 할당 등 유연한 자원 재배분을 시행하는 것이다

Advancement of Women, 사무총장 젠더문제와 여성발전에 관한 특별보좌관실)

(Lagunes 2020; Nehme 2021).

스웨덴 정부는 페미니스트 외교 선포 후 3년 동안 발스트롬 외교부 장관, 린데(Anne Linde) 유럽연합·무역부 장관, 뢰빈(Isabella Lövin) 국제개발협력·기후부 장관이자 부총리를 젠더 의제 수석 고문으로 선정했다(López-Valerio 2017). 스웨덴은 여성대사 비율이 2017년에 40%로 20년 전의 1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48%로 증가해 세계에서 여성대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2018년 8월에 스웨덴은 페미니스트 외교의 교훈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외교 핸드북'을 만들었다. 이 소책자는 스웨덴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페미니스트 외교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22).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2017년 페미니스트 국제원조정책(FIAP: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다(Naves 2020).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개발원조라는 협소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외교는 빈곤을 근절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성평등 촉진과 여성과 여아에 대한 권한 부여는 페미니스트 외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다(Thompson and Clement 2019, 3)."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국제원조정책은 여섯 개의 우선 실행 분야를 포함한다. 첫째,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에 대한 권한 부여(Gender equality and women's and girls' empowerment)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줄이고,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을 강화하며, 여성과 여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개선하고, 젠더 분석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은 양질의 의료, 영양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여성과 여아의 필요를 반영한 인도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모두를 위한 성장(Growth that works for everyone)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통제 등에 관한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에게 경제적 기회와 자원 접근 권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여아가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독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환경 및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적응하고, 여성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및 구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포용적 거버넌스(Inclusive governance)는 여성인권을 증진하고,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며, 강력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과 여아의 정치참여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평화와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는 평화구축 및 분쟁 후 재건에 더 많은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고 안보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며, 평화유지군에 의한 폭력 및 성적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España Global 2021, 13-14; Thompson, Ahmed and Khokhar 2021, 6).

프랑스는 2018년에 수립된 국제성평등전략(Inter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을 보완해 페미니스트 외교로 발전시킨 국가이다. 국제성평등전략은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국제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해외원조만을 다루고 있었으나, 페미니스트 외교로 선포 직후 다음과 같은 의미가 추가되었다. "…성평등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다. 성평등은 외교의 원칙이 될 것이며, 교차하는 주제(cross-cutting theme)가 될 것이다(Thompson and Clement 2019, 3-4)." 프랑스는 베이징세계여성대회+25를 개최하던 2019년 세계 여성의 날에 페미니스트 외교 채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Thompson and Clement 2019, 1). 또한 프랑스개발청(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은 2019년에 1억2천만 유로를 페미니스트 외교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면서 이를 두고 페미니스트 외교라고 명명했다(Lagunes 2020).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다섯 개의 주제 항목과 세 가지 기본원칙을 포함한다. 다섯 개의 주제 항목은 캐나다와 유사하게 성과 재생산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포괄적인 가족계획,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 산모 사망률 감소를 포함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건강 관리이다. 두 번째 주제는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접근 및 개선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접근이며, 세 번째 주제는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 주제는 직업 훈련 및 교육의 기회이고, 다섯 번째 주제는 외딴 농촌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 시설 개선이다.

프랑스 페미니스트 외교의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는 포괄적 접근 원칙, 권리 기반 원칙, 젠더 기반 원칙이 있다. 첫째, 포괄적(comprehensive) 접근 원칙은 국가가 페미니스트 외교의 적용 범위를 개발로 제한하지 않고 더

광범위한 부문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포괄적 접근 원칙은 외교·국제개발부 내에 젠더동수제를 포함해 외교의 우선순위에 젠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둘째, 권리 기반(rights-based) 원칙은 인권 관련 원칙, 규범 및 규칙이 포함된 인도주의 및 발전정책,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등을 말한다. 셋째, 젠더 기반(gender-based) 원칙은 성주류화을 말하며 "성평등 관점이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모든 수준과 단계의 모든 정책에 통합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Thompson and Clement 2019, 4).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외교부 장관은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 채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시기 뉴욕에서 개최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위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Global Citizen Festival)에서 멕시코의 델가도(Martha Delgado Peralta) 외교부 차관은 멕시코 정부가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목표로 페미니스트 외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델가도 차관은 같은 시기 칠레에서 개최된 제14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여성회의에 참여해 멕시코 정부의 페미니스트 외교 방침을 재차 밝혔다(EFENueva York 2019).

2020년 1월 초, 제31차 멕시코 대사·영사 연례회의에서 멕시코 정부는 페미니스트 외교 채택을 공식화했다. 멕시코 출신의 ECLAC 사무총장 바르세나는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 성평등을 위해 세계적으로 일하기(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de México: trabajando globalmente por la igualdad de género)"라는 연설을 통해 멕시코 정부의 새로운 외교 방침을 알렸다(Bárcena 2020).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의 목표는 "국가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일련의 원칙에 기반을 두며, 여성과 남성의 구조적 차이나 성 격차 및 불평등을 제거하여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외교부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다(SRE 2020, 4).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다음 다섯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성 관점과 해외 페미니스트 의제를 더한 외교정책(Política Exterior con perspectiva de género y agenda feminista exterior Plus)'이다. 멕시코는 모든 외교 영역에서 인권적 접근, 성

관점 부여, 교차성에 중점을 두며, 외교 분야에서 여성 참여 촉진과 다자간 포럼에서 성 관점 및 인권 의제 확대를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한다(Reyes 2021). 둘째, '동수 외교부(Una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SRE) Paritaria)'는 노동 평등과 직업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남녀 동수 외교부를 지향한다(España Global 2021, 18). 이 지침은 외교부 내 성평등과 해외서비스에서의 성평등 모두에 해당되고 외교부 내의 성교육,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사례 교육 및 성희롱 감별 지침, 사무국 내 성폭력 방지 지침 등도 포함된다(Reyes 2021). 셋째, '폭력이 없고 모두에게 안전한 외교부(Una SRE libre de violencia y segura para todas)'는 외교부 사무국 및 해외 공관에서 괴롭힘과 성폭력이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넷째, '외교부에서 여성 인력의 가시화(Visibilización del capital femenino de la SRE)'는 외교부 여성 인력이 외교 분야에서 고위직에 오르고 외교에서 여성의 기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차적 페미니스트 외교부(La SRE es feminista interseccional)'는 외교의 모든 입장, 전략, 조치들에 대한 교차적 접근의 도입을 의미한다(España Global 2021, 18-19). 교차적 접근이 의미하는 바는 페미니스트 외교와 국내정책이 상호보완되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기구의 지침에 따라 국내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yes 2021).

멕시코 외교부는 페미니스트 외교 방침의 발표 후 동수외교부(SRE paritaria)를 위한 멕시코 외교법(Ley del Servicio Exterior Mexicano)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된 외교법에는 외교부 구성원 간 평등 조건의 확립, 해외파견 대사의 배우자로서의 역할 인정, 외교 원칙 매뉴얼에 유엔의 HeForShe 캠페인,[6] 노동평등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멕시코 표준인 NMX-R-025-SCFI-2015 인증 포함, 공관 주변의 안전한 사방 경계 유지 등이 포함되었다(Delgado 2020).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의 실행 시기는 2020~2024년으로 관련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다자의제·인권담당 차관실의 인권·민주주의 사무실이 담당하고 있다(España Global 2021, 17-18).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시행한 페미니스트 외교 관련 조치들로는 2020년 1월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5차 당사국총회(COP 25)

6 HeForShe는 남성과 소년이 성평등 달성을 위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대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회운동 캠페인으로 UN Women에 의해 추진되었다(UN Women 2020).

에서 멕시코 대표단의 제안에 따라 젠더 및 기후변화에 관한 리마작업프로그램에 젠더행동 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멕시코는 교차성과 젠더 평등 행동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가시화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에 실질적인 성평등을 넣는 프로그램을 주장한 국가 중 하나였다(Meléndez 2021). 젠더에 관한 리마작업프로그램의 개정 작업에서 멕시코 대표단은 인권, 성평등, 교차성, 토착 여아와 여성에 대한 언급 강화를 홍보했다(González 2020).

또한 멕시코는 EU 및 유엔과 함께 스포트라이트 구상(Iniciativa Spotlight)을 적용했다(España Global 2021, 21). 이 구상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분석하고 이들의 권한 강화 및 성평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2022년에 7백만 달러의 예산을 통해 여성살해 사건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ONU Mujeres México 2019). 이 밖에도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는 구조적·제도적·규제적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국가적 당면문제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타국과 협력하고, 국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들에게 '유리천장깨기 메달'을 수여하고, 마티아스로메로연구소(Instituto de Matías Romero)[7]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Bárcena 2020).

서구와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징 비교

페미니스트 외교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세계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8]에서 대체로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를 보면 스웨덴이 5위, 프랑스가 16위, 캐나다가 24위, 멕시코가 34위를 차지했다(World Economic Forum 2021). <표 1>을 보면 멕시코의 경우 성 격차지수가 2020년부터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 이유는

7 마티아스로메로연구소는 1974년에 멕시코 외교부가 "외교, 국제정치 및 멕시코 외교정책 분야에서 학자 및 고급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8 성 격차지수(GGI)는 경제(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교육 성취), 보건(건강과 생존), 정치(정치적 권한)의 네 개 영역을 통해 측정된다. GGI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경제 참여와 기회'는 남녀의 노동 참여 비율, 동일노동 임금 비교, 남녀의 임금, 남녀의 관리직 비율, 남녀의 전문직 비율로 평가되며, '교육 성취'는 남녀의 문맹률, 남녀의 초등교육 입학 비율, 남녀의 중등교육 입학 비율, 남녀 취학 비율로, '건강과 생존'은 남녀의 출생성비, 남녀의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로, '정치적 권한'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정부 부처 내 여성 비율, 여성 지도자 비율로 평가된다.

멕시코 선거에 젠더동수제를 적용된 결과 여성의원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을 포함해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은 젠더동수제와 동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젠더동수제와 동수민주주의는 페미니즘 정치의 정당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외교의 정당화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Aguirrezabal 2021).

표 1. 국가별 성 격차지수(GGI) 비교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2021	5위	16위	24위	34위	102위	120위
2020	4위	15위	19위	25위	108위	121위
2018	3위	12위	16위	50위	115위	110위
2017	5위	11위	16위	81위	118위	114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21.

<표 2>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성 격차지수가 2020년 이후 빠른 향상을 보인 이유는 '정치적 권한' 지표의 개선 때문이었다. 멕시코는 '정치적 권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경제 참여와 기회'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표 2. 성격차지수(GGI) 평가지표별 비교(2021)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스웨덴	11위	61위	133위	9위
프랑스	58위	1위	86위	20위
캐나다	40위	1위	100위	29위
멕시코	122위	56위	58위	18위
한국	123위	104위	54위	68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2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멕시코의 여러 가지 여성 억압의 축을 고려하는 교차성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멕시코의 교차성 분석에서는 '빈곤' 요인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빈곤 요인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및 비서구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멕시코에서 빈곤과 젠더의 교차적 특성이 페미니스트 외교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른 비서구권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스웨덴은 모든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국가로서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성 격차지수를 보여주는 이른바 '인권 패권국'이다. 스웨덴은 외교에서도 성평등 관점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외교의 본질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Telles 2020). 스웨덴이 페미니스트 외교의 내용으로 표방하는 '3R(rights, resources, representation)'은 급진적이지는 않으나 유용하다고 평가된다(Thompson and Clement 2019). 7). 스웨덴과 프랑스 페미니스트 외교의 공통점은 (1) 국제원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2) 글로벌 외교 무대가 전통적인 원조와 지원의 대상이었던 과거 식민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3) 단순한 개발원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교정책에서 페미니스트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Thompson and Clement 2019, 4).

이와는 다르게 캐나다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징은 개발 분야 외교 의제에 페미니스트 구상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국제원조정책이라고 지칭된다(Naves 2020). 캐나다 사례는 한 국가가 성평등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해 개발 및 인도적 자금 지원을 수행하게 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스웨덴, 프랑스와 달리 캐나다는 가부장적 젠더 권력구조의 타파를 약속하지 않으며, 대신에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권한 부여라는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Nehme 2021).

한편, 멕시코는 인도적 지원정책이나 해외 개입 전통이 없는 국가이다. 대신에 멕시코는 젠더 문제에 관한 국제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페미니스트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테예스[9]는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멕시코 사례가 자유주의적 성격의 페미니스트 외교라는 서구적 시각을 깨고 글로벌 남반구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멕시코 사례를 통해 앵글로색슨의 언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페미니스트 외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España Global 2021, 22~23).

9 테예스(Tatiana Telles Calderón)는 멕시코기술자치대학교(ITAM) 국제관계학과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부(FLACSO)에서 젠더학과 공공정책학을 수학한 연구자이다.

표 3. 주요 국가별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징

	구상	목표	목적	적용	이행 및 보고
스웨덴 (2014)	-3R(권리, 대표성, 자원) -인권, 교차성 -다자간 프레임워크 및 협정	-성평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완전한 인권 향유에 기여	-6가지 주제 목표(권리, 폭력 방지, 정치참여, WPS, WEE, SRHR)[10]	-모든 외교에 걸쳐 국내정책과 연계	-연간 실행계획이 포함된 다년 약정 -현재 3년 주기 (2019-2022년)
프랑스 (2019)	-다자간 프레임워크과 협정 및 SDGs -인권, 교차성, 성주류화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 권한부여 및 평등권 -성평등을 위한 프랑스의 행동	-5가지 개입 영역(모범사례 및 정책 옹호 개입, ODA 자금 조달,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성, 시민사회 지원 및 결과 공유)	-국제개발정책의 내부 및 외부에 적용 -광범위한 외교정책 공약 및 접근 방식에 대한 연결	-기준선과 목표뿐 아니라 특정 결과, 지표, 관련 이해관계자 및 시간 제한 약속이 있는 책임 프레임워크 -5개년 전략
캐나다 (2017)	-사회규범과 권력관계의 변화 -인권, 교차성, 연구, 증거, 책임 -SDG 5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부여를 통해 "빈곤을 근절하고 더 평화롭고 더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세상을 건설함"	-6개 실천영역 (성평등, 인간존엄성, 모두를 위한 성장, 환경 및 기후행동, 포용적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	-모든 외교정책의 내부와 외부, 국내정책에 연계	-로컬 여성인권단체와의 협력 약속 -ODA의 95%가 성평등을 목표로 하거나 통합하는 목표 -ODA 책무법에 따라 의회에 연례 보고
멕시코 (2020)	-인권 -성주류화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구조적 차이, 성 격차 및 불평등 제거	-5가지 원칙 (모든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페미니스트 접근 방식 주류화, 외무부의 모든 직급에서 성평등, 부처를 포함해 젠더 기반 폭력 퇴치, 평등의 가시화, 교차성)	- 외교정책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내정책과 연계	-정책 이행 책임이 다자인권차관에게 있음

출처: IWDA(International Women's Development Agency) 03/2020.

페미니스트 외교가 공식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현재까지는 소수의 국가만 이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페미니스트 외교의 내용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페미니스트 외교의 정의와 관련해 모든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다. 교차성이란 불평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억압의 축(성, 계급, 민족, 성적 취향 등)으로 인해 배제되고 억압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특권을 갖게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관점이다. 페미니스트 외교에서 교차성 분석이 갖는 의미는 초국가적 맥락에서 처한 위치의 범주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억압의 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10 WPS(Women, Peace and Security,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WEE(Women's economic empowerment,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SRHR(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 때문에 구체적인 현상을 분석할 때 이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멕시코를 사례로 들면, 멕시코의 억압의 축이 서구 국가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의 특징도 서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페미니스트 외교가 글로벌 남반구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onzález 2020).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의 채택 요인

멕시코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할 수 있게 했던 내재적 요인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외교 분야에서 멕시코 여성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충원을 들 수 있다. 멕시코 여성은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30년대에 외교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부터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비록 수적 비중은 적지만, 외교 분야에서 멕시코 여성들이 보여준 역량과 잠재력은 최근 페미니스트 외교의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는 멕시코에서 제도화된 페미니스트 운동의 발전과 성과도 주목해볼 만하다. 특히, 제도적 페미니스트들은 1993년 연방선거제도·절차법 115조 개정을 통해 젠더할당제를 공식화하는 데 성공한 후, 2002년 여성의원 후보 30% 할당제, 2008년 젠더할당제 비율 40 대 60으로 조정, 2014년 연방상하원의회, 주의회, 지자체 선거 등 모든 수준에서 젠더동수제(헌법 41조) 확립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INE).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2020년 페미니스트 외교의 선언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본다.

외교 분야에서 멕시코 여성의 대표성 확대

1920년대까지 멕시코 영사법은 여성을 서기, 통역사, 번역사, 속기사 등 사무직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해외 영사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1934년 제정된 멕시코 외교법은 여성이

외무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였다(García 2019). 멕시코에서 최초로 외교관에 임명된 여성은 기옌(Palma Guillén de Nicolau)이었다.[11] 기옌은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대통령 집권기인 1935년 2월~1936년 8월에 특임전권대사로 콜롬비아에 파견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제연맹의 멕시코 대표단으로 활동했다(Axotla 202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차 증가했으나, 공관과 대사관에서 고위직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옌 특임전권대사 이후 17년 만인 1952년에 곤살레스(Amalia González Caballero de Castillo Ledón)[12]이 스위스 주재 멕시코 대사로 임명되었다. 곤살레스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투쟁하던 페미니스트였으며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대사 및 유엔대사를 역임했다(García 2019). 1934년 멕시코 외교법 제정이 기옌의 외교 분야 진출에 도움을 주었다면, 1946~1953년 멕시코 여성의 참정권 확보와 시민권 확대는 González의 외교활동을 원활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외교 부문 진입을 위한 장벽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멕시코 외교부 규정 개정 이전까지 여성의 외교 부문 진입을

---

11 기옌(1893~1975)은 멕시코시티 출생으로 사범학교(Escuela Normal para Maestros)에서 수학했고, 1918년에 멕시코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México, UNAM의 전신)의 Altos Estudio(1924년 이후 Facultad de Filosofía y Letra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외교관·영사 과정을 이수했다. 1935년에 카르데나스 대통령은 기옌을 콜롬비아와 코펜하겐 주재 멕시코 전권대사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옌은 여성 최초로 특별사절로 외교관 고위직에 올랐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기옌은 국제연맹에서 멕시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기옌은 마테오스(Adolfo López Mateos) 대통령하에서도 밀라노 주재 멕시코 총영사(Cónsul General de México)에 임명되었다(Sánchez 1993).

12 곤살레스(González, 1898~1986)는 타마울리파스주 출신의 작가로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사이다. 빅토리아 시의 사범학교(Escuela Normal de Maestros)에서 전문과정을 밟았고, 이후 수도로 와서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의 철학·문학부(Facultad de Filosofía y Letras)에서 히스패닉 언어와 문학(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29년부터 제도혁명당(PRI)에서 활동했고, 멕시코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여성동맹(Alianza de Mujeres)를 창설했다. 곤살레스는 1935년에 멕시코의 외교정책 원칙을 지원하고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민주주의미주여성위원회(Comité Femenino Interamericano pro Democracia)를 구성하였다. 또한 곤살레스는 미주기구(OAS)에 미주여성위원회 설치를 주도한 이후 이 위원회를 이끌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곤살레스는 샌프란시스코 세계회의(Conferencia Mundial de San Francisco)에 참석하여 유엔헌장에 남녀평등이 포함되는 데 기여했다. 곤살레스는 1948년에 멕시코 대표로 OAS에 참여했고, 1964년에는 유엔 국제공공행정자문위원회의 일원이었으며, 1965년에는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Organismo Internacional de Energía Atómica) 대표를 지냈다.

가로막는 법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Axotla 2021). 멕시코 외교부는 1822년에 설치되었으나, 외교 분야로의 여성 진입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의 제거는 1967년에 들어서야 완료되었다. 그 결과, 1946년 3월에 멕시코 외교부 입사한 알레그리아(Paula Alegría Garza)가 1962년에 덴마크 전권대사로 임명될 수 있었다. 이후 알레그리아는 유네스코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멕시코 여성 최초로 경력대사가 되었다. 다른 한편, 1947년 외교 업무를 시작한 테예스는 국제기구 사무총장(1964~1970)을 지냈고, 1970~1976년 외교부 초대 고위관리를 역임했다. 여성의 외교 분야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애물이었던 국내법이 정비되고, 외교 업무와 가정생활의 병행에 있어 사회적 장애물도 제거되기 시작했다(García 2019). 여성의 외교 분야 참여는 평등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지난 40년 동안 법적인 변화도 분명히 나타났다(Axotla 2021).

1982년 멕시코 외교법이 개정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법적 평등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고, 성별 구분 없이 외교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개정된 유기법은 여성이 외교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승진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법적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이 규정의 여섯 번째 조항에는 부부가 외교서비스를 수행할 때 같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임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여성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경력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은 가사나 아이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직에 임명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었고, 문화나 종교 혹은 이념 등의 이유로 여성의 외교 업무 수행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여성 외교관을 파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González 2020).

1990년대 들어 외교 분야에서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세계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성공하지 못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유엔의 189개 회원국이 성평등과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에 집중하기로 동의하였다.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해외 근무 여성의 수가 증가했으나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García 2019). 멕시코 외교부의 여성 참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 대사의 경우 1992년 3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 2015년 14명, 2016년 10명이었고, 멕시코 외교부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은 20% 미만이었다(Telles 2020). 2003년 들어 멕시코

외교부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46%로 가장 높은 정부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2016년 멕시코 대사와 영사 중 75%는 여전히 남성이었다(García 2019). 멕시코에서 여성이 외교부 장관을 맡았던 사례는 1998~2000년 로사리오 그린(Rosario Green), 2006~2012년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2015~2017년 클라우디아 루이스 마시에우(Claudia Ruíz Massieu) 세 번에 불과했다(Telles 2020).

델가도 외교부 차관은 임신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외교 분야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델가도 차관은 외교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외교법 개정 작업이 연방상원의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상원의회에서 논의되는 외교법 개정안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외교 분야에서 지배적인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폭력과 괴롭힘 근절 및 평등정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내에 동수젠더관계사무국(Secretaría de Relaciones de Género Paritaria)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무부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의 80개 해외공관 중 20%만 여성이 수장으로 일하고 있다(González 2020).

멕시코 정부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한 직후인 2020년 말에 멕시코 외교부에 근무하는 1,117명 중 여성은 31%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성들은 대부분 기술·행정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멕시코는 외국과 국제기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21명의 여성 대사가 있다. 기존 3명의 외교부 장관 외에도, 멕시코는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로 플로레스(María del Socorro Flores Liera) 대사를 임명했다(Axotla 2021). 바르세나는 2023년 3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 멕시코 정부의 국립 외교아카데미인 마티아스로메로연구소를 이끌게 된다. 2008년 7월 1일부터 ECLAC 사무총장직을 시작한 바르세나는 2023년 3월 31일 칠레 산티아고에 기반을 둔 유엔기구인 ECLAC를 떠날 것이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2018년 취임 후 바르세나를 총리로 임명하고자 했으나 그녀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외교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리 중 한 명인 바르세나는 지역의 불평등, 기후변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성찰 등을 그녀의 주요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

또한 멕시코 외교부는 15명의 외교부 인사 신규 임명하였다. 그 중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소노라주 전 여성 주지사인 파브로비치(Claudia Pavlovich)를 바르셀로나 주재 멕시코 영사로 임명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제도혁명당 출신이며 캄페체주 전 주지사인 아이사(Carlos Miguel Aysa)는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으로 파견되었고, 유명한 여성작가인 에스키벨(Laura Esquivel)은 브라질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앙기아노(Amparo Anguiano)는 루마니아 대사로, 펜사도(Norma Pensado), 덴마크 대사로 임명되었다. 사라고사(Carolina Zaragoza)는 아일랜드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파견되었고 G20, MIKTA,[13] 외교부의 유럽국가정치문제 현재 조정관인 빅토리아(Maria Victoria Romer)o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파견되었다(EFE 2022).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의 여성들은 정치적·법적·사회적 장벽의 제거 덕분에 국가의 공적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왔으나 외교 분야에서 성평등 달성은 아직도 요원하다(García 2019). 멕시코 여성은 세계적 차원에서는 좀 이른 시기인 20세기 초반부터 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활약을 해왔다. 멕시코 역사상 단 세 명의 여성만이 외교부 장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외교 분야는 여성들에게는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외교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멕시코 여성의 수적 열세가 상당 정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의 제도화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의 역사는 자율성 유지 입장과 제도화 주장 사이의 간 경쟁의 역사였다. 소위 신페미니스트 운동이 1970년대 초 전국여성운동(Movimiento Nacional de Mujeres), 라레부엘타단체(Colectivo La Revuelta), 페미니스트투쟁(Lucha Feminista), 여성해방운동(Movimiento por la Liberación de la Mujer) 등의 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1975년 멕시코에서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이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대회 개최에 반대하며 항의 대회를 개최했다. 항의 대회는 이틀 동안 평등, 폭력,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주제를 둘러싼 토론으로 진행되었

13 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여 만든 국가협의체

다. 당시 자율적 페미니스트들은 국가의 제도적.공식적 입장과 억압적 자본주의 발전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운동단체로 자기 단체를 정의하였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은 도시의 중산층 여대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노동, 성희롱, 강간, 급여 차이, 섹슈얼리티 등 여성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소그룹을 만들었다. 소그룹을 통해 자율적 페미니스트들은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고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였다. 소그룹은 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양식이었고, 억압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내면에 숨어 있는 억압을 끌어내어 합당한 가시성을 부여했다. 이 운동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지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 비영리 활동을 위한 법인격의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스트 운동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페미니스트 운동의 제도화는 자연발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추동된 것이었다. 포드(Ford)나 맥아더(McArthur)와 같은 미국 자선재단들이 미국 페미니즘 운동의 제도화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해외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자원 활동가들은 점차 전문화된 유급 노동의 형태로 일하게 되었다(Watkins 2019, 281-291).

그러나 국가와의 관계는 페미니스트 운동 내에서 큰 논쟁거리였다. 1980년대 말까지 멕시코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지배적인 입장은 여전히 자율성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었다. 모든 형태의 국가기관과의 접촉이나 협력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행위로 간주되거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부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국가가 그동안 소홀했던 영역을 비판하며, 인구 절반인 여성의 진정한 평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을 요청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국가 사이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6년,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COAPEVI: Centro de Orientación y Apoyo a Personas Violadas)가 시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도로보호국(Secretaría de Protección y Vialidad)의 산하로 들어갔다. 그 결과 여성인력으로만 구성된 성범죄전문기관과 성폭력피해자지원치료센터(CTA-Centro de terapia de poyo a víctimas de violación)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초에는 성폭력에 대한 일련의

입법개혁이 성사되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페미니스트 운동가, 여성의원들, 언론매체 여성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

페미니스트들의 또 다른 중요한 요구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자유로운 낙태를 위한 투쟁이었다. 멕시코에서 낙태는 1934년부터 범죄로 취급되었다. 낙태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단계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중단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 유전적 기형,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 형사 처벌 면제를 주장했다. 선택된재생산정보그룹(GIRE: Grupo Información en Reproducción Elegida)은 멕시코시티 정부 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강간에 따른 낙태는 합법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2007년 멕시코시티 형법 개정으로 임신 12주 차까지 임신 중단이 합법화했다. 멕시코시티 형법 개정은 멕시코시티 좌파 정부와 페미니스트 단체 간 결집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우파세력은 강력히 반발하며 “임신의 순간부터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들어 제도적 페미니즘이 강화되자,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은 국가와 유익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재편되었다. 제도적 페미니스트들은 영향력 있는 사회적 행위자임이 확인되었고, 국가기관과는 복잡하지만 거의 항상 유익한 대화를 이끌어갔다. 제도화된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활동은 입법기관의 할당제(cuotas) 제도화 과정에 집중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할당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로 여성 대표성 목표 달성을 위한 비율과 방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여성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려면 모든 여성 그룹이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찬성론과 여성의 몸이 젠더 인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대론이 있었다. 비록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2014년 페미니스트들은 입법부 선거에서 연방, 주, 지자체 단위의 젠더동수제를 성사시켰고, 현재연방상원의원은 49.2%, 연방하원의원은 48.3%가 여성이 차지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21세기 첫 10년 동안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igualdad de mujeres y hombres)과 여성의 폭력 없는 삶의 접근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acceso de las mujeres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이 제정되었다. 이는 젠더 관점이 제도적

영역에서 수용되었다는 점과, 담론 영역과 법적 형식 면에서 성평등과 폭력 제거를 위한 투쟁이 최우선 과제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Torres 2019, 207-212). 물론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현존하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결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내재적 요인에 집중해 멕시코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하게 된 동기와 서구권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멕시코 사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교 분야에서 멕시코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의 제도화에 따른 정부와의 협상력 증대 등 내재적 요인을 고찰하는 것이 국내정치 혹은 국제정치 맥락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상황적 요인보다 페미니스트 외교 채택의 동기와 그 특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본 논문의 관점이다.

멕시코가 페미니스트 외교를 채택하게 된 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멕시코 여성의 외교 분야 진출이 세계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사를 역임했던 소련의 콜론타이(Alexandra Kollontai)가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등에서 활동한 것이 1920년대 이후라는 점(García 2019)과 비교해보면,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후에 멕시코 최초의 여성 외교관인 기옌이 특임전권 대사직을 맡아 활동했다.

둘째, 멕시코 여성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서 인권 보호를 비롯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기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국제연맹에서 멕시코 대표로 일했고, 곤살레스는 유엔헌장에 남녀평등 조항을 넣는 데 공헌했을 뿐 아니라 유엔, 미주기구(OAS),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멕시코 대표로 활동했다. 여성 최초로 경력대사를 지낸 알레그리아는 유네스코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테예스는 국제기구 사무총장을, 최근 들어서는 바르세나가 ECLAC 사무총장을 지냈다.

셋째, 멕시코는 1934년 이후 지속적인 외교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1967

년에는 여성들의 외교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였고, 1982년에는 외교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법적 평등을 명시하였다. 최근에는 1982년 외교법이 갖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 페미니스트 외교 선언에 따른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외교법 개정에 들어갔다.

넷째, 멕시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젠더동수제 등 페미니스트 정치와 페미니스트 외교를 주도하는 데에는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의 기여가 컸다고 본다. 1970년대 이후 자율적 페미니스트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젠더의식을 함양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제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처한 폭력 상황을 국가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유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이후 젠더할당제, 젠더동수제 등 페미니스트 정치와 최근 페미니스트 외교의 추진 과정에서도 압력단체 또는 정부와의 협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멕시코의 페미니스트 외교가 불완전하다거나 젠더인권 현실과의 괴리를 보인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페미니스트 외교가 멕시코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살해나 여아실종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가리는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비서구권 개발도상국의 페미니스트 외교가 서구사회의 기준에 따라 강요되거나 이식되는 방식보다는 자국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내적 동력이 발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멕시코 같은 젠더인권 취약국이 어떻게 페미니스트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젠더인권 취약국임에도 멕시코가 어떻게 페미니스트 외교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관점으로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교를 고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Bárcena, A. (2020), "Evento 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de México: trabajando globalmente por la igualdad de género," https://www.cepal.org/es/discursos/evento-la-politica-exterior-feminista-mexico-trabajando-globalmente-la-igualdad-genero

Chang, Eun Ha, Kyung Hee Kim, Young Taek Kim, Jiso Yoon, Hye Seung Cho, Ji Hyun Hong, Jung Soo Kim, Yoonjung Park and Youngsook Cho (2019), *Review of Global Agenda on Gender Equality and South Korea's Experience,*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hang, Eun Ha, You Kyung Moon, Hye Seung Cho, Jung Soo Kim and Ji Hyun Kim (2017),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 *South Korea: Gender-related Targets and Indicator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Delgado, M. (2020), "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de México," http://martha.org.mx/una-politica-con-causa/la-politica-exterior-feminista-de-mexico/

Gill-Atkinson, Liz and Joanna Pradela(2021), "Germany Has Declared a Feminist," https://www.internationalaffairs.org.au/australianoutlook/germany-has-declared-a-feminist-foreign-policy-so-what-happens-next/

González Delgadillo, V. (2020), "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mexicana," Seminario Permanente de Estudios Internacionales. El Colegio de México, https://sepei.colmex.mx/index.php/blog/pol-ext-fem

Heo, Min Sook (2013), "The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Local Practice of Women's Human Rights," *Journal of World Politics*, Vol. 19, pp. 97-134.

Hoang, Youngju (2013), "A Genealogy of Feminist Security Studies," *Journal of World Politics*, Vol, 19, pp. 22-53.

INE(Instituto Nacional Electoral), "Movimiento de paridad en México, (1910~2019), https://igualdad.ine.mx/paridad/cronologia-del-movimiento-en-pro-de-la-paridad-de-genero/

IWDA(International Women's Development Agency)(2020), "Feminist Foreign Policy in Practice: Comparative Analysis of Country Frameworks," *Policy Brief*, March, https://iwda.org.au/assets/files/Comparative-analysis-of-feminist-foreign-policies.pdf

IWDA(International Women's Development Agency)(2021), *Trajectories Towards Feminist Foreign Policy,* https://iwda.org.au/assets/files/IWDA_FFPTrajectoriesReport_Web.pdf

Kim, Minjeoung Kim (2020), "Swedenui Feminist Oegyojyeongchaek (Sweden's feminist foreign policy)," *Gender Review*, Autumn, pp. 62-72.

Lagunes Huerta, L. (2020),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a la mexicana," https://mx.boell.org/es/2020/03/06/politica-exterior-feminista-la-mexicana

Lee, Halin and Hyeyoung Chang (2022), "Feminist Foreign Policy Analysis: Sweden and Canada Cases,"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61, No. 1, pp. 163-191.

López-Valerio, I. (2017), "¿Quién le teme a un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2 de Marzo, https://blog.realinstitutoelcano.org/quien-le-teme-una-politica-exterior-feminis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March 5, https://www.regjeringen.no/en/topics/foreign-affairs/the-un/innsikt/womens_rights/id439433/

Naves, M. (2020), "'Feminist foreign policy' explained," *iD4D Sustainable Development News*, October, https://ideas4development.org/en/feminist-foreign-policy-explained/

Nehme, V. (2021), "Generación de igualdad: el nuevo enfoque de 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https://fundacioncibei.org/generacion-de-igualdad-el-nuevo-enfoque-de-la-politica-exterior-feminista/

ONU Mujeres México(2019), "Iniciativa Spotlight," https://mexico.unwomen.org/es/noticias-y-eventos/articulos/2019/12/spotlight-0

Ortiz Flores, Patricia(1993), "Amalia González Caballero de Castillo Ledón," http://www.elem.mx/autor/datos/120147

Quispe Ojeda, A. (2020),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Sueca: Análisis de su surgimiento y propuesta para fortalecer la labor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l Perú en materia de igualdad de género,* Tesis para obtener el grado académico de maestra en diplomacia y relaciones internacionales, http://repositorio.adp.edu.pe/bitstream/handle/ADP/140/2020%20Tesis%20Quispe%20Ojeda%2c%20Andrea%20Geraldine%20.pdf?sequence=1&isAllowed=y

Reyes Domínguez, R. (2021), "Conoce los 5 pilares de 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en México," https://merida.anahuac.mx/noticias/conoce-los-5-pilares-de-la-politica-exterior-feminista-en-mexico

Sánchez Rebolledo, A. (1993), "Enciclopedia de la Literatura de México," http://www.elem.mx/autor/datos/129410.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20), "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del Gobierno de México," Septiembre,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576095/Presentacio_n_PEF_baja.pdf

Seol, Gyoosang(2022), "Canad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volving Around the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and Its Development Effectiveness,"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Vol. 21, No. 1, pp. 65-91.

Silva Esparza, P. (2021), "Feminismo en la Política Exterior Mexicana(2020-2024)," *MUUCH' XÍMBAL CAMINEMOS JUNTOS*, March, pp. 51-75, https://doi.org/10.26457/mxcj.v0i12.2916

Tokatlian, J. (2018), "Por un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Abril," *Nueva Sociedad*, Abril, https://nuso.org/articulo/por-una-politica-exterior-feminista/

Thompson, L. and Clement, R. (2019), *Defining Feminist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https://www.icrw.org/wp-content/uploads/2019/04/ICRW_DefiningFeministForeignPolicy_Brief_Revised_v5_WebReady.pdf

Thompson, L., Ahmed, S. and Khokhar, T. (2021), *Defining Feminist Foreign Policy: A 2021 Update,*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Torres Falcón, M. (2019), "El movimiento feminista mexicano y los estudios de género en la academia," *La Aljaba*, segunda época, Vol. XXIII, pp. 203-219.

United Nations (2022), "An era for Feminist Diplomacy," https://unric.org/en/an-era-for-feminist-diplomacy/28/03/2022

UN Women (2020), "HeForShe," https://unwomenusa.org/advocacy-3

Watkins, S. (2019), "Which Feminisms?,"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Vol. 168, Autumn, pp. 256-297.

World Economic Forum (2017),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17.pdf

World Economic Forum (2018),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18.pdf

World Economic Forum (2020),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0.pdf

World Economic Forum (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1.pdf

Yoon, Jiso (2021), "Feminist Oegyojyeongchaekgwa Gukjegaebalhyeobryeok(Feminist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ender Review*, Summer, pp. 57-61.

Ambassade De France Au Qatar, 2022.2.3., "Feminist Diplomacy," https://qa.ambafrance.org/Feminist-Diplomacy

AnimalPolitico, 2021.1.22., "¿Qué ha sido de l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https://www.animalpolitico.com/la-dignidad-en-nuestras-manos/que-ha-sido-de-la-politica-exterior-feminista/

EFE, 2022.1.17., "Alicia Bárcena dirigirá la academia diplomática de México tras dejar la Cepal," https://www.efe.com/efe/america/mexico/alicia-barcena-dirigira-la-academia-diplomatica-de-mexico-tras-dejar-cepal/50000545-4719501

EFENueva York, 2019.9.29., "México adoptará un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en 2020, dice la vicecanciller," https://www.efe.com/efe/america/mexico/mexico-adoptara-una-politica-exterior-feminista-en-2020-dice-la-vicecanciller/50000545-4074988

El Economista, 2021.3.10.,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el informe de México a la CEDAW," https://www.eleconomista.com.mx/opinion/Politica-exterior-feminista-el-informe-de-Mexico-a-la-CEDAW-20210310-0135.html

El Financiero, 2020.1.9., "México anuncia adopción de un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https://www.elfinanciero.com.mx/nacional/mexico-anuncia-adopcion-de-una-politica-exterior-feminista/

El Sol de Mexico, 2020.10.10., "Hacen falta mujeres diplomáticas: Martha Delgado," https://www.elsoldemexico.com.mx/mexico/politica/hacen-falta-mujeres-diplomaticas-martha-delgado-5902595.html

España Global, 2021.3.23., "Un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en Canadá, México y Suecia," https://cdn.esglobal.org/wp-content/uploads/2021/03/EstudioComparativo-2_compre2ssed.pdf

Foreign Affairs Latin America, 2020.3.2., "¿Un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mexicana?" https://revistafal.com/una-politica-exterior-feminista-mexicana/

Foreign Affairs Latin America, 2021.5.20., "Mujeres: la nueva política exterior

mexicana," https://revistafal.com/mujeres-la-nueva-politica-exterior-mexicana/
Misionpolitica, 2019.3.12., "Mujeres y el Ámbito Diplomático," https://misionpolitica.com/2019/03/12/mujeres-y-el-ambito-diplomatico/
Politica Exterior, 2021.2.8., "¿Qué significa una política exterior 'feminista'?," https://www.politicaexterior.com/que-significa-una-politica-exterior-feminista/
PoliticsHome, 2019.1.15., "Labour's feminist foreign policy would take on gender-based violence in all its forms," https://www.politicshome.com/thehouse/article/labours-feminist-foreign-policy-would-take-on-genderbased-violence-in-all-its-forms

Article received: 2022.07.25
Revised: 2022.08.12
Accepted: 2022.08.17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2) Vol. 35 No. 2: 33-57
https://doi.org/10.22945/ajlas.2022.35.2.33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Femicide)와 지배의 매트릭스

박윤주*
계명대학교

ABSTRACT

Femicide in Mexico-US Borderlands and Its Matrix of Domination: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reasons behind the femicide in Mexico-US Borderlands by applying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trix of domination proposed by Patricia H. Collins. By doing so, this paper proposes to contemplate the intersectionality of various oppressions that Mexico women experience in their site of domination. After exploring structural factors that have triggered the increase of femicide in the area, this paper concludes that patriarchy and dependency turn out to be the two main oppressions which form matrix of domination of femicide in Mexico-US Borderlands. In other words, economic dependency of Mexico forces Mexican women to take the most vulnerable jobs in the most dangerous places while the pariarchy lables them as 'bad' women who refuse to take traditional gender role in order to pursue economic interests. Such image of female workers in *maquilador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femicide in Mexican borderland as well as to the inaction of the government against such crime.

Keywords: Mexico, Femicide, Matrix of Domination, Patriarchy, Dependency,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 지배 매트릭스, 가부장제, 종속

* Yun-Joo Park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Keimyung University (yunjoopark@kmu.ac.kr).

서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을 통칭하여 여성혐오 살해 혹은 페미사이드(Femicide)라고 일컬으며 이는 성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1970년대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등장 이전에는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1970년대 이전에 여성혐오 살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살해당한 여성의 사망 원인을 여성에 대한 혐오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여성계와 비여성계 모두의 거부감이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뜻한다(Russell and Radford 2018, 22-24). 하지만 1970년대부터 여성혐오 살해의 정의를 정교화하고 그 심각성을 알려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세계가 여성혐오 살해를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를 단순한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일탈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가부장제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여성혐오 살해는 살해당한 여성의 개인적 비극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재규정되었다(Ibid. 28-29).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여성혐오 살해가 여성운동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과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혐오 살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 역사는 길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치안이 불안해짐에 따라 여성이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가 여성혐오에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멕시코에서 증가하고 있는 잔인하고 끔찍한 여성 살인사건들은 멕시코에게 “여성혐오 국가(Femicide Nation)(Phillips and Pearlmutter 2022)”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겨주었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인권 기구들이 멕시코 정부에게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만들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21, Human Rights Watch 2020).

이렇듯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인 여성혐오 살해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사회문제로 언론을 장식하는 동안 우리

학계의 라틴아메리카 여성혐오 살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라틴아메리카 여성혐오 살해의 현황 및 연구의 동향을 소개하는 글(Lee 2020)은 라틴아메리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여성혐오 살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혐오 살해라는 사회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틀을 제시하는 작업의 부재를 메꿔주지는 못하였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여성혐오 살해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혐오 살해를 단순한 범죄의 한 종류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각기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이론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부재를 극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다층적이고 교차적인(intersectional) 구조를 설명한 패트리시아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의 지배 매트릭스(Matrix of Dominance)라는 이론틀을 여성혐오 살해에 적용해보았다. 힐 콜린스는 미국 내 흑인 여성이 당면한 차별의 문제는 여성 차별과 함께 인종 차별 나아가 계급 차별등 다양한 억압이 교차하여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틀인 지배 매트릭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배 매트릭스가 라틴아메리카의 여성혐오 살해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여성혐오 살해의 강력한 동인인 가부장제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의 삶에 작동하는 다양한 억압의 기제를 규명하고 이들이 가부장제와 함께 교차하고 작동하며 만들어내는 지배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혐오 살해를 유발하는 여성 억압의 특수성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살해의 지배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칫 국경지역에서 증가하는 강력범죄의 하나로 치부될 수 있는 여성혐오 살해의 특수성을 분석하였고, 멕시코 여성이 경험하는 중층의 억압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살해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 글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로 멕시코와 특히 멕시코의 북부 국경지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지역의

여성혐오 살해가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를 이해하는 데에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분석하고 특히 이들이 지목한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혐오 살해라는 여성 지배의 극단적 상황이 내포하는 다층성을 드러내기 유리한 패트리시아 힐 콜린스의 지배 매트릭스를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하는 틀로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지배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례 소개: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의 여성혐오 살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여성혐오 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조직되는 현상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의 사회 폭발이라고도 불리는 사회 개혁 요구 시위의 중심에서 울려 퍼졌던 여성들의 “강간범은 바로 너(El violador eres tú)”라는 플래시 몹일 것이다. 칠레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가해자로 국가, 가부장제, 공권력, 사법제도를 맹렬히 비판했던 이 플래시 몹은 칠레를 넘어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전세계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21세기 페미니스트 송가(himno)가 되었다(el País 2019).

최근 멕시코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저항 또한 두드러진다.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저항은 지역별로 조직화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시티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몇 년째 열리고 있는 열리는 대규모의 여성혐오 살해 반대 시위는 전례 없는 여성파업의 날(el Día sin Nosotras)까지 성공시키며 멕시코 사회 개혁의 중요한 목소리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사회학적 의미를 지닌다. 멕시코에서의 여성혐오 살해는 멕시코 여성이 처한 억압의 구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이러한 억압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과 나아가 멕시코 사회의 노력 또한 분석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에 집중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약 400명의 여성들이 멕시코의 북쪽 국경도시 시우닷 후아레스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2003년 텍사스 먼슬리(Texas Monthly)지에 실리면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 여성혐오 살해의 심각성은 전세계에 알려졌다. 이 기획기사를 쓴 세실리아 발리는 시우닷 후아레스를 죽음의 도시라고 지칭했다(Minutanglio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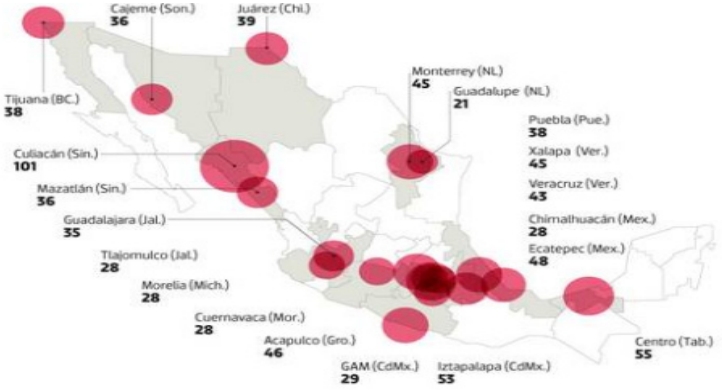
2010년대까지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이 여성혐오 살해의 주된 발생지인 것은 각종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0년의 경우 전체 여성혐오 살해의 1/4이 5개의 시에서 일어났다. 치와와의 시우닷 후아레스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은 여성혐오 살해가 발생하였고, 바하 칼리포르니아의 티후아나에서 89건, 치와와주 차와와시에서 84건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시에서 39건 그리고 멕시코 주 에카테펙 데 모렐로스에서 35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 멕시코주 에카테펙 데 모렐로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시는 모두 북부 지역이며 시우닷 후아레스, 치와와, 티우아나는 모두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들이다(Echarri Cánovas 2013, 8).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에서 일어난 여성혐오 살해 사건들의 심각성은 멕시코 사회가 여성혐오 살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우닷 후아레스에서 실종된 세 여성의 시신이 2001년 11월 6일 목화밭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목화밭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2007년 미주 인권 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에 넘겨졌다. 2009년 11월 16일 2년 간의 심리를 거쳐 미주 인권 법원은 세 여성을 살해한 행위가 삶에 대한 권리, 자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은 멕시코 정부가 피해자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고 사법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하였다(Evidence and Lessons from Latin America 2013, 2).

국제 사법 기관의 이러한 결정은 멕시코가 여성혐오 살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제하였다. 목화밭 사건 판결 이후 멕시코는 여성혐오 살해(feminicidio)를 공식적인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는 입법 절차를 완료하

였고, 그 결과 멕시코 형법 325조에 따라 여성을 그의 젠더 혹은 젠더와 관련된 동기로 살해한 경우 이를 여성혐오 살해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살해사건을 여성혐오 살해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시하였다(McGinnis et. al. 2022, 8). 이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조차 쉽지 않아 혐오범죄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규정이 부재한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선진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법의 변화는 멕시코 사법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멕시코의 중앙 및 지방 검찰 조직에는 여성혐오 범죄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이 보강되었고, 이들은 여성혐오 살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는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를 이해하는 데에 상징적인 의미를 띈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은 오랜 기간 가장 빈번하게 여성혐오 살해가 일어나는 지역이었으며 동시에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여성운동의 요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함으로써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el Sol de México 2020

그림 1. 여성혐오 살해 최다 발생 지역(2015-2019)

하지만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멕시코에서 여성혐오 살해는 전국

적인 현상이 되었다. 2010년까지 북부 국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여성혐오 살해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빈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산의 이유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이론들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본 연구는 북부 국경지역에서의 여성혐오 살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여성혐오 살해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 틀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의 확산 또한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론적 고찰: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과 지배 매트릭스(matrix of domination)

여성혐오 살해를 일컫는 페미사이드라는 용어는 미국의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이 1976년 벨기에에서 열린 1차 <여성 대상 범죄 국제 재판>의 증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러셀은 여성혐오 살해를 “남성에 의한 여성 혐오적 여성살해(Russell and Radford 2018, 11)”이자, “성폭력의 한 형태(ibid. 21)”로 정의한다. 또한 여성혐오 살해는 “여성들에 대한 증오, 경멸, 쾌락 또는 숭배관에 따른 동기를 지닌 남성들에 의한 성차별적 테러리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Russell and Caputi 1992, 15, Hwang 2013 재인용)”라고 주장하였다. 러셀은 그동안 여성에게 가해지는 혐오에 근거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가 강간과 구타라고 보았던 페미니즘과 비 페미니즘의 모든 관점을 거부하며(Russell and Radford 2018, 18)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 살해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스펙트럼에 위치함을 밝혀냄으로써 가부장주의 사회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여성혐오 살해의 논의는 여성혐오 살해의 동인으로서 가부장제가 작동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러셀을 비롯한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여성혐오 살해를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여성혐오 살해가 남성지배와 성차별주의의 극단적 표현임을 강조한다(Hwang 2013, 197).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하는 의도 역시 여성혐오 살해의 바탕이 되는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이 가부장제임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여성에 의한 여성혐오 살해, 즉 가해자의 범위에 여성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가해자의 생물학

적 성이 여성혐오 살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의 결과이다. 즉, 가부장제나 성차별주의에 근거하여 살해당한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의 생물학적 성에 집착하는 논리적 오류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여성혐오 살해의 가해자를 남성으로 국한하는 데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러셀 또한 "음핵 절제술을 여성이 시행하거나 방조한 경우, 미망인이 된 딸을 어머니가 화형에 처하도록 하거나 그 방조한 경우, 명예살인을 시행하거나 방조한 경우(Hwang 2013, 200)"를 들어 여성혐오 살해의 가해자를 남성에서 가부장제 혹은 여성 차별주의에 근거하여 여성을 살해한 '모두'로 확대하려는 노력에 동참하였다. 여성혐오 살해의 가해자를 남성이 아닌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에 의한 동기로 살해를 저지른 '모두'로 확대하는 것은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여성혐오 살해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살해가 되고, 여성혐오 살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적 모순의 극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혐오 살해의 가장 큰 동인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성혐오 살해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면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여성혐오 살해의 유형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래드포드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여성혐오 살해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동인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래드포드는 페미사이드가 인종차별적 페미사이드, 레즈비사이드 즉 동성애 혐오적 페미사이드, 배우자 페미사이드, 낯선 사람에 의한 페미사이드, 연쇄 페미사이드, 대량 페미사이드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고 주장하였다(Russell and Radford 2018, 30). 래드포드의 이러한 유형 분류는 페미사이드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인종차별에 의한 페미사이드나 동성애 혐오적 페미사이드의 경우 페미사이드의 원인을 중심으로 한 분류인 반면, 배우자 페미사이드나 낯선 이에 의한 페미사이드는 가해자의 유형을 그리고 연쇄 페미사이드와 대량 페미사이드는 그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그 분류의 범주가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래드포드의 분류가 본 논문에 주는 시사점은 여성혐오 살해가 가부장제와 함께 작동하는 또 다른 동기들을 만나 서로 다른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즉 여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살해의 사례들은 가부장주의적 억압 속에서의 여성혐오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지만, 그 공통의 원인에 인종차별이 결합하였을 경우 또는 동성애 혐오가 가중되었을 경우 개별 여성혐오 사례는 특수성을 띤다. 따라서 이렇게 결합된 억압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제 중심의 기존 분석이 설명하지 못했던 여성혐오 살해의 복합성을 설명해낼 수 있고, 서로 다른 사회의 특징을 포괄하고 나아가 비교하는 여성혐오 살해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혐오 살해의 다양한 동인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양한 억압 요인 간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이론화한 패트리시아 힐 콜린스의 지배 매트릭스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패트리시아 힐 콜린스는 사회학자이자 흑인 여성주의 이론가로서 미국 흑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간의 상호작용을 교차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미국의 흑인 여성들은 인종, 계급, 성으로 인한 억압이 교차하는 곳(site)에서 삶을 일구는 경험을 공유한다. 이들의 현실은 성차별의 억압성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이론이나 계급차별을 사회 모순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시즘 이론 혹은 제도적 인종차별주의를 폭로하는 인종 이론 중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Collins 2009, 14-18).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 직면하는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등의 억압들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교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흑인 여성은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의 억압들로 인하여 분절된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억압이 투영된 의미 있는 전체(meaningful whole)가 된다(Han et. al. 2018, 45).

패트리시아 힐 콜린스의 지배 매트릭스(matrix of domination)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다층구조를 바로 이 교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틀이다. 콜린스에 따르면, “억압은 하나의 근본적인 유형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여러 억압은 부정의를 생산하는 데에 서로 함께 작동한다. 지배 매트릭스는 이러한 억압들이 실제로 조직되는 방식이다(Collins 2009, 50)”. 즉 지배 매트릭스는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민족 등의 다양한 억압들의 교차성이 실제 지배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기제이다. 지배 매트릭스는 지배의 구조 즉 훈육, 헤게모니,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억압들이 새롭게 범주적으로 묶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역별 발생하는 새로운 불평등과 억압을 구체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Hong 2020, 78). 따라서 여성혐오 살해를 하나의 억압 영역이라고 보았을 때 지배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 영역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억압들의 교차성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교차성과 지배 매트릭스는 모두 제3세계 여성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틀이다. 여성주의 연구에서 늘 제기되었던, 여성차별의 구조 속 제3세계 여성의 위치성(locality)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백인 여성의 관점에서 발전해왔다고 비판받는 미국의 여성주의가 교차성에 대한 고민을 거쳐 흑인 여성의 문제를 포괄하는 여성주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Collins 2009, 17-19)과 마찬가지로 교차성과 지배 매트릭스라는 틀은 제3세계 여성이 직면한 계급, 성, 인종 그리고 종속이라는 억압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배 매트릭스를 살아내는 제3세계 여성들의 다면성에 대한 고찰 또한 가능케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 또한 교차성과 지배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라는 억압의 영역에서 어떤 지배 매트릭스가 출현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 매트릭스 속에서 피해 여성들이 처한 위치를 다양한 억압의 교차성 차원에서 점검함으로써 멕시코 여성들이 처한 억압의 구조를 좀 더 정교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 여성혐오 살해의 지배 매트릭스를 구성해봄으로써 향후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사회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또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배 매트릭스의 틀을 활용하여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하였다.

지배의 매트릭스(matrix of domination)를 통해 본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

2020년 유엔 여성위원회는 멕시코의 여성혐오 폭력과 살해를 분석한 <멕시코의 여성혐오 폭력: 현황과 경향(La violencia feminicida en México: Aproximaciones y tendencia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분기 동안 약 489명의 여성이 여성혐오 살해로 목숨을 잃었고, 1,443명의 여성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이는 곧 하루에 약 10.6명

의 여성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ONU Mujeres 2020, 29). 멕시코 시민들은 이 엄청난 숫자에 경악하였고, 여성계는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반(反)성폭력 정책을 실행하라고 요구하였다.

여성혐오 살해의 증가는 멕시코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미나 모하매드 UN 사무부총장은 2019년 9월 26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근절의 성과와 시각들(Progress and perspectives on elimin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살인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살인사건으로 여성이 희생되는 비율은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UN 2019). 특히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이 대유행 이전보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악화하였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2021년 발표된 유엔 여성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5%의 여성이 COVID-19 대유행 이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10명 중 4명의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대유행 이전보다 더 큰 위험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UN Women 2021, 5).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2019년 전체 살인사건 중 10%가 여성혐오 살해로 분류되었으며, 여성혐오 살해율은 2015년에 비하여 무려 145%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급증하였다(Sandin 2020). 동시에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또한 급증하였다. 특히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2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무려 8만 명의 여성들이 멕시코시티에서 여성혐오 살해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튿날인 3월 9일에는 "우리(여성)들이 사라진 날(Un Día sin Nosotras)"이라는 구호 아래 멕시코 여성계의 주도로 여성 파업을 시행하였다(Martínez 2022).

본 연구는 이렇듯 심각해지고 있는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를 멕시코 여성들이 직면한 새로운 억압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영역은 멕시코 여성들이 겪는 억압들의 교차성을 본질로 하는 지배의 매트릭스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사례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작동케 하는 지배의 매트릭스가 가부장제/성차별 그리고 종속이라는 억압 유형의 교차성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멕시

코에서 가부장제/성차별 그리고 종속이 각각 어떻게 지배의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가 갖는 특수성을 규명하였다.

여성혐오 살해의 억압 유형1: 가부장제와 성차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혐오 살해의 근간에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있다. 여성을 혐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회구조로서 가부장제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이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하는 작업들은 멕시코의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문화에 주목하였다. 펜리(Fenley)가 2014년 발표한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 분석 기사는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의 지배 매트릭스 안에서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갖는 중요성을 잘 드러낸다. 그가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 시민 관측소 (the Observatorio Ciudadano Nacional de Feminicidio: OCNF)의 변호사 유리리아 로드리게스(Yuriria Rodríguez)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는 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멕시코의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문화를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로드리게스는 인터뷰에서 한 법무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폭로하였다.

> “우리는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들이 사회가 그녀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매번 당신이 주위를 돌아볼 때마다 당신은 더 많은 여성 노동자, 더 많은 여성 택시 운전사들을 보게 될 이다. 그녀들이 문화가 부여한 역할을 거부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화가 나고 그녀들을 죽이는 것이다(Fenley 2014, 1).”

이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려 법을 집행하는 정부 관료가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을 ‘멕시코 문화가 부여한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 즉 피해자에게서 찾는 전형적인 가부장주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혐오 살해의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여성혐오 살해의 가해자는 원인을 제공한 여성에게 반응한 대상으로 취급되는 논리 구조 속에서 여성

혐오 살해가 범죄로서 갖는 무게는 감해진다. 나아가 이러한 현실은 여성혐오 살해는 가부장주의 사회가 그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여성에게 내리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맞아떨어진다(Russell and Radford 2018, 28-29). 여성혐오 살해는 가부장제가 이상적으로 설정한 여성성과 성 역할을 거부한 여성들에게 선을 넘어서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가부장제 사회의 경고인 것이다.

여성혐오 살해가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부장주의 사회가 내린 가혹한 사형선고를 의미한다면, 이들 여성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내려지는 너그러운 판결은 여성혐오 살해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부장제의 또 다른 얼굴이다. 멕시코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에서 여성혐오 살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만드는 사유로 사용되는 소위 "폭력적인 감정 상태(Fenley 2014, 2)"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멕시코의 형량 경감 사유이다. 여성혐오 살해의 피해자를 오랜 세월 대변해 온 변호사이자 멕시코 국회 젠더 평등 위원회 간사 겸 상원의 인권위원장인 에디스 로페스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불륜, 무시 혹은 이별 통보로 인해 자신이 '폭력적인 감정 상태'에 빠져 이성을 잃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 덕에 가해자들의 형량은 흔히 절반까지 낮아진다(Ibid. 1). 가부장제의 규율을 어긴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분노는 정당한 것으로 치부되고 이러한 남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관대해진다. 이는 여성혐오 살해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멕시코 사회의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러싼 가부장주의적 반응은 멕시코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주의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성차별주의적 시각은 오늘날 여전히 멕시코 사회에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멕시코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레포르마(Reforma)지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민의 69%가 여성주의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며, 35%가 여성들이 때때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며 그 결과 피해를 본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34%는 술에 취한 여성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장에 동의하였다(Fernán-Méndez 2022). 이러한 생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원인을 여성의 행동에서 찾으려 하는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다. 이렇듯 가부장주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나아가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에게서 찾는 문화를 배태하며, 이는 피해 여성에 대한 가혹한 시선과 가해자에 대한 너그러운 법적 판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와 관련하여 목격되는 멕시코 정부 및 사법당국의 무관심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가부장주의적 이해에 근거한다. 2019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그 자녀를 위한 쉼터 예산을 삭감하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이들 여성에게 쉼터를 제공하기보다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도피한 여성들에게는 현금보다 몸을 숨길 장소가 필요하며, 폭력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폭력이 발생한 곳으 계속 머물 경우 여성혐오 살해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높아진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AusteridadMachista(남성중심주의적_긴축재정)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저항하였고, 수많은 여성단체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이런 결정이 성폭력과 여성혐오 살해가 여성 개인의 비극 혹은 가해 남성의 일탈이라고 보는 가부장주의적 시각을 담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Arainfo 2020).

이렇듯 멕시코의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는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비난하고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여성혐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행마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라는 지배영역 안에서 멕시코 여성이 견뎌야 할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라는 억압의 무게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여성혐오 살해의 억압 유형2: 종속

가부장제가 여성혐오 살해의 지배 매트릭스 안에서 주요 억압으로 작동하는 것은 멕시코의 여성살해 혐오가 다른 사회의 여성살해 혐오와 공유하는 점이다. 하지만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살해 혐오가 다른 사회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가 주로 국경지역 중 마킬라도라라고 불리우는 자유무역 지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 차이가 세계 경제 구조에 종속된 멕시코의 경제적 지위, 즉 종속적 지위가 여성혐오 살해의 억압 유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는 멕시코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세계 경제 속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멕시코 경제의 종속성이 결합하여 생겨난, 멕시코 사회 특유의 여성 억압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설명할 지배 매트릭스에는 멕시코 사회의 가부장제적 성차별과 함께 멕시코 경제의 종속성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의 교차성이야말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 여성혐오 살해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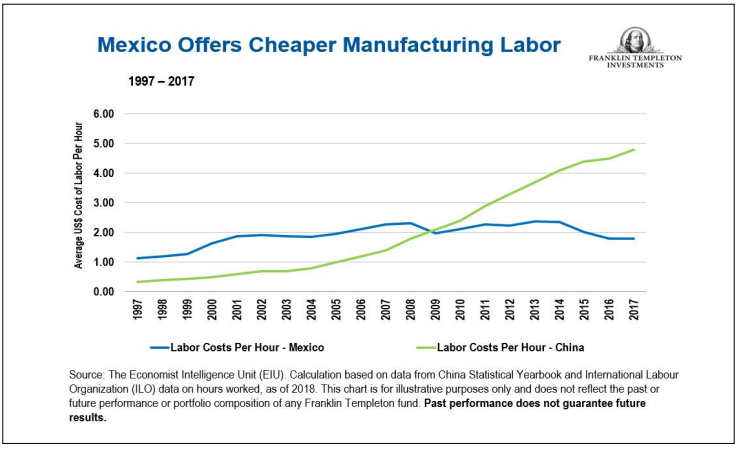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설명할 지배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주요 억압 유형으로 멕시코 경제의 종속성을 언급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올리비에라와 푸리오(Olivera and Furio)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2006),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나타난 극빈층의 증가, 실업률 증가, 농민 경제의 붕괴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의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는 멕시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서 기원한다(104).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위기와 종속은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더욱 악화하였다.

멕시코는 1994년 미국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래로 미국 시장으로 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기지의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의 공장 자리를 둔 경쟁은 멕시코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Krásná and Deva 2019, 34-35).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더욱 강력한 노동 유연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할 노동조합은 상당히 약화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노동조합은 분열되거나 가입자 수의 급감을 경험했으며, 나아가 신자유주의 이전에 누렸던 정치적인 영향력마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의 약화는 무역자유화,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공공부문 노동자의 해고,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증가시켰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거하였다. 동시에 금융 자유화 덕분에 외국 자본은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압력을 통하여 노동자와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결국, 노동조합

은 조직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Weyland 2004, 147).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온 힘을 기울인 끝에 2008년 이후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고용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다.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멕시코 경제가 차지하는 종속적 지위는 멕시코가 끊임없이 저임금 구조를 갱신하도록 강요하며, 이러한 멕시코 경제의 특징이 자유무역 지대 즉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여성의 노동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북부 국경지역에서의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 경제의 생산기지로 탈바꿈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마킬라도라로 끊임없이 이주해오는 여성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아래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킬라도라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내하면서 선진국의 소비재를 만들어내야 했다(Kim 2017). 이러한 여성들은 미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조직들이 저지르는 여성혐오 살해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는 가부장주의적 폭력임과 동시에 제3세계의 종속된 경제구조가 갖는 취약성과 위기라는 억압유형이 가부장주의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가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멕시코의 국경 지역 자유무역 지대인 마킬라도라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출처: EIU 2019

그림 1. 멕시코와 중국의 시급 비교(1997-2017)

'마킬라도라'는 멕시코의 자유무역 지대를 일컫는 용어이다. '마킬라'란 멕시코 농부들이 옥수수를 갈기 위하여 방앗간에 지급하는 수고비인 옥수수 가루의 양을 재는 단위이다. 마킬라도라라는 용어는 자유무역 지대를 거대한 방앗간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입주한 다국적 기업들을 방앗간을 사용하는 농부로 비유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즉, 다국적 기업들이 마치 농부들처럼 방앗간인 멕시코에 옥수수(즉,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를 제공하고, 멕시코 정부는 그 수고비(즉, 임금과 생산비)를 챙기는 방앗간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데에서 생겨난 용어이다(Kim 1998, 90).

신자유주의와 함께 확대된 자유무역 지대에서 생겨난 일자리들은 좀 더 낮은 임금을 찾아 거점을 옮기는 기업과 자본의 횡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직접 투자는 연간 50억 달러에서 연간 16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생겨난 일자리 대부분은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생겨났으며, 마킬라도라에서 창출되었던 일자리 중 약 30%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대 초 중국의 개방과 함께 임금이 더 낮은 중국으로 옮겨갔다(Babb 2005, 213). 이렇듯 신자유주의하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갖는 불안정성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만으로는 보상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그 결과 많은 라틴아메리카 노동자들은 실업과 낮은 임금수준을 감내해야 했다(Portes and Hoffman 2003). Kim(1998)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 생겨난 관세 자유지역인 마킬라도라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여성들이다. 1976년에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79%에 달했으며 1997년에는 그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절반이 넘는 58%의 노동자가 여성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마킬라도라 노동의 여성화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Sánchez Martín 2007, 8). 왜 마킬라도라의 공장들은 이렇듯 많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한 것일까?

마킬라도라 지역에 입주한 수출 산업 단지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를 선호한 이유는 남성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요구가 적고, 노동조합을 조직한다거나 노동권을 요구하는 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게다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유연한 손가락과 손재주를 가졌다는 성차별적인 여성관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Gaspar de Alba and Guzmán 2010, 127).

마킬라도라 지역의 여성 노동자 선호 현상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이어졌다.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고용된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관리직이나 경영직으로 승진할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이나 출산을 꺼리는 노동환경으로 인해 고용절차에서부터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불쾌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고용된 상태에서도 몇몇 사업장에서는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성들이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상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도 하였다(Kim 1998, 107).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졌을 리 만무하다. 국경 지역 마킬라도라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살해를 추적한 리디아 카초 기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여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교통편조차 제공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였다(Savage 2010).

이처럼 멕시코 경제의 종속적 지위라는 억압의 유형은 멕시코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의 대상이 되도록 강제한다. 멕시코 경제의 종속이라는 억압 유형이 멕시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는 현장이 바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들인 것이다. 마킬라도라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한 입지는 마킬라도라 여성 노동자들이 특히 여성혐오 살해의 대상이 되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 여성혐오 살해의 특수성을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가부장제/성차별주의와 멕시코 경제의 종속적 지위라는 두 가지 억압 유형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라는 억압의 영역에서 어떻게 교차하였고 그 결과 어떤 지배의 매트릭스를 형성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와 지배 매트릭스

멕시코 치와와주와 미국의 텍사스주의 국경에 위치한 시우닷 후아레스는 여성혐오 살해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여성혐오 살해가 일어나는 지역이자 멕시코의 대표적인 마킬라도라 지역이다. 이 도시에서 2010년에만 913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고 보고되었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3천여 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86명이 여성혐오 살해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는 2016년보다 16%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듯 높은 여성살인 및 여성혐오 살해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여성 노동자(trabajadora)를 곧 여성 접대부(ramera)로 여기는 마킬라도라 지역의 여성관을 꼽을 수 있다(Encarnación Lopez 2018).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자유주의하에서 창출된 생산직 일자리를 찾아 마킬라도라 지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멕시코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착한 여성'으로 여겨지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행동을 감행한 여성들로 취급된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위험한 국경지대로 올 정도로 적극적이며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그녀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추가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 몸을 파는 접대부로 취급받는다. 경찰들은 살해당한 여성들을 아무나와 술집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마약을 하고 미녀 선발대회와 같은 허황한 행사의 참가비를 모으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는 나쁜 여성으로 묘사한다(Encarnación Lopez 2018). 이러한 경찰들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은 범죄조직의 시각과 닮아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성들을 골라 납치하고 살해하는 범죄 집단은 '밤에 길에 나와 있는 여성'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며 '나쁜 여성'들이고 이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극단적인 여성 혐오를 드러낸다(Krasná and Deva 2019, 37).

그뿐만 아니라 마킬라도라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며 남성 노동자들의 불만과 적개심도 강해졌다. 시우닷 후아레스의 젊은 남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굴욕은 도시가 여성화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분노를 동료 여성 노동자들에게 드러내는 남성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Sánchez Martín 2007, 8). 멕시코의 경제적 종속이 창출한 여성형 일자리들은 소외된 남성 노동자들의 분노가 여성에게 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멕시코 젊은 남성 노동자들의 그 분노는 자신을 노동시장에서 소외시킨 멕시코의 경제적 종속으로 향하지 않고 가부장제적 성역할에서 벗어나 자신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여성들을 향하였고, 극단적인 경우 여성혐오 살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멕시코의 경제적 종속과 멕시코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혐오 폭력 혹은 살해까지 가져오는 지배 매트릭스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는 가부장제와 경제 종속이라는 두 억압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 지배 매트릭스가 견고하게 작동하는 장소(site)이자 억압 영역이다. 멕시코 경제의 종속적 위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변부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멕시코 사회가 늘 더욱 싼 노동자를 양산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강요 하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악화하고 이들이 입지는 점점 더 취약해지며, 멕시코 경제의 종속적 지위 안에 멕시코 여성 노동자의 입지는 누구보다도 열악해졌다. 여성 노동자들은 마킬라도라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견뎌야 했고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감내하며 이 부문에 끊임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예비군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멕시코의 경제적 종속이라는 억압은 멕시코의 가부장제 및 성차별주의와 만나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라는 억압 영역을 지배하는 독특한 매트릭스를 만들어낸다. 경제적 종속의 결과 노동시장에 유입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영웅의 지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한 '나쁜 여자'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이다. 멕시코의 자유무역 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의 영역인 노동시장에 뛰어든 선을 넘은 여성으로 여겨졌고, 전통적 성역할로부터의 이탈은 곧 일탈로 받아들여졌다. 낮에는 노동자이고 밤에는 몸을 파는 여자로 비난받게 된 여성 노동자들은 손쉽게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혐오 살해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실종되는 시우닷 후아레스 시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더디 진행되고 이들의 실종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출로 오랜 기간 치부되어 살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배경에도 멕시코 경제의 종속과 멕시코의 가부장제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여성 살해 혐오의 지배 매트릭스가 있었다.

결론

여성혐오 살해는 세상의 모든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폭력이다. 하지만 그 원인만큼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각기 다른 차별의 특수성에서 찾아야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

는 멕시코 여성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지배 매트릭스 하에서 발생한 사회현상이다. 오랜 전통의 가부장제와 함께 멕시코가 세계 경제 속에서 갖는 생산기지로서의 종속적 지위가 결합하여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여성혐오 살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멕시코 여성들이 여성이자 동시에 멕시코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억압 영역의 교차성을 보여주며,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를 이해할 때 고려되어야 할 멕시코 사회의 특수성 또한 깨닫게 한다.

이 글은 콜린스가 여성에 대한 억압의 영역과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한 지배 매트릭스를 통하여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하였다. 즉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라는 억압의 영역에서 어떠한 억압의 유형들이 강하게 작동하는가를 고찰하여 멕시코 여성혐오 살해가 갖는 특수성을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연구는 멕시코의 가부장제와 멕시코 경제의 종속성에 주목하였다. 가부장제 속에서 차별받는 멕시코 여성은 다시 세계 경제 속에서 종속된 제3세계의 시민으로서 억압받는다. 이러한 억압들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해라는 억압의 영역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지배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멕시코 사회를 투영하는 여성혐오 살해의 특수성을 만들어내었다.

오랜 세월 견고하게 유지되어온 가부장제의 억압과 세계의 공장이라는 자리를 두고 끊임없이 저임금 경쟁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멕시코 경제의 종속적 지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교차성 속에 멕시코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교차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의 매트릭스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마킬라도라에서 집중적으로 여성혐오 살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종속적 위치의 멕시코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저임의 노동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여성들은 동시에 멕시코의 가부장제 아래에서 집을 지키지 않고 돈을 좇아 고향과 가족을 떠난 나쁜 여성이 된다. 멕시코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요악이 된 마킬라도라 여성 노동자들은 대규모 여성혐오 살해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은 '나쁜 여자'인 마킬라도라 여성 노동자들이 살인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본 연구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함으로써 멕시

코의 여성혐오 살해를 면밀하고 고찰하여 그 특수성을 규명해내고 동시에 다른 사회의 여성혐오 살해 또한 고찰할 수 있는 이론틀을 제안하였다. 여성혐오 살해의 바탕을 이루는 가부장제는 모든 여성혐오 범죄의 공통분모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마다 여성들이 맞닥뜨린 서로 다른 지배를 고찰하여 그들이 직면한 특수한 지배의 매트릭스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살해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화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여성혐오 살해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치 또한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는 국경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라크루스와 게레로주에서 급증하는 여성혐오 살해는 멕시코 여성이 처한 조직범죄라는 억압 유형의 작용을 암시하며,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의 여성혐오 살해 증가는 인종 차별이 여성혐오 살해라는 억압 영역을 설명하는 억압유형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성혐오 살해의 지배 매트릭스는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억압의 유형을 포괄하여 여성혐오 살해라는 억압 영역을 설명하는 교차성을 도출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 이론틀이다.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본 글에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여성혐오 살해를 분석한 분석틀 안의 억압 유형 외에 다양한 억압 유형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멕시코의 여성혐오 살해의 지배 매트릭스를 분석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Collins, P. H. (2009),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Park, Mee-Sun and Joo, Hae-Yeon(trans.), Seoul: The Center for Women's Culture and Theory.

Echarri Cánovas, C. J. (2013), "The Recent Upsurge of Homicides among Women in Mexico: Data, Laws and (Lack of) Policies,"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13 Annual Meeting*

Encarnación Lopez, M. (2018), "Femicide in Ciudad Juarez is enabled by the regulation of gender, justice, and production in Mexico," https://blogs.lse.ac.uk/latamcaribbean/2018/02/15/femicide-in-ciudad-juarez-is-enabled-by-the-regulation-of-gender-justice-and-production-in-mexico/

Evidence and Lessons from Latin America (ELLA)(2013), "The Cotton Field Case in Mexico: Setting Legal Precedents for Fighting Gender-Based Violence," https://fundar.org.mx/mexico/pdf/Brief-TheCottonFieldCaseSettingLegalPrecedentstoGenderViolence.pdf.

Fenley, L. (2014), "Femicide Rooted in Patriarchal Culture," https://digitalrepository.unm.edu/sourcemex/6054

Frías, S. M. (2021), "Femicide and Feminicide in Mexico: Patterns and Trends in Indigenous and Non-Indigenous Regions," *Feminist criminology,* 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15570851211029377

Gaspar de Alba, A., and Guzman, G. (2010), *Making a Killing : Femicide, Free Trade, and La Frontera*. Austin: University of Texas

Han, Woori, et. al. (2018), *IntersectionalityXFeminism,* Seoul: The Center for Women's Culture and Theory.

Hong, Chan-Sook(2020), "The difference in seeing differences: Theoretical questions from comparing intersectionality feminism and post-modern feminism," *Korean Feminist Philosophy, V*ol.34, pp.67-104.

Hwang, Jooyoung (2013), "Femicide," *Feminist Theory*, Vol. 28, pp. 192-214.

Human Right Watch (2020), "Mexican government paralyzed in the face of a wave of femicides," https://www.hrw.org/news/2020/03/03/mexican-government-paralyzed-face-wave-femicides

Kim, Meekyung (2017), "Women's Migration and Gender Violence on the U.S.-Mexico Borderlands in the Globalization," *Homo Migrans-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 17, pp. 139-170.

Kim, Myung Hye(1998), "Mexico Kookkyung Dosi Nodongjadeolgwa Gedulhui Gajoksanghwalsangae kwanhan kochal(Life history of workers at US-Mexico borderland and their family),"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11, No.1, pp.85-131.

Krásná, D. and Deva, S. (2019), "Neoliberalism, NAFTA, and Dehumanization: The case of femicides in Ciudad Juárez," *Fast Capitalism,* Vol. 16, No. 1, pp. 31-40.

Lee, Soon-Joo (2020).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Femicide(Feminicidio)' in Latin Americ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Vol. 22, No. 2, pp. 59-98.

Olivera, M., and Furio, V. J. (2006), "Violencia Femicida: Violence against Women and Mexico's Structural Crisi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2, pp. 104–114.

ONU Mujeres (2020), *La violencia feminicida en México: Aproximaciones y tendencias,* ONU Mujeres: México D.F.

Russell, D. and Radford, J. (2018), *Femicide: The Politics of Woman Killing,* Jeon, Kyung Hoon(trans.), Seoul: ChaekSeSang.

Massa Roldan, R., Fondevila, G. and García-Tejeda, E. (2021), "Female homicide victimisation in Mexico: a group-based trajectory and spatial study," *Global Crime,* Vol. 22, No. 2, pp. 123-142.

Sandin, L. (2020), "Femicides in Mexico: Impunity and Protests," https://www.csis.org/analysis/femicides-mexico-impunity-and-protests

Sánchez Martín, E. (2007), "Feminicidio y Maquila en Ciudad Juárez," *Revista D'estudis de la Violencia,* No.2, pp.1-12.

Savage, E. (2010), "Arresting Mexico's borderland femicide," *Eureak Street,* Vol. 20, No. 10, pp. 36-37.

UN Women (2021), *Measuring the Shadow Pandemic: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COVID-19*, https://data.unwomen.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Measuring-shadow-pandemic.pdf

Wright, M. W. (2011), "Necropolitics, Narcopolitics, and Femicide: Gendered Violence on the Mexico-U.S. Bord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36, No. 3, pp. 707–731.

Americas Quarterly, 2022.5.17., "Why Gender Violence in Mexico Persists—And How to Stop It," *Americas Quarterly*,

https://americasquarterly.org/article/why-gender-violence-in-mexico-persists-and-how-to-stop-it/

Amnesty International Press Release, 2021.9.20., "Mexico: Failings in investigations of feminicides in the State of Mexico violate women's rights to life, physical safety and access to justice," https://www.amnesty.org/en/latest/press-release/2021/09/mexico-failings-investigations-feminicides-state-mexico-violate-womens-rights-life-physical-safety-access-justice/

AraInfo, 2013.8.29., "Partido Popular: Machismo disfrazado de austeridad," https://arainfo.org/partido-popular-machismo-disfrazado-de-austeridad/

el País, 2019.12.8., "La letra de "El violador eres tú", el himno feminista que se extiende por el mundo", https://elpais.com/sociedad/2019/12/07/actualidad/1575750878_441385.html

el País, 2020.7.16.,, "El Gobierno recorta el presupuesto del Instituto de las Mujeres y deja a los Estados sin recursos contra el machismo," https://elpais.com/mexico/2020-07-16/el-gobierno-recorta-el-presupuesto-del-instituto-de-las-mujeres-y-deja-a-los-estados-sin-recursos-contra-el-machismo.html

el Sol de México, 2022.3.16. , "Mujeres llaman a boicot económico el 9 de marzo," https://www.elsoldemexico.com.mx/mexico/sociedad/mujeres-llaman-a-boicot-economico-el-9-de-marzo-7933504.html

elle.com, 2020.7.3., "Mexico Has a Second Pandemic: Femicide," https://www.elle.com/culture/career-politics/a32998348/mexico-femicide-crisis-what-to-know/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2019.9.26., "Amid Rising Femicide, Proportion of Women Killed Grows as Overall Murder Rates Fall, Deputy Secretary-General Tells Spotlight Initiative Event," https://press.un.org/en/2019/dsgsm1349.doc.htm

Article received: 2022.07.15
Revised: 2022.08.12
Accepted: 2022.08.16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2) Vol. 35 No. 2: 59-82
https://doi.org/10.22945/ajlas.2022.35.2.59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n the Protests in Chile, Ecuador and Colombia during 2019

Pedro Aravena Lavín[*]
Hamburg University

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n the protests in Chile, Ecuador and Colombia during 2019: This publication examines the exist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s and participation in demonstrations or protests. The objective is to distinguish the causality of social networks in the demonstrations that occurred during the year 2019 in Chile, Colombia and Ecuador. As a methodology,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used through the data provided by the Latinobarómetro 2020 survey. When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it can be distinguished how Chile is a deviant case when exposing the political factor "political scale of left", the demographic "age" and communicational or organizational "perception of social networks as an instru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highlights.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call into question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impact of demonstrations and protests in Latin American cases.

Keywords: Protests, Social Networks, Demonstrations, Latin America, Austerity.

[*] Pedro Aravena Lavín is researcher of Hamburg University (aravena.pedro@gmail.com).

INTRODUCCIÓN

Las redes sociales ha sido un tema de bastante atención dentro de la investigación en ciencia política. Sobre todo, por el impacto que puede producir en la imagen del sistema político como en el crédito y desacredito de sus actores. Es decir, la discusión ha sido ávida en términos si los avances en la comunicación tecnológica son positivos o nefastos. Especialmente importante ha sido su impacto en las movilizaciones sociales, y como los "fake news" son capaces de manipular masas (Zhuravskaya et al. 2020, 415-438).

El tema resulta complejo puesto que se une con la crisis de gobernabilidad y viene de la mano con problemas de largo aliento en la región, tales como: desigualdad económica, discriminación social & racial y corrupción, entre otros. Pese a ello, las redes sociales han demostrado impactar la forma como las exigencias de la población se han exteriorizado en el orden público desde una perspectiva más bien comunicacional. No obstante, no es menor pensar que los avances tecnológicos de las comunicaciones no siempre acarrean efectos constructivos y afables, sobre todo si consideramos su capacidad de movilización, manipulación y fanatismo.

Ahora bien, no todo resulta negativo puesto que también las redes sociales han aportado en la participación política de la población en post de la democracia, de hecho, cabe recordar que el trasfondo de las redes sociales se basa en la libre información (Ekman and Amnå 2012, 283-300). Es decir, todas las personas- mientras tengan acceso a internet-podrían obtener, con amplia horizontalidad, la capacidad de informarse y de opinar de manera independiente y en igualdad de condiciones. Un ejemplo de esto son las protestas denominadas "primavera árabe" y "occupy wall street".

En el año 2010, en Túnez, se dio inicio a una serie de manifestaciones cuyas causas fueron otorgadas a las malas condi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del país, gobernado por una dictadura militar duramente criticada por sus políticas económicas de distribución del ingreso, corrupción y alto nivel de

desempleo juvenil (Idahosa and Tonwe 2013, 111-112). Esto propició una revuelta democrática que contagió a otros países de la región, principalmente: Egipto, Yemen, Libia, Siria y Berein. Siria fue el país más afectado, en términos de violencia, producto de una brutal guerra civil entre fuerzas leales a Bashar Al-Assad y de oposición (Erzsébet et al. 2012, 11).

Durante la primavera árabe existieron investigaciones que estuvieron a favor de la importancia de las redes sociales en tales protestas, principalmente por dos motivos: (1) la mayoría de los protestantes demostraban ser jóvenes. (2) una mayor presencia de internet- en los países árabes durante de década de 2000- gracias a los planes de desarrollo de la Unión Europea (Wagner 2012, 4). Aquí las redes sociales parecieron ser un punto clave en la transmisión de información y capacidad de movilización de la población en post de la democratización. Tanto fue así que, frente a las protestas en Egipto del año 2011, tal gobierno decidió cortar completamente el acceso a internet para impedir que las personas puedan organizarse por este medio (Delacoura 2012, 69).

El caso de "Ocuppy Wall Street" también llamó la atención. Aquello tuvo comienzo cuando adherentes del blog canadiense "Adbusters" proclamaron, bajo el hashtag "#Occupy Wall Street", la ocupación del barrio financiero "Wall Street" en Nueva York (Wang and Caskey 2016, 101-117). Esto como protesta del liderazgo del gobierno de Estados Unidos, sus políticas de austeridad y su fracaso en la prevención y manejo con respecto a la crisis financiera global entre los años 2008 y 2011 (Yagci 2017, 640-670). Hubo enromes repercusiones, puesto que- como una bola de nieve- las protestas se fueron masificando a otras ciudades, tales como: Boston, Denver, Seattle, Los Angeles, Berlin, Amsterdam, Londres, Paris, etc (DeLuca et al. 2012, 484).

Los casos latinoamericanos son especialmente interesantes de estudiar. Durante el año 2019 se produjeron una ola de protestas sociales. Si bien éstas se dieron en diferentes contextos políticos y con heterogéneas exigencias de transformaciones, todas ellas provocaron repercusiones importantes en

términos de gobernabilidad. En tal perspectiva, las encuestas "Latinobarómetro", en su versión para el año 2020, realizaron valiosas preguntas en cuanto al impacto de diversos factores políticos, económicos y comunicacionales con respecto a las movilizaciones sociales. Aquellas preguntas permitirían dilucidar la importancia de las redes sociales en las protestas en algunos países estudiados, por ejemplo: Chile, Colombia y Ecuador.

El caso chileno, desde la perspectiva anteriormente descrita, fue llamativo. De hecho, fue tal el impacto ocasionado por las protestas que se le denominó estallido social, aquello por el alto número de disturbios (Garcés 2020, 32). No obstante, tal estallido tuvo una interpretación mucho más profunda. En un principio se le atribuyó su origen al aumento del precio del transporte público pese a que lo indudable descansaba en un descontento ciudadano que acarreaba décadas. Cabe recordar que la implementación de un sistema económico neoliberal se ha adjudicado como la base del crecimiento económico y liderazgo del país en la región. Sin embargo, aquello también trajo consigo un fuerte desequilibrio: ser considerado uno de los países más prósperos de Latinoamérica pero, al mismo tiempo, uno de los con mayor desigualdad del mundo.[1] Todo esto unido con los continuos casos de corrupción, abusos y colusión que desacreditaron aún más las instituciones políticas (Sherman and Rivera 2021, 1-13).

En Colombia, por su lado, el motivo detrás de las protestas sociales fueron el descontento con las políticas económicas, sociales y ambientales de Iván Duque y la gestión de acuerdo de paz con la 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Botero 2021, 4). Evidentemente, lo que fue en un principio un paro nacional convocado por centrales sindicales pasó a movilizaciones en todos los sectores de la sociedad. También se reclamaron mejores medidas para la protección de indígenas, líderes sociales y exguerrilleros frente a la ola de asesinatos por parte de traficantes, grupos armados, paramilitares y disidentes de la FARC.[2]

1 Gini Index.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locations=CL

En Ecuador, las protestas se dieron comienzo luego que el presidente Lenin Moreno firmara una serie de medidas de austeridad para eliminar el subsidio a la gasolina (Le Quang et al. 2020, 53-84). Éstas fueron lideradas, principalmente, por indígenas y sectores de la sociedad más vulnerables afectados por las medidas económicas propuestas por el presidente. De hecho, los gremios de taxistas y autobuses respondieron por tales decisiones a huelgas indefinidas, lo que finalmente derivó en colectivos indígenas. Frente a las protestas acontecidas, se implantó la denominada "guardia indígena" para enfrentar a la fuerza pública (Herrera 2020, 196).

Entonces, al considerar estos tres casos de estudio se pueden dilucidar factores en común: (1) Una crisis de gobernabilidad producto de las medidas de austeridad (2) Una alta y rápida capacidad de movilización de la población (3). Un alto nivel de pasión y cohesión por parte de los manifestantes.

Por todo lo anteriormente descrito aquí, se propone como los factores comunicacionales y las redes sociales han sido cruciales en el inicio de los movimientos sociales (Delacoura, 2012). Es más, al analizar los casos latinoamericanos- durante las protestas del año 2019- se pueden generar nuevas luces en la discusión propuesta. Aquello en un campo ampliamente discutido tanto empíricamente como teóricamente en otros continentes.

Finalmente, a modo de estructura, en el texto se presentará una breve indagación acerca de la teoría de los movimientos sociales y el estado de la discusión con respecto al impacto de las redes sociales en las protestas. Aquello será complementado con un modelo de regresión logística binaría para los casos de Chile, Colombia y Ecuador, para el año 2019, en perspectiva comparada. Se consideraron tales casos y tal período por los siguientes motivos: (1) En el año 2019 se produjeron fuertes movilizaciones en Latinoamérica, un golpe para el continente fundamentado por el acrecentado caos político unido por las demandas sociales con respecto a la inseguridad, el crimen organizado, desaceleración económica y escándalos de corrupción.

2 US Department of State(2021).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1/03/COLOMBIA-2020-HUMAN-RIGHTS-REPORT.pdf

(2) En los países seleccionados, durante tal período, las movilizaciones descansaron en orígenes y fenómenos en común, es decir, especialmente concernientes a las medidas de austeridad. (3) La encuesta "Latinobarómetro 2020" concedió un importante aporte a la discusión, en lo que ha este texto respecta, al incluir las variables "asistir a manifestaciones autorizadas" y "las redes sociales en la política".

Las redes sociales: su posición en el campo de estudio y su impacto en los movimientos sociales

Los movimientos sociales suelen padecer de una multicausalidad difícil de interpretar. Según su teoría intrínseca, ésta se ha movido habitualmente en la literatura entre el campo racionalista, materialista e institucional (Juris, 2014). Con respecto al primer punto, Karl-Dieter (2013) señala que la versión más generalmente aceptada acerca de la elección racional se compone de tres partes. Primero, el comportamiento humano es dirigido a un objetivo. Segundo, las preferencias determinan el comportamiento que se considera relevante para conseguir los objetivos. Tercero, el logro de la meta depende de las oportunidades o limitaciones del comportamiento (costo-beneficio), es decir, las restricciones. Sin embargo, pese a que el autor hace referencia a que tal teoría considera actores individuales, también comprende la complejidad de como aquellos actúan a través de actores colectivos. Con respecto a la dimensión materialista, ésta se refiere a una opción "anti-sistema" el cual es contra la austeridad, la desigualdad y las falencias de la democracia en cuanto a los derechos de subordinación de clases (Coburn 2016, 237). Considerando la dimensión institucional-también muchas veces denominada organizacional- su papel central se basa en el poder, el cual es evaluado en términos de "aptitud hacia la sociedad" así como "desempeño". Aquí se pone especial énfasis en como la "legitimidad" y "rendición de cuentas" son tan importantes como la "confiabilidad" y su "eficiencia" (McAdam 2005, 4-40).

Ciertamente, existen investigadores y observadores en el área de la ciencia política que explican los factores transcendentales de las movilizaciones sociales como aquellas que forman parte de las instituciones: corrupción o descontento en las autoridades. En cambio los economistas pueden adoptar explicaciones relacionadas con factores socioeconómicos tales como la desigualdad, desempleo o medidas de austeridad. La evidencia empírica, no obstante, entrega pistas acerca de los factores desencadenantes directos de las manifestaciones.

En esta perspectiva, el año 2011 fue de gran interés por el número de manifestaciones y protestas, principalmente en los países árabes, europeos y en Estados Unidos. En Egipto, Túnez y Libia la población civil se levantó en contra de los regímenes autoritarios en la denominada "primavera Árabe" alegando las malas condiciones de vida. En España, miles de ciudadanos se trasladaron a las principales plazas y pueblos- denominándose "Los Indignados"- manifestándose en contra de los efectos de la crisis financiera y de los drásticos recortes de gasto público declarados por la Unión Europea (Della Porta and Andretta 2013, 23–37). Lo mismo ocurrió en Grecia, donde se produjeron violentas protestas, especialmente por la izquierda radical y grupos organizados, promoviendo propaganda y movilizaciones- a través de las redes sociales- en contra de las medias de austeridad (Galis and Neumayer 2016, 4-5). También en Estados Unidos se ocupó el centro financiero "Wall Street" como inicio de una ola de protestas en contra de la concentración de capital y la falta de voluntad política para controlarlo (Della Porta and Andretta 2013, 23–37). En Italia, el estallido representó a cientos de miles de personas en Roma manifestándose contra el creciente descontento por las medidas socioeconómicas y la decreciente calidad de la democracia representativa hundida por los escándalos de corrupción del gobierno de Berlusconi (Della Porta and Andretta 2013, 23–37).

Ahora bien, también es posible contemplar protestas donde son mayormente atribuidas a factores políticos, donde el régimen ha jugado un rol predominante. Por ejemplo, en Hong Kong el 2014 y Siria y Libia el

2011. También el factor semi-autoritario ha sobrepasado a los factores económicos como casuales directos de las protestas, como por ejemplo en los casos recientes de: Azerbaiyán, Bielorrusia, Malasia, Rusia y Ucrania (Carothers and Young 2015, 9-11).

Con respecto a la influencia de las redes sociales en los movimientos sociales, son múltiples los autores que incluyen tal dimensión -parte de la teoría de los movimientos sociales- dentro del impacto de las organizaciones y su papel en el crecimiento y mantenimiento de la acción colectiva (George and Leidner 2019, 3-8). Ciertamente las organizaciones son claves para movilizar recursos, desarrollar repertorios de acción e identificar estructuras de oportunidades políticas. Ahora bien, trabajos sobre movimientos sociales contemporáneos han ido más allá de lo institucional y han incluido la teoría de acción conectiva "connective action", la cual explica como las tecnologías digitales y las redes sociales - como organizaciones- dependen menos de actores formales. Es decir, las tecnologías digitales permiten que las personas se reúnan y actúen en conjunto sin desarrollar necesariamente una identidad. Aquello se puede ejemplificar toda vez que se incluyen sentimientos y agravios personales, involucraciones a personas y selecciones de grupos de actores que podrían ver un mensaje en particular (Bharati et al. 2015, 2).

Evidentemente, los medios de comunicación social representan una nueva morfología dentro de nuestras sociedades, debido a que la lógica de las redes sociales puede cambiar el funcionamiento y los resultados dentro de los procesos de producción, experiencia, poder y cultura (Castells, 2001). Aquello es denominado por Castells (2007, 258-259) como "network society" toda vez que se utilizan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 comunicación para el desarrollo de una estructura social.

Desde otra perspectiva, hay autores que realizan una diferenciación conceptual al poner de manifiesto el plano online y offline. El plano online puede explicarse como el uso de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como medio de organización, mientras que el imaginario offline hace referencia a la operación de las instituciones y la centralización organizacional efectiva dentro

de las acciones colectivas (Laer 2010, 406-417). En términos políticos, la participación política online forma parte de un cambio en la forma de hacer política por parte de las nuevas generaciones incluyendo a aquellas personas que manifiestan apoyo a formas expresivas y no convencionales de hacer política (como los actos de protestas) además de incluir- en menor medida- a partidos políticos tradicionales (Calenda and Meijer 2009, 879-898). Ahora bien, existen putos de convergencia toda vez que las redes sociales ejercen prácticas en grupos políticos y otorga opciones de participación (dinámica offline). Es decir, la esfera digital disminuye sustancialmente los costos de comunicación, haciendo que las organizaciones políticas y movimientos sociales se expandan en términos de movilización y reclutamiento (Theocharis et al. 2015, 202-220). Boulianne (2015) señala que a partir de estudios empíricos- principalmente en países desarrollados y en vías de desarrollo- se puede percibir que las redes sociales tienen efectos significativos sobre la participación política offline en forma convencional o de protestas. De hecho para Everland (2001) y Pingree (2007), las plataformas como Facebook o Twitter pueden favorecer las dinámicas de protestas políticas a través del fomento de ideologías en común y de fortalecimientos organizacionales de carácter político.

Aquí, ciertamente, el factor cultural juega un factor relevante. Éste- como parte de la teoría de los movimientos sociales y a diferencia de la teoría de la acción conectiva- corresponde a una dimensión clave para la dinámica de acción colectiva (Polletta and Jasper 2001, 283-305). De hecho, hay autores que trabajan en el vínculo de los movimientos sociales y los medios digitales en las culturas de protestas y mediáticas (Juris, 2008). Johnston (2009, 25-26) señala, de forma simplificada, que al referirse a cultura en el lenguaje cotidiano se puede contextualizar en el hecho que diferentes grupos de personas hacen suposiciones sobre el mundo y se adhieren a diferentes creencias y valores, todo lo cual moldea diferentes formas de acción de los individuos. Esta noción de sentido común, según el autor, puede ser aplicado a los movimientos sociales en la medida en que los participantes a menudo

tienen valores, actitudes, creencias y orientaciones ideológicas que son distintas a la cultura más amplia.

Desde una perspectiva diferente- concerniente particularmente a la ciencia política- Treré et al. (2017, 404-422) hacen una interesante aproximación- en la relación existente entre redes sociales y factores políticos- en España, Italia y Grecia, durante las protestas del año 2011. Estos Autores indican que aquellos casos presentan diferencias en tales dimensiones. El caso español podría definirse como tecno-político, cuya fundamentación se basó en el entrelazamiento de la política y la economía política con las tecnologías de la comunicación. Es decir, tuvo una forma sofisticada que mezcló la tecnología, el conocimiento y la experiencia digital con fines políticos. El caso italiano fue tecno-fragmentado puesto que careció de cohesión producto de un fracaso entre las antiguas y nuevas lógicas de protestas. Es decir, los medios digitales fueron marcados por un profundo escepticismo con respecto a la efectividad de las plataformas sociales en la acción política. Con respecto a Grecia, aquel caso se pudo identificar como tecno-pragmático donde se concibieron diversas políticas y deseos de los creadores de medios en vez de políticas meramente tecnológicas o intrínsecas de las plataformas digitales.

Otros autores han tomado la discusión- del impacto de las redes sociales en las movilizaciones-desde una perspectiva tecno-positiva, tecno-negativa y ambivalente (Kidd and McIntosh 2016, 785-794). Desde una perspectiva techno-positiva, Castell (2012, 398-402) al considerar los casos de: Islandia "Kitchenware Revolution"; Túnez "Jasmine Revolution"; Egipto "Tharin Square Protest"; España "Los Indignados" y Estados Unidos "Occupy Wall Street" discurre que comparten características en común: la existencia de una red multimodal que abarca redes online y offline que están profundamente conectadas, sin la necesidad de líderes o jerarquías de poder u organizacionales, generando un mayor éxito a los propósitos de las movilizaciones. Por ejemplo, los periodistas o blogueros en las redes sociales no pertenecen a una institución u organización lo que genera una mayor confianza personal (Lotan et al. 2011, 1375–1405). Con respecto a los

aspectos tecno-negativos, éste se refiere principalmente a que las redes sociales impactan más bien las movilizaciones de una forma hiperbólica y superficial pero que hace poco por transformar fundamentalmente la forma en que los seres humanos se relacionan en el mundo real. Morozov (2011) señala que las nuevas herramientas tecnológicas suelen ser más efectivas en regímenes autoritarios, incluidos los que afirman ser democráticos, toda vez que socavan movimientos contra-políticos. Igualmente Christensen (2011, 155–157) indica que las redes sociales no garantiza el buen fluir de la información puesto que puede ser tanto favorable para los poderosos líderes políticos como para los manifestantes. Gladwell (2010) también señalan una versión techno-pesimista al indicar que las redes sociales disminuyen el nivel de motivación de participación ya que fomenta a la gente a "dar me gusta" pero no ha salir a las calles a manifestarse. Desde una perspectiva ambivalente, Gerbaudo (2012, 158-161) indica que las redes sociales en Egipto, durante la primavera árabe, jugaron un papel crucial pero no exhaustivo y que las redes sociales, durante el movimiento Occupy Wall Street, tuvieron una función más bien coreógrafa caracterizada por su falta de éxito. Igualmente Kamel (2014, 78-91) enfatiza que el levantamiento de Egipto fue más bien función de la gente, la pasión y no del uso tecnológico, alguna herramienta o aplicación tecnológica.

En suma, la discusión sobre el impacto de las redes sociales en los movimientos sociales en los casos latinoamericanos puede ser considerada desde diferentes perspectivas. Primero, conforme a la teoría de los movimientos sociales es importante distinguir los factores que desencadenaron las protestas para luego distinguir si hubo un impacto de las redes sociales y cuál fue la dinámica que aconteció en cada caso en particular. Esto permitiría dar a conocer las diferencias empíricas conforme a la discusión teórica planteada.

METODOLOGÍA

El tipo de estudio que se presenta es de tipo cuantitativo. Se realiza un análisis comparado entre Chile, Colombia y Ecuador puesto que en estos casos el origen de las manifestaciones se dieron por un mismo fenómeno: medidas de austeridad. Con el objetivo de distinguir el impacto de las redes sociales en las manifestaciones en Chile, Colombia y Ecuador, durante el año 2019, se considera la variable dependiente: Asistir a manifestaciones autorizadas. Esta variable se obtuvo a través de la siguiente pregunta realizada por la encuesta Latinobarómetro 2020 "Le voy a leer algunas acciones políticas que la gente puede realizar y quiero que me diga si ha realizado alguna de ellas, si las podría realizar o si nunca las haría: Asistir a manifestaciones autorizadas".

Entonces, conforme a un modelo de regresión logística binaria, la respuesta de la variable dependiente se operacionalizó de la siguiente forma:

1= He realizado o podría realizar
0= Nunca lo haría, no sabe o no responde.

El modelo logit se representa de la siguiente manera:

$$Y^{*}i = \alpha + \beta\Xi + e$$

Los resultados se interpretarán en términos de probabilidad por medio de Odds Ratio, es decir:

$$PR = \left(y = \frac{1}{x}\right) = \triangle(x\beta) = \frac{\exp(x\beta)}{1 + \exp \quad (x\beta)}$$

Cabe decir que, según el informe metodológico de la encuesta Latinobarómetro 2020, el muestreo realizado fue por cuotas, con un universo correspondiente a personas mayores de 18 años, un nivel de representación del 100%, 1200 casos para Chile, Colombia y Ecuador, un error muestral

de +/- 2,8% y un nivel de confianza del 95%.

Se decidió utilizar variables demográficas, políticas, socioeconómicas y relacionadas al uso de redes sociales como independientes para distinguir cuál de éstas juega un rol mayormente predominante a la hora de evaluar la asistencia a manifestaciones desde una perspectiva individual.[3] Como añadidura, a las variables discutidas en el estado del arte, se consideró la edad puesto que tal como señalan Sears and Funk (1999) y Jost et al. (2018) es plausible que los jóvenes sean más proactivos a utilizar las plataformas digitales con fines políticos.

RESULTADOS

La tabla de datos porcentuales correspondientes a Chile, Colombia y Ecuador indica, en primera instancia, marcadas diferencias. Pese al impacto de las medidas de austeridad- durante el 2019- aquellos entrevistados que señalaron, en la encuesta realizada el 2020, si han asistido a manifestaciones o lo harían es bastante mayor en el caso chileno que ecuatoriano. Aquello se contrasta con la deteriorada imagen país, satisfacción con la economía y confianza en el presidente en ecuador. Es decir, se pone en evidencia como, en el caso chileno, se demuestra una mayor participación y compromiso político- por este medio- que en otros países. Otro interesante resultado es que en el caso chileno se demuestra una visión más bien positiva de las redes sociales, como un instrumento de participación política, en términos comparados.

Cuadro 1: Datos porcentuales del año 2020

Variable	Chile	Colombia	Ecuador
Asiste a Manifestaciones	57,8	42,9	28,8
Edad_18_30	26,8	34,8	37,3
Edad_31_50	36,6	37,2	37,8

3 Para ver la operacionalización de las variables dirigirse al anexo.

Imagen País	13,7	19,4	6,6
Satisfacción con la Economía	11,8	13,6	7,2
Confianza en el Presidente	16,8	34,3	9,9
Escala de Izquierda - Derecha	42,9	63,9	56,7
Usa Facebook	68,6	69,3	74,5
Redes Sociales	27,3	16,7	19,3

Fuente: Elaboración propia a partir de los datos de la encuesta Latinobarómetro 2020.

El siguiente cuadro, de correlación bivariada, nos aproxima a posibles causalidades que nos proporcionará el modelo de regresión logística. Entre los resultados más interesantes es que en los tres países hay una correlación entre asistir a manifestaciones y los jóvenes entre 18 y 30 años. Especialmente en Chile hay una correlación entre tener una visión positiva de las redes sociales como medio de participación política y la asistencia o tendencia a asistir a manifestaciones. Otro factor interesante es la correlación existente entre los adherente a la izquierda política y quienes asisten o tendrían la intención de manifestarse, cuyo resultado se da en los tres casos. Por otro lado, la deteriorada confianza en el presidente se correlaciona con la asistencia a las manifestaciones sociales en Chile y Colombia.

Cuadro2: Correlación Bivariada de Pearson - Variable dependiente: Asistencia a Manifestaciones Autorizadas

Variable	Chile	Colombia	Ecuador
Edad_18_30	0.272**	0,193**	0,105**
Edad_31_50	0,0861**	-0,008	-0,04
Imagen País	0,094**	-0,021	0,54
Satisfacción con la Economía	0,062**	-0,024	-0,019
Confianza en el Presidente	-0,166**	-0,108**	0,029
Escala de Izquierda - Derecha	0,219**	0,157**	0,110**
Usa Facebook	0,240**	0,212**	0,051
Redes Sociales	0,251**	0,082**	0,082**

Fuente: Elaboración propia. ** la correlación es significativa al nivel 0,01/ Chile n=1200; Colombia n=1200; Ecuador n=1200.

Según el modelo del caso chileno, considerando los Odds Ratio, se puede observar que hay un 85% de posibilidad de que un individuo entre 18 y 30 años llegue a tener una afinidad hacia las manifestaciones como medio de participación política. También resulta interesante la existencia de una posibilidad del 74% de que un individuo indique pertenecer a la izquierda política y haya participado o tenga la intención de participar en manifestaciones. Por otro lado, existe un 74% de posibilidad de que, un individuo que señale a las redes sociales como un instrumento válido para la participación política, también sienta afinidad por las manifestaciones.

Cuadro 3: Modelo de Regresión Logística Binaria. Chile 2020.

Predictor	Coeficiente	Error Standard	z	Sig.	Exp (B)
Edad_18_30	1,751	1,120	9,01	0,000	5,763
Edad_31_50	0,865	0,385	5,34	0,000	2,376
Imagen País	0,525	0,372	2,38	0,017	1,691
Satisfacción con la Economía	0,539	0,406	2,28	0,023	1,715
Confianza en el Presidente	-0,774	0,086	-4,16	0,000	0,461
Escala de Izquierda - Derecha	1,068	0,408	7,61	0,000	2,910
Usa Facebook	0,479	0,250	3,10	0,002	1,614
Redes Sociales	1,024	0,458	6,23	0,000	2,786
Constante	-1,438	0,037	-9,24	0,000	0,237
Observaciones			1200		
R2 de Cox y Snell			0,233		
R2 de Negelkerke			0,314		

Fuente: Elaboración propia.

El caso colombiano, al igual que el caso chileno, también se caracteriza por constar con una alta posibilidad de que un joven entre 18 y 30 años tenga más afinidad con las manifestaciones (69%). No obstante, las otras variables independientes no demuestran una causalidad considerable en el modelo.

Cuadro 4: Modelo de Regresión Logística Binaria. Colombia 2020.

Predictor	Coeficiente	Error Standard	z	Sig.	Exp (B)
Edad_18_30	0,811	0,395	4,62	0,000	2,250
Edad_31_50	0,394	0,246	2,38	0,017	1,483
Imagen País	0,128	0,191	0,76	0,446	1,137
Satisfacción con la Economía	0,028	0,200	0,15	0,884	1,029
Confianza en el Presidente	-0,299	0,106	-2,10	0,036	0,742
Escala de Izquierda - Derecha	0,457	0,212	3,41	0,001	1,579
Usa Facebook	0,635	0,286	4,20	0,000	1,888
Redes Sociales	0,525	0,276	3,22	0,001	1,691
Constante	-1,499	0,040	-8,35	0,000	0,223
Observaciones			1200		
R2 de Cox y Snell			0,090		
R2 de Negelkerke			0,121		

Fuente: Elaboración propia

Con respecto al caso ecuatoriano, existe un 63% de probabilidad de que un joven entre 18 y 30 años haya asistido o tenga la intención de asistir en una manifestación, no obstante ninguna de las otras variables independientes demuestran una causalidad clara en el modelo.

Cuadro 5: Modelo de Regresión Logística Binaria. Ecuador 2020.

Predictor	Coeficiente	Error Standard	z	Sig.	Exp (B)
Edad_18_30	0,544	0,330	2,84	0,004	1,723
Edad_31_50	0,147	0,214	0,80	0,425	1,159
Imagen País	0,420	0,388	1,65	0,099	1,523
Satisfacción con la Economía	-0,283	0,199	-1,07	0,283	0,754
Confianza en el Presidente	0,127	0,247	0,58	0,559	1,136
Escala de Izquierda - Derecha	0,463	0,213	3,45	0,001	1,589
Usa Facebook	0,025	0,175	0,15	0,883	1,025

Redes Sociales	0,475	0,254	3,01	0,003	1,608
Constante	-1,593	0,037	-8,78	0,000	0,203
Observaciones			1200		
R2 de Cox y Snell			0,033		
R2 de Negelkerke			0,047		

Fuente: Elaboración propia.

CONCLUSIÓN

En un estudio comparado, entre el caso chileno, colombiano y ecuatoriano, es posible distinguir las diferencias con respecto al impacto de las redes sociales en las manifestaciones sociales, además como otras variables socioeconómicas y políticas llegan a impactar. Es modelo de regresión logística ha mostrado la importancia que tuvieron los jóvenes en las manifestaciones del 2019, sobretodo en el caso chileno. Ciertamente, aquello comprueba que son los más jóvenes los mayormente influenciados por las redes sociales, lo que afectaría su posición frente a las manifestaciones. También, se ha demostrado que el caso chileno, a diferencia de los otros - pese a que las causas de la manifestaciones fueron las mismas (medidas de austeridad)- hay fenómenos que se distinguen. Por un lado, la importancia política que tuvo las manifestaciones todas vez que fueron en su mayoría realizadas por un segmento de la población que indicó pertenecer al espectro político de izquierda. Por otro lado, también se demostró- únicamente en este caso- que las redes sociales son un instrumento válido para manifestarse. Evidentemente, las manifestaciones en Chile se dieron en un contexto de alta desaprobación del presidente en ejercicio (Sebastián Pinera) quien pertenece a la elite conservadora de derecha. Además, en el caso chileno, se han dado casos de influencer y youtuber con vasta influencia política e incluso de actores políticos que han basado su propaganda- principalmente- por medio de plataformas digitales.[4]

4 Por ejemplo, el caso del youtuber de extrema derecha "Johannes Kaiser", elegido diputado por el distrito número 10, o del candidato presidencial a las elecciones 2021 "Franco

Cabe destacar que, al evaluar distintas variables económicas y políticas proporcionadas por Latinobarómetro-durante la realización de los modelos-únicamente se pudo corroborar el impacto político en las movilizaciones sociales en el caso chileno. Aquello, pese a que- en los casos estudiados- el origen fue adjudicado a las medidas de austeridad. Además, conforme al estado de la discusión presentado, se puede dilucidar que únicamente en el caso chileno se le puede conceder una causalidad a las redes sociales sobre las manifestaciones sociales. Por otra parte, no se encontró una relación trascendente entre el uso, en especifico, de alguna red social (tal como Facebook) y la asistencia a manifestaciones. Todo aquello demuestra la complejidad del tema para los países estudiados. En otras palabras, el hecho que la satisfacción con la economía, la percepción de la imagen del país o la confianza en el presidente no hayan demostrado mayor causalidad da a entender que la problemática puede ser confusa. Probablemente, aquella se encuentra sumergida en la alta polarización social, política y económica, característica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En fin, los resultados de este texto dejan una puerta abierta a una discusión más extensa, con base en un estudio más profundo de la región.

Parisi" cuya propaganda fue mayormente online.

BIBLIOGRAFÍA

Bharati, P., Oh, O., Rao, R., Mary, S. and Vaast, E. (2015), "Social Media, Social Networks, and Social Movements: Emerging Research Challenge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Vol.1, p. 2.

Botero, F. (2021), Colombia´s National Strike, Global Initiative (https://globalinitiative.net/wp-content/uploads/2021/07/GITOC-Colombia-National-Strike-When-Social-Demonstrations-Fuels-Criminal-Interest.pdf).

Boulianne, S. (2015), "Social Media Use and Participation: A meta-analysis of current research,"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8, No. 5, pp. 524-538.

Thomas, C. and Young, R. (2015), *The Complexities of Global Protest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files/CP_257_Youngs-Carothers-Global_Protests_final.pdf).

Calenda, D. and Meijer, A.(2009), "Young People, the Interne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Findings of a Web Survey in Italy, Spain and The Netherland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2, No 6, pp. 879-898.

Castells, M. (2001), *The Internet Galax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stells, M. (2007), "Communication, Power and Counter-Power in the Network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 pp. 258-259.

Castells, M. (2012),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 social movements in the Internet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25, No. 3, pp. 398-402.

Coburn, E. (2016), "Marxism and Social Movements," *Socialist Studies/Études Socialistes*, Vol. 11, No. 1, pp.237.

Christensen, C. (2011), "Twitter Revolutions? Addressing Social Media and Dissent," *The Communication Review*, Vol. 14, pp. 155–157.

Delacoura, K. (2012), "The 2011 uprisings in the Arab Middle East: political change and geopolitical implications," *International Affairs*, Vol. 88, No. 1, p. 69.

Della Porta, D. and Andretta, M. (2013), "Protesting for justice and democracy: Italian Indignados?." *Contemporary Italian Politics*, Vol. 5, No. 1, pp. 23–37.

DeLuca, K., Lawson, S. and Sun, Y. (2012), "Occupy Wall Street on the Public Screens of Social Media: The Many Framings of the Birth of a Protest Movement,"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Vol. 5, No. 4, pp. 483-509.

Dieter, K. (2013), "Rational Choice Theory and Social Movements," in Snow, D.,

Porta, D., Klandermans, B. and McAdam, D. (eds),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No. 3*, London: Blackwell Publishing, pp. 1051-1058.

Ekman, J. and Amnå, E. (201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Towards a New Typology," *Human affairs*, Vol. 22, No. 3, pp. 283-300.

Erzsébet, R. (2012), "The Arab Spring Its Impact on the Region and on the Middle East Conference." *Academic Peace Orchestra Middle East Policy Brief, No. 9/10*.

Eveland, W. (2001), "The Cognitive Mediation Model of Learning from the News: Evidence from Nonelection, Off-year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Contexts," *Communication Research*, Vol. 28, No. 5, pp. 571-601.

Galis, V. and Neumayer, C. (2016), "Laying Claim to Social Media by Activists: A Cyber-Material Détournement," *Social Media + Society*, Vol. 2, No. 3, pp. 4-5.

Gerbaudo, P. (2012), *Tweets and the Streets: Social Media and Contemporary Activism*, New York: Pluto Press, pp.158-161

Garcés, M. (2020), *Estallido social y una nueva constitución para Chile, Santiago*, Chile: LOM Ediciones.

George, J. and Leidner, D. (2019), "From Clicktivism to Hacktivism: Understanding Digital Activism." *Information and Organization*, Vol. 29, No. 3, pp. 3-8.

Gladwell, M. (2010), "Small Change: 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 *The New Yorker*, Vol. 86, No. 30, pp. 42–49.

Herrera, S. (2020), "El Movimiento Indígena y la Insurrección de los Zánganos," in Parodi, C. and Sticotti, N. (eds), *Ecuador: La Insurrección de Octubre*, Buenos Aires: CLACSO, pp. 192–203.

Idahosa, O. and Tonwe, D. (2013), "Unfinished Revolution: The Arab Spring at the Crossroad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Studies*, Vol. 3, No. 4, pp. 111-120.

Jost, J., Barberá, P., Bonneau, R., Langer, M., Metzger, M., Nagler, J., Sterling, J. and Tucker J. (2018), "How Social Media Facilitates Political Protest: Information, Motivation, and Social Networks: Social Media and Political Protest," *Political Psychology*, Vol. 39, No. 11, pp. 85-118.

Johnston, H. (2009), *Culture, Social Movements, and Protest*, New York: Routledge.

Juris, J. (2008), *Networking Futures: The Movements Against Corporate Globalizat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Juris, J. (2014), "Embodying Protest: Culture and Performance within Social

Movements," in Baumgarten, B., Daphi, P. and Ullrich, P. (eds), *Conceptualizing Culture in Social Movement Research: Palgrave Studies in European Political Sociology*, London: Palgrave Macmillan.

Kamel, S. (2014), "Egypt's Ongoing Uprising and the Role of Social Media: Is there 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Vol. 20, No. 1, pp. 78–91.

Kidd, D. and McIntosh, K. (2016), "Social Media and Social Movements," *Sociology Compass*, Vol. 10, No. 9, pp. 785-794.

Laer, J. (2010), "Activists Online and Offline: The Internet as an Information Channel for Protest Demonstrations," *Mobilization*, Vol. 15, No. 3, pp. 406-417.

Le Quang, M., Chavez, N. y Vizuete, D. (2020), "El Octubre Plebeyo : Cronología de Doce Días de Movilización," in Gallegos, F. (ed), *Octubre y el Derecho a la Resistencia. Revuelta Popular y Neoliberalismo Autoritario en Ecuador*, Buenos Aires: CLACSO, pp. 53-84.

Lotan, G., Graeff, E., Ananny, M., Gaffney, D., Pearce, I. and Boyd, D. (2011), "The Revolutions Were Tweeted: Information Flows During the 2011 Tunisian and Egyptian Revol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Vol. 5, No.5, pp. 1375–1405.

McAdam, D. and Scott, R. (2005), "Organizations and Movements," in Davis, G., McAdam, D., Scott, R., and Zald, M. (eds),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40.

Morozov, E. (2011), *The Net Delusion: The Dark Side of Internet Freedom*, New York: Public Affairs.

Camila, P. y Sticotti, N. (2020), *Ecuador. La insurrección de Octubre*, Buenos Aires: CLACSO.

Polletta, F. and Jasper, J. (2001), "Collective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7, pp. 283-305.

Sasse, L. (2021), *Chile Despertó – The Reasons for the Mass Protests in Chile 2019/2020: Working Paper No. 166*, Berlin: Berlin School of Economics and Law.

Sears, D. and Funk, C. (1999), "Evidence of the long-term persistence of adults' political predisposi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1, pp. 1–28.

Andres, S. and Rivera, S. (2021), "Social Media Use and Pathways to Protest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2019 Chilean Social Outburst," *Social Media + Society*, Vol. 7, No. 4, pp. 1–13.

Theocharis, Y., Lowe, W., Van Deth, Y. and García-Albacete, G. (2015), "Using

Twitter to Mobilize Protest Action: Online Mobilization Patterns and Action Repertoires in the Occupy Wall Street, Indignados, and Aganaktismenoi Movement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8, No. 2, pp. 202-220.

Treré, E., Jeppesen, S. and Mattoni, A. (2017), "Comparing Digital Protest Media Imaginaries: Anti-austerity Movements in Spain, Italy & Greece," *Triple C*, Vol. 15, No. 2, pp. 404-422.

US Department of State (2021), *Colombia: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20*,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Democracy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1/03/COLOMBIA-2020-HUMAN-RIGHTS-REPORT.pdf).

Wang, Z. and Caskey, K. (2016), "#Occupywallstreet: An Analysis of Twitter Usage during a Protest Movement," *Social Networking*, Vol. 5, No. 4, pp. 101-117.

Wagner, B. (2012), *After the Arab Spring: New Paths for Human Rights and the Internet in European Foreign Policy*,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of the Union, European Parlianment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note/join/2012/457102/EXPO-DROI_NT%282012%29457102_EN.pdf).

Yagci, A. (2017), "The Great Recession, Inequality and Occupy Protests around the World,"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52, No. 4, pp. 640-670.

Zhuravskaya, E., Petrova, M. and Enikolopov, R. (2020), "Political Effects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Annual Review of Economics*, Vol. 12, No. 1, pp. 415-438.

WorldBank https://www.worldbank.org/

Informe Latinobarómetro https://www.latinobarometro.org/

ANEXO

Operacionalización de las variables

Variable	Operacionalización	Rango	Fuente
Acción política: Asistir a manifestaciones autorizadas	1- La ha realizado 2- La podría realizar 3- Nunca la haría -1-- No sabe -2-- No contesta -3-- No aplicable -4-- No preguntada -5-- No sabe / No contesta	1-2 → 1 otro→0	Latinobarómetro 2020
Edad (18-30)	Cuál es su edad? (0) No responde.	18-30 → 1 otro → 0	Latinobarómetro 2020
Edad (31-50 y más años)	Cuál es su edad? (0) No responde.	31 – 50 → 1 otro→ 0	Latinobarómetro 2020
Imagen del progreso del país	1- Está progresando 2- Está estancado 3- Está en retroceso -1-- No sabe -2-- No contesta -3-- No aplicable -4-- No preguntada -5-- No sabe / No contesta	1→1 otro→0	Latinobarómetro 2020
Satisfacción con el funcionamiento de la economía en Chile	1- Muy satisfecho 2- Más bien satisfecho 3- No muy satisfecho 4- Nada satisfecho -1-- No sabe -2-- No contesta -3-- No aplicable -4-- No preguntada -5-- No sabe / No contesta	1-2→1 otro→0	Latinobarómetro 2020

Variable	Operacionalización	Rango	Fuente
Confianza en: El presidente	1- Mucha 2- Algo 3- Poca 4- Ninguna -1-- No sabe -2-- No contesta -3-- No aplicable -4-- No preguntada -5-- No sabe / No contesta	1-2→1 otro→0	Latinobarómetro 2020
Escala Izquierda-Derecha	0- IZQUIERDA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DERECHA 97- Ninguno -1-- No sabe -2-- No contesta -3-- No aplicable -4-- No preguntada -5-- No sabe / No contesta	0-5→1 otro→0	Latinobarómetro 2020
Servicios de Redes Sociales utilizados (múltiple respuesta)	Uso redes sociales: Facebook 1- Menciona 0- No menciona -1-- No sabe -2-- No contesta -3-- No aplicable -4-- No preguntada	1→1 otro→0	Latinobarómetro 2020
Las Redes sociales en la política	1- Las redes sociales permiten que uno participe en política 2- Las redes sociales crean la ilusión que uno está participando en política 3- Las redes sociales no sirven para participar en política -1-- No sabe -2-- No contesta -3-- No aplicable -4-- No preguntada -5-- No sabe / No contesta	1→1 otro→0	Latinobarómetro 2020

Article received: 2022.06.21
Revised: 2022.08.11
Accepted: 2022.08.16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2) Vol. 35 No. 2: 83-111
https://doi.org/10.22945/ajlas.2022.35.2.83

Colombia and India: Analysis of the Trade Relationship (2000-2019)*

Karol Stefany Rojas Tole
Universidad Cooperativa de Colombia

Alberto José Hurtado Briceño**
Universidad Cooperativa de Colombia

ABSTRACT

Colombia and India: Analysis of the Trade Relationship (2000-2019): Colombia has shown a growing interest in links with Asian countries. Proof of this is the signing, in 2009, of the Bilateral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with India —it entered into force on July 3, 2012—;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with South Korea in 2013, and in force since July 15, 2016;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to achieve a trade agreement with Japan; and the start of trade missions between companies from Indonesia and Colombia.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Colombia during 2000-2019. To this purpose,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s identified. Then, it analyzes their trade link from the analysis of data on imports, exports, and trade balance, and by estimating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mport intensity, relative trade balance and Balassa indices. In addition, the trade opportunities derived from the results obtained are highlighted. Finally, conclusions are presented.

Keywords: Asia, Latin America, Colombia, India, trade, investment.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Universidad Cooperativa de Colombia (INV3066).

** Karol Stefany Rojas Tole is an International Trade Professional from Universidad Cooperativa de Colombia (karol.rojast@campusucc.edu.co); Alberto José Hurtado Briceño is a research professor at Centro de Pensamiento Global (CEPEG) of Universidad Cooperativa de Colombia. Economist, Master in Economics, and Ph.D. in Human Sciencies from Universidad de Los Andes, Venezuela (alberto.hurtadob@campusucc.edu.co).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is witnessing multiple changes that increase the attention on certain sectors of the economy: servic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lectronic commerce, digital payments, among others. In this regard,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ALADI in Spanish), the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 CAF and 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affirm that, over the last 20 years, Asia has become a dynamic element of the world economy due to the impetus given to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se sectors. Proof of this is the growing importance of its countries as trading partners, the capacity they have achieved to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financing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Álvarez, Bárcena and García 2014), the world leadership they have achieved in the field of new technologies, as well as in their incorporation into all activities of life in society.

In this sense, Colombia has shown a growing interest in links with Asian countries. Proof of this is the signing, in 2009, of the Bilateral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with India —it entered into force on July 3, 2012—;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with South Korea in 2013, and in force since July 15, 2016;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to achieve a trade agreement with Japan; and the start of trade missions between companies from Indonesia and Colombia. Similarly, it is evident, according to Miranda, Peláez and Velandia (2016), Colombia's desire to enhance trade relations with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Singapore through agreemen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This position is in line with the South American country's objectives of improving its financial results, developing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and correcting its financial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seeking, as far as possible, to move towards external equilibrium with a level trade

balance (DANE 2020), and balancing the inflow-outflow of capital (Hurtado y Zerpa 2019). Goals that are difficult to achieve due, among other things, to Colombia's lag in its international trade indexes with respect to other Latin American and Pacific Alliance countries (Miranda et al. 2016), local problems that prevent maintaining a stable country risk outlook, and the drawbacks to achieve productive diversification.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Colombian trade is characterized by: 1) exports concentrated in primary sector products —minerals, oil and its derivatives, coal, coke and agricultural products—, 2) imports concentrated in industrial sector products —basic, light and automotive industry—, and 3) trade relations concentrated in a few market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Mexico, Panama, Brazil, Ecuador and the European Union as the main partners (Ocampo 2014; DNP 2020). This implies that the South American country shows a relatively limited trade diversification, concentrated in low value-added products and with little integr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 similar situation occurs in the trade link between Colombia and the countries of the Asian continent. Because of the predominance of: 1) import of heavy machinery, equipment, vehicles, electrical appliances, iron manufactures, reactors, maritime and river navigation, and other industrial products; and the export of minerals, edible products, meats, crustaceans, oil products and starches (with South Korea and Japan). 2) import of electrical appliances, mechanical appliances, castings and garments; and export of fuels, minerals, fruits, foodstuffs and rubber materials (with China). And 3) import of fuels and minerals, pharmaceuticals, electrical applianc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ish and crustaceans, garments and synthetic fibers, light industrial products; and exports of minerals, energy products, foundry products, iron and steel, inorganic and organic products, as well as food, minerals and fuel products (with Indonesia) (Ocampo et al. 2013; Torres 2013; Ocampo 2014; Zerpa and Andrade 2020; Herrera et al. 2020).

Faced with this situ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rade relations with Asian countries —other than South Korea,

China, Indonesia and Japa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 case of India. The reasons for selecting this South Asian country are multiple: 1) consolidated democracy in a social environment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ideological positions and diverse cultures; 2) continuously growing economy, the value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GDP) has grown at rates above 5 per cent per year in the last ten years; 3) example of price stability, success achieved through an anti-inflationary policy that allowed going from an inflation rate of 12.4 per cent in 2009 to 3.4 per cent in 2019; 4) low unemployment, with rates below 10 per cent in the last decade; 5) high population volume, more than 1.3 billion inhabitants who require a large amount of goods and services to cover their basic needs; 6) developed pharmaceutical and automotive industries; and 7) growing technological power, with successful experiences in e-commerce, financial services, communication media, payment systems, among others. Furthermore,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ndia stands out for its continuous negative balance of trade with the rest of the world, i.e., a country with a large need for imported products.

Similarly, the growing interest of India and Colombia to strengthen their trade relations based on the variety of products that can be exchanged and the strategic geographical position they have (Miranda et al. 2016) i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regard, in the period 2000-2014, Colombia became the third largest importer of Indian products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he 5th largest exporter of goods from Latin America to India (ECLAC 2012; 2016; Giordano et al. 2019). According to figures from the Colombia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2020), during 2018, the main destination of Indian exports was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16 per cent of total exported goods, followed by United Arab Emirates (8.8 per cent) and China (5.1 per cent), while Colombia only accounted for 0.335 per cent of Indian goods sold abroad. On the import side, during the same year, China (14.5 per cent), the United States (6.3 per cent) and Saudi Arabia (5.6 per cent) were the economies that sold the

most products to India, and Colombian products represented 0.19 per cent of Indian.

On the other hand, Colombia is part of Latin America, a subcontinent long forgotten by Indian authorities and companies, but which is currently perceived with attention and interest from India (Tharoor 2012). It is also a country in the South American Andean region, whose exports to India are well below potential (Lederman, Olarreaga and Soloaga 2008; Lederman, Olarreaga, and Rubiano 2008).

This data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growth in the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Colombia. Evidently, due to its population size and the growth rate of its economy, India is a potential market for Colombian products, if progress is made in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ness and in the improvement of macroeconomic indicators of the South American country.

Taking the above into account,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Colombia during the period 2000-2019. To this end, the following section identifies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n, it analyzes their trade link from the analysis of data on imports, exports, and trade balance, and by estimating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mport intensity, relative trade balance and Balassa indices. In addition, the trade opportunities derived from the results obtained are highlighted. Finally, conclusions are presented.

ORIGIN AND EVOLUTION OF THE COLOMBIA-INDIA RELATIONSHIP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began in 1959, exactly on January 19, but it was only on July 14, 1970, when a trade agreement was officially signed, which was complemented in 1974 with a cultural agreement. Restrictions on the arrival of foreign products, which both countries had at the time, prevented the trade agreement from developing

properly. In 1972, diplomatic relations were expanded through the Colombian government's decision to establish an embassy in New Delhi, India, which led to the opening of an Indian embassy in Bogota, Colombia in 1973. The Colombian embassy established in India currently serves the function of connecting the country with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Nepal, Indonesia, Sri Lanka, and Bangladesh (Embassy of India 2020).

In this order, Colombia was the eighth country in Latin America where India opened its embassy; after Brazil, Argentina, Chile, Mexico, Cuba, Peru, and Venezuela, respectively. The first Indian ambassador in the South American country was Madanjeet Singh, while the first Colombian ambassador in Indian territory was Leopoldo Borda (Barbosa, Posada and Serrano 2011; Embassy of India 2020); who highlighted the great ignorance that exists in the world about that Asian country, which has many superstitions, contradictions, and customs, dating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Heine and Seshasayee 2016; Seshasayee 2020).

Another relevant aspect of the beginning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the position they took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ld War. On the one hand, India did not align itself with any of the main countries in conflic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on the other hand, Colombia aligned itself with the United States, even anchoring its trade policy to the strategies used by the North American country. At the end of the 1980s, with the world consolidating a new stage of globalization, Colombia-India relations began to strengthen through a greater flow of goods, cultural exchanges, and investment decisions. Starting in 1995, the two countries implemented a Bilateral Political Consultation mechanism that has managed to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the two economies, a space that has allowed, so far, the realization of eight political consultations (Rosales and Kuwayama 2007; Barbosa, Posada and Serrano 2011; Embassy of India 2020; Seshasayee 2020; Zerpa, Gangopadhyay and Hurtado 2021).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ok on a new dimension. In 2001, President Andres Pastrana made the first State visit by a Colombian president to India. Since then, there have been multiple official visits by officials from the two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bilateral ties through greater agreements on visas,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investment.

Thus, in 2001, agreements were signed for visa exemption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for the facilitation of business visas, and for cooperation between diplomatic academies. Likewise, in 2003, a politic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India and the Andean Community countries, and effor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were launched (Bhojwani 2012). Later, in 2005,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Colombia and India was established; in 2007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urban development; in 2009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defense, as well as cooperation in the bamboo sector; in 2010 the agreement of cooperation in Health; in 2011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geology and mineral reforms; in 2014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sports; and for the period 2012-2016, the cultural exchange program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implemented (Embassy of India 2020).

And in investment,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Indian companies have made large investments in Colombia. In that period, more than 1 billion dollars have been invested in the South American country, a figure surpassed only by the Indian investment made in Brazil and Venezuela, but with similar proportions to that received by Mexico. According to Seshasayee (2020), most of this investment has been in the mining,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The oil initiative led by ONGC Videsh Limited (OVL) stands out, which invested more than 650 million dollars with the purpose of producing more than 100,000 barrels of oil per day, with 7 projects for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hydrocarbons in Colombian territory (Bhojwani 2012; 2014).

In addition to this investment, another 45 Indian companies have invested in various sectors of the Colombian economy, such as automobiles and motorcycles, agrochemicals, information technology and pharmaceuticals. Indian pharmaceutical companies sell generic drugs under their own brand names, taking advantage of alliances with local companies that acquire distribution rights (Bhojwani 2015). In other words, resources with the capacity to generate high levels of employment, income and added value (Heine and Seshasayee 2016; Seshasayee 2020), as part of a business strategy that seeks to take advantage of the best conditions to increase production and diversify markets, both for final products and raw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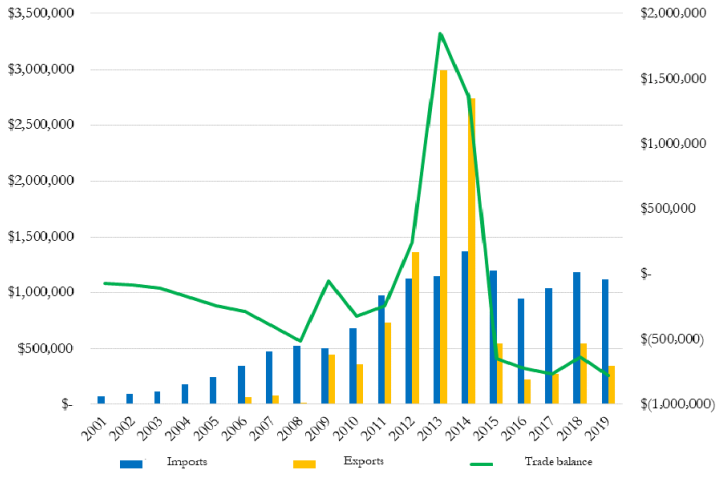
Thus, the Colombia-India bilateral relationship progressed from a hesitant beginning,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conditioned by the local problems of each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geopolitical context, to a period of important results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matters. The latter resulted from the greater recognition of each country's role in the world and the opportunities it offers —India: diversification of exports to Asia, Colombia: entry into Latin American markets—; as well as the greater arrival of Indian capital to Colombia and the implementation, in each country, of incipient strategies to disseminate the culture of the two regions.

BILATERAL TRADE BETWEEN COLOMBIA AND INDIA (2000-2019)

In relation to trad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during the period 2000-2019 (see Figure 1),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fluctuations between imports from India to Colombia and exports from Colombia to India. For the period between 2001 and 2019, the average annual export from Colombia to the Asian country was USD 567 million, reaching a total for that period of USD 10,773 million.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exports from India to Colombia was over USD 703 million, with total exports for the reference period of USD 10,350 million. The balance of this trade flow, that is, the

behavior of the trade balance —exports minus import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stands out for reaching, on average for the period 2001-2019, a deficit of USD 136 million, and accumulating a total negative balance of USD 2,577 mill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 trade flow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generated greater benefits to exporters of the Asian country, considering the behavior of the trade balance.

A detailed analysis of these results shows that Colombia began exporting significant quantities of goods to India only in 2009, when the value of exports exceeded USD 400 million, an amount that in previous years had not exceeded USD 100 million. Despite this increase in the level of exports, imports from India continued to be higher during that year, so the bilateral trade balance remained negative.



Not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Trade Map (2000-2019).

Figure 1. Colombia-India Trade Balance (2001-2019), in thousands of dollars

The only period in which the bilateral trade balance favored Colombia during this century was between 2012 and 2014. In that period there was a considerable increase in Colombian exports, even maintaining this trend

for two consecutive years, resulting in a positive trade balance of more than USD 1 billion —USD 1,849 million for 2013 and USD 1,369 million in 2014—. After this, since 2015 and up to the present, the level of exports from Colombia to India dropped sharply by around USD 400 million, while the level of imports of Indian products has remained above USD 1 billion.

According to Miranda et al. (2016),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is drop in Colombian exports to India since 2015 was the collapse of oil prices, the main Colombian export product to the Asian country. This situation not only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had a generalized influence on Colombian trade, which in that year evidenced a contraction of about 35 per cent. Given the above, it is evident that Colombia needs to encourage a deeper trade relationship with India, given the potential of the Colombian productive sector, the opportunity offered by the Indian raw materials and food market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versing the continuous trade deficit with the South Asian nation.

Table 1. Main products in the Colombia-India trade relationship (2019)

Exports	Thousands of USD	Participation (%)
Coal	149,835	43.3
Basic Chemicals	71,510	20.7
Crude Oil	52,782	15.2
Other minerals	28,018	8.1
Metallurgy	15,197	4.4
Others	28,840	8.3
Imports	Thousands of USD	Participation (%)
Basic Chemicals	314,126	26.9
Automotive	293,600	25.1
Machinery and equipment	153,296	13.1
Textiles	147,934	12.7
Metallurgy	134,153	11.5
Others	124,310	10.6

Not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Mincit (2020).

In relation to the main product groups traded between Colombia and India, Table 1 lists the main products exported to India and imported from this country by Colombia during 2019. It is evident the importance of mining extraction, especially coal and other mining products that agglutinate more than 50 per cent of Colombian exports, as well as the decrease 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oil. Imported goods include basic chemical products, automotive products -vehicles and spare parts-, machinery and equipment, as well as textiles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for 2019, the industrial sector manages to position itself as the most influential with a share in exports of 29.2 per cent, far surpassing the agricultural sector that only represented 0.1 per cent of exports to India (Mincit 2020). Overall, exports of mining-energy products accounted for 70.6 per cent of total exports in that year, leaving the remaining 29.4 per cent to exports of non-mining-energy products.

These figures are relevant to contextualize Colombia's trade relationship with Asian economies. The South American country's trade balance with Asian countries is negative, reaching an average balance of USD 8 billion between 2012 and 2014. Within this framework, Colombian exports to the Asian continent are distributed in descending order as follows: China (57 per cent), India (27 per cent), South Korea (5.23 per cent) and Japan (4 per cent) (Procolombia 2015; Mincit 2019; INCP 2020). This increases the need for Colombia to multiply efforts to increase its productive capacity,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its products and diversify its trade relations with Asian destinations.

In the case of India, as presented before, its exports to Colombia have averaged approximately USD 1 billion per year since 2011. A result that makes the South American country the third largest destination for Indian exports in the context of Latin America, after Brazil and Mexico. Within the portfolio of products exported by India to Colombia, motorcycles, textiles, pharmaceuticals, agrochemicals, and machinery stand out, goods that find space within the large size of the local Colombian market and in Colombia's

strategic location to meet the needs of Latin American consumers (Seshasayee 2020; Misra 2021). Thus, it is evident that Colombia's trade relationship with Asian countries is not the best, but it has all the potential to improve to the extent that the export of more products is encouraged to improve the existing figures.

Empirical methodology

To achieve the stated objective, the methodology used by Miranda et al. (2016) in their research is used, that is, by using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and the Import Intensity Index (III), to determine the Colombian products with comparativ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First, the RCA is estimated considering that this index allows a comparison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a certain product in the country's total export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roduct's world exports in the world's total exports. The value obtained can be in a range between 0 and infinity, clarifying that values between 0 and 1 represent a comparative disadvantage of the country with respect to the product, while results greater than 1 show a comparative advantag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formulation is used.

$$RCA = \frac{\left(\frac{X_{cj}}{X_c}\right)}{\left(\frac{X_{wj}}{X_w}\right)} \qquad (1)$$

Where: Xcj represents the value of the country's exports of product j. Xc is the value of the country's total exports. Xwj corresponds to the value of world exports of product j. And Xw is the value of total world exports.

For the result obtained to range between -1 and 1, for ease of interpretation, the following calculation should be performed to normalize the result:

$$NRCA = \frac{(RCA-1)}{(RCA+1)} \qquad (1.1)$$

In this way, the Normalized RCA (NRCA) index is obtained, which implies that when the result is between 0 and 1, the countr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good under analysis; and when the result is between -1 and 0, a comparative disadvantage is evident.

On the other hand, the Import Intensity Index (III) is an adaptation of the RCA and focuses specifically on the import capacity of the country analyzed. The III compares the share of a product in the country's total imports with the share of world imports of the product in total world imports. If the value of the indicator is greater than 1, the country is said to be an intensive buyer of the product under study, but if it is less than 1, it is recognized that the country is not an intensive buyer of the product of interest. Its mathematical representation is detailed below.

$$III = \frac{\left(\frac{M_{pj}}{M_p}\right)}{\left(\frac{M_{wj}}{M_w}\right)} \qquad (2)$$

Where: Mpj represents the value of imports of product j into the country. Mp is the value of the country's total imports. Mwj is the value of world imports of product j. And Mw is the value of total world imports.

As with the RCA, the III index is normalized to obtain results between -1 and 1. Thus, if the III obtains a value between 0 and 1, it indicates that the country is a high importer of the specific good analyzed. In the opposite case, if the result of the III is less than 0, it is inferred that the country is a low importer of that product.

Given the above,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termine those products in which Colombia and India show a NRCA and III index with convenient values, as appropriate. In other words, the aim is to relate the disadvantages and advantages of each of the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products or existing tariff items. To calculate the indexes, the Trade Map database was used, from which the values corresponding to exports and imports of each type of product, country and in general were obtained, considering the period of interest: 2000-2019.

Considering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he indexes were calculated from 2001 to 2019.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since indices were obtained for each year, the averages of these were generated before normalizing their result, to obtain an overall picture of the country's export and import performance for a given product group. The produc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tariff heading, using groups of up to 4 digits. Similarly, to determine the tariff headings with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the following condition was defined: RCA of Colombia greater than 0, RCA of India less than 0 and III of India greater than 0.

In a complementary manner and taking as a basis the tariff items that meet the conditions presented above, the Relative Trade Balance (RTB) index and the Balassa Index (BI) were estimated, with the objective of knowing the current behavior of bilateral trade between Colombia and India. First, the RTB was determined, an index that is constructed on the trade balance —exports minus imports—, as reference information in the numerator, in relation to the total trade exchanges that the country carries out with the rest of the world (Durán and Álvarez, 2008). Its formula is as follows:

$$RTB = \left| \frac{(X_{ijt} - M_{ijt})}{(X_{iwt} + M_{iwt})} \right| \qquad (3)$$

Where: Xijt are the exports of product k from country i to market j. Mijt are the imports of product k of country i from market j. Xiwt represent the exports of product k from country i to the world. And Miwt are the imports of product k of country i from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BI measures the degree of importance of a product within exports from one market to another market, versus the importance of exports of the same product in exports of the same product to the world

(Durán and Álvarez, 2008). Its formula is as follows:

$$BI = \frac{\left(\frac{X_{ij}}{TX_{ij}}\right)}{\left(\frac{X_{iw}}{TX_{iw}}\right)} \qquad (4)$$

Where: Xij are the exports of product k from country i to market j. TXij represent the total exports of country i to market j. Xiw are the exports of product k from country i to the world. And TXiw are the total exports of country i to the world.

The values obtained were handled in the same way as the previously calculated indices, i.e., they were normalized so that their result ranges between -1 and 1. In the case of the RTB, a positive value represents an advantage by reflecting the existence of a competitive sector with potential, while a negative value indicates a net importer sector that lacks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third markets. The IB is analyzed differently, since a value between 0.33 and 1 reflects a comparative advantage for the country analyzed; a value between -0.33 and -1 represents a comparative disadvantage for the country; and a value between -0.33 and 0.33 shows a tendency towards intra-product trade, in other words, exchanges are carried out between the same product groups (Durán and Álvarez, 2008).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se indices is to confirm the commercial viability of the products -tariff items- previously selected by RCA and III, for which it was necessary to show values greater than 0.33 in the case of BI and positive values for RTB. In this way, it was determined whether those pre-selected products already have trade between the countries of interest or whether, on the contrary, a market opening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specific product; in this way, the trade intensity between Colombia and India was estimated.

Results: Trade opportunities between Colombia and India

Given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methodology proposed above, the trade opportunities between India and Colombia were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different tariff items —up to 4 digits— included in the Trade Map database. A total of 1,259 4-digit tariff items belonging to 97 different product groups were identified, which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trade action carried out, whether export or import, and the country of origin or destination. The international trade indexes calculated reflect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each country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products traded, i.e., they make it possible to determine their export or import vocation.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identify situations of commercial complementarity between the countries analyzed, to establish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commercial exchange.

That said, the tariff headings of the groups of products that present a positiv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for Colombia and a negative one for India, as well as a positive import intensity (III) for the South Asian country under study, are presented below (see Table 2). These products constitute the pre-selection group for the identification of trade opportun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pecifically for the export of products from Colombia to India.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dexes presented are already normalized and averaged to facilitate their analysis in the period of interest (2000-2019).

Table 2. Products with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RCA - III)

Code	Description	RCA Colombia	RCA India	III India
2709	Crude oil or bituminous mineral oils.	0.65	-1.00	0.57
7108	Gold, including platinum-plated or unwrought gold, semi-manufactured or powdered gold.	0.57	-0.69	0.83
2701	Pullets; briquettes, a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obtained from hard coal.	0.92	-0.78	0.66

Code	Description	RCA Colombia	RCA India	III India
1511	Palm oil and its fractions, including refined and not chemically modified.	0.57	-0.95	0.81
7404	Copper waste and scrap (excl. ingots and similar forms).	0.65	-0.80	0.24
3105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with two or three of the fertiliz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mong others.	0.14	-0.80	0.67
3904	Polymers of vinyl chloride or other halogenated olefins, in primary forms.	0.75	-0.60	0.42
3206	Inorganic or mineral coloring matter; preparations based on coloring matter.	0.09	-0.27	0.20
7602	Aluminum waste and scrap (excluding ferrous scrap from ferrous metal manufacturing)	0.28	-0.93	0.57
2704	Coke and semi-coke of coal, of lignite or of peat, whether or not agglomerated; retort coal.	0.90	-0.39	0.72
3912	Cellulose and its chemical derivatives, in primary forms.	0.23	-0.24	0.24
1513	Coconut "copra", palm kernel or babassu oils and their fractions, including refined.	0.60	-0.53	0.24
3809	Finishing and finishing products, dyeing accelerators or dye fixatives.	0.21	-0.30	0.01
4104	Tanned or crust hides and skins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wool or hair on.	0.62	-0.11	0.27
8311	Wires, rods, tubes, pipes, plates, electrodes and similar articles, of base metal or carbide.	0.11	-0.18	0.07
5902	Tire cord fabrics made of high tenacity yarns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0.52	-0.05	0.63
2801	Fluorine, chlorine, bromine and iodine.	0.09	-0.23	0.56
2522	Quicklime, slaked lime and hydraulic lime (excluding calcium oxide and calcium hydroxide).	0.30	-0.71	0.21
1520	Crude glycerol;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0.54	-0.78	0.09
4103	Raw hides and skins,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preserved.	0.82	-0.35	0.00

Not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Trade Map (2000-2019).

Of the total number of products analyzed, only 20 have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while, in the opposite case, a total of 140 tariff items with export potential from India to Colombia were identified. This reflects the competitiveness of Indian products compared to the lack of competitiveness of Colombian products, as well as an import propensity on the part of Colombia towards products manufactured in India. This first result highlights the export potential of the Colombian economy in: a) oil derivatives: crude oils, vinyl chloride polymers,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coal, cokes and semi-cokes; b) mining: gold, copper, aluminum, lime, mineral dyestuffs, and base or carbide metals; c) agro-industry: palm oil and its fractions, and coconut, palm kernel or babassu oils; and d) manufacturing: finishing and finishing products, as well as hides and skins, tanned or raw. In other words, productive sectors that should be promoted to obtain greater benefits from trade with India.

On the other hand, and to corroborate the relevance of the pre-selected products with export opportunities from Colombia to India, the trade balance ratio between the countries (RTB) was also calculated for each product, considering Colombia's exports to India and the imports made by Colombia from India; and the Balassa Index (BI) was determined, to establish the importance of each merchandise in relation to Colombia's exports to India. The results obtained are presented below, clarifying that the cells where there is a dash (-) are since the index for the Colombia-India relationship is not very representative, or null, of the exchange of that item (see Table 3).

Table 3. Products with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RTB - BI)

Code	Description	RTB	BI
2709	Crude oil or bituminous mineral oils.	-0.92	0.28
7108	Gold, including gold in the rough, semi-manufactured or powdered state.	-0.96	0.17
2701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obtained from coal.	-0.99	-0.05
1511	Palm oil and its fractions, including refined oils not chemically modified.	-	-

Code	Description	RTB	BI
7404	Copper waste and scrap (excl. ingots and similar forms).	-0.99	0.63
3105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with two or three of the fertiliz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mong others.	-1.00	-0.97
3904	Polymers of vinyl chloride or other halogenated olefins, in primary forms.	-0.89	0.77
3206	Inorganic or mineral dyestuffs; preparations based on dyestuffs.	-0.99	0.25
7602	Aluminum waste and scrap (excluding slag from the manufacture of ferrous metals).	-0.95	0.79
2704	Coke and semi-coke of coal, lignite or peat, whether or not agglomerated; retort carbon.	-0.76	0.83
3912	Cellulose and its chemical derivatives, in primary forms.	-0.99	0.83
1513	Coconut, palm kernel or babassu kernel oils and their fractions, including refined.	-0.99	-
3809	Finishing and finishing products, dyeing accelerators or dye fixatives.	-0.99	0.63
4104	Hides and skins, tanned or crust,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1.00	0.59
8311	Wire, rods, tubes, pipes, plates, electrodes, and similar articles, of base metal or carbide.	-0.94	-0.73
5902	Tire cord fabric of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0.99	0.30
2801	Fluorine, chlorine, bromine, and iodine.	-0.98	-
2522	Quicklime, slaked lime, and hydraulic lime (excluding calcium oxide and calcium hydroxide).	-	-
1520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0.91	0.55
4103	Hides and skins, raw, 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preserved.	-	-

Not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Trade Map (2000-2019).

With the results obtained, and to definitively establish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export opportunities from Colombia to India, the values taken by both the RTB, and the BI are analyzed. In the case of the RTB, the results are not very, if at all, conclusive, since only negative or indeterminate values are obtained, reflecting the low proportion by product in terms of

exports and imports between Colombia and India, compared to the country's total exports and imports. That said, the RTB is not considered to definitively determine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trade exchang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under study.

On the other hand, the BI allows determining the degree of importance of a product in export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compared to exports of the same product from the country of origin (Colombia) to the world. To definitively establish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only those tariff items were selected whose BI was greater than 0.33, which reflects a favorable comparative advantage with respect to the country with which the trade link is to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results previously obtained, the final products with the greatest export potential and opportunity from Colombia to India are consolidated below, among which only eight product categories stand out, corresponding to petroleum derivatives, mining, and manufacturing —hides and skins, tanned leather— (see Table 4).

Table 4. Products with the greatest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Code	Description	RTB	BI
7404	Copper waste and scrap (excl. ingots and similar forms)	-0.99	0.63
3904	Polymers of vinyl chloride or other halogenated olefins, in primary forms.	-0.89	0.77
7602	Aluminum waste and scrap (excluding slags from ferrous metal manufacturing).	-0.95	0.79
2704	Coke and semi-coke of coal, lignite or peat, whether or not agglomerated; retort carbon.	-0.76	0.83
3912	Cellulose and its chemical derivatives, in primary forms.	-0.99	0.83
3809	Finishing agents, dyeing accelerators or dye fixatives.	-0.99	0.63
4104	Hides and skins, tanned or crust, of bovine (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 without hair on.	-1.00	0.59
1520	Crude glycerol;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0.91	0.55

Not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Trade Map (2000-2019).

Implications for the Colombia-India relationship

Once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export potential between India and Colombia have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ach of the indexes calculated, and taking as a reference point the tariff chapters of the different products selected, it is determined that the productive sectors that would obtain the greatest benefit are: 1)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2) mineral products, 3) products of the chemical industry, plastic materials and related manufactures, and 4) hides and skins and leather. That said,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primary sector (raw materials, specifically mining and plant and animal derivatives) of the Colombian economy would be the main beneficiary of the intensification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followed by the secondary sector (transformation of raw materials, especially processing of vegetable fats and oils, chemical inputs, manufacturing, plastic materials, among others).

Specifically, the tariff chapters that would benefit most from increased exports of the products identified as having potential would be the following:

1)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products of their cleavage; process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5).
2)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materials; mineral waxes (27).
3)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38).
4) Plastics and articles of plastics (39).
5) Raw hides and skins (except furskins) and leather (41).
6) Copper and articles of copper (74).
7) Aluminum and articles of aluminum (76).

Complementary to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research, Hurtado and Zerpa (2020), understanding economic convergence as the phenomenon where economies grow in a stable manner and with low inflation, identified a high degree of convergence between the countries of the Andean Community and India, where Colombia specifically stands out. To determine such

convergence,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inflation rate, interest rate, public debt, budget deficit, exchange rate variation, GDP growth, output gap, real interest rate, unemployment and current account balance were considered. The high level of convergence shows the similarity of the economies of Colombia and India and allows inferring that there are high possibilities of integration to the extent that, from the economic and commercial point of view, the link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deepened.

Similarly, and in relation to the products identified as having the greatest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to level the values exported with those imported and reduce the trade balance gap—, there are important challenges that must be overcome. Among them, the lack of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India and Latin America puts each country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other partner countries such as Chin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l of which have free trade agreements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According to Seshasayee (2020), this makes it necessary, in the first instance, to advance trade agreements that enable and provide facilities for Latin American entrepreneurs, in general, and Colombian entrepreneurs, specifically, to market their products to the Asian country. A way to increas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nsure growth opportunities for the business sectors of both economies (Bolivar, Cruz and Pinto, 2019). And an opportunity to consolidate trade links from the promotion of more complex productive activities that facilitate the growth of productivity and workers' wages.

This implies reaching a trade agreement that goes beyond tariff reduction and agre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griculture. That is, aspects such as the environ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commerce, services, investment and government procurement must also be considered. This requires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s of Colombia and India, which so far does not exist.

Another challenge to be faced is the lack of direct maritime routes between India and Latin America, which generates significant delays and delays in

the delivery of goods, ranging from 35 to 75 days depending on the route and the country. In addition to the need for greater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especially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type that allows high 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eater technology transfer (Caro-Vargas 2021). In this way, it will be possible to implement strategies and actions that facilitate trade exchange by taking advantage of commercial and economic similarities, as well as the specific needs and capabilities of the import and export environment, respectively (Seshasayee 2020).

In addition, another major challenge of this bilateral relationship is the use of non-tariff barriers. That is, the use of non-tariff measures that influence the quantities and prices of traded products (Gallardo-Sánchez and Vallejo-Zamudio 2019). In the Colombian cas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use of safeguards, antidumping measures, as well as decrees and resolutions related to technical standards and sanitary measures. And, in the case of India, the elimination of barriers in the bidding and public procurement regime, import licenses, antidumping measures,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Indian import regime —given the classification of imported products as liberalized, prohibited, restricted or centralized—.

Given the above, it is inferred that the promotion of relations between Colombia and India, to take advantage of Colombian products with high export potential, requires the strengthening of political,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which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facilitating aspects that generate a balance in the commercial exchange, improving the conditions in comparison with Colombia's main commercial partners: the United States, China, Mexico, Panama, Brazil, Ecuador and the European Union. Even when trade exchange is viable, the lack of adequate policies limits the convenience of Colombia-India trade.

CONCLUSIONS

Over the years Colombia has significantly intensified its trade relations

with Asian countries, but the results obtained have not been the most beneficial. The overall trade balance of the South American country continues with negative figures, as well as the specific trade balance with each Asian country, highlighting the successive deficits with China and India. This situation keeps Colombia in a lagging situation compared to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have a better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Asian continent; and increases the need for policies to improve its trade relationship with that region of the world, especially with India.

Once the flow of goods between Colombia and India was analyzed for the 1,259 tariff items identified and available in the Trade Map database,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index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import intensity (III) for both countries. By analyzing Colombia's export advantage vis-à-vis India's export disadvantage and its import intensity for each type of product, a total of 20 tariff items (1.59 per cent of the total) with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were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and based on the same indexes, India presented a total of 140 products (11.12 per cent of the total) with export potential to Colombia, showing a clear superiority over the trade dynamics of the Latin American country.

Even though the RCA and III indices allow the precise identification of products with adequate and relevant dynamics to establish a bilateral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ies analyzed —considering the level of exports and imports—, they do not contemplate the direct trad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relative trade balance (RTB) index and the Balassa index (BI) were calculated to corroborate the results previously obtained and definitively confirm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export potential.

The values obtained by the RTB were of little relevance to the research, given the low trad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ed to the total exports or imports of each of them. Even so, the BI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potential for exporting from Colombia

to India, going from 20 products to only 8, which are consolidated as the ideal ones to intensify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present productive activities that, if adequately promoted, would allow Colombia to level the trade balance with India.

Specifically, the products with the greatest export potential from Colombia to India are: 1) copper waste and scrap; 2) aluminum waste and scrap; 3) vinyl chloride polymers; 4) cokes and semi-cokes of coal, lignite, or peat; 5) cellulose and its chemical derivatives; 6) finishing products; 7) tanned hides and skins; and 8) raw glycerol. These products are mainly located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ectors of the Colombian economy, and these are the sectors that would obtain the greatest dynamism and benefits from increased export activity.

These results require rethinking the trade policy being implemented and defining different measures to promote foreign sales by sectors with export potential to India. In this way, greater use will be made of Colombia's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face of the marketing opportunities generated by the existing disadvantages in India. A great opportunity to consolidate the arrival of foreign exchange, job creation and growth of the Colombian economy.

REFERENCES

Álvarez, C., Bárcena, A. and García, E. (2014), *Las relaciones comerciales entre América Latina y Asia Pacífico: Desafíos y Oportunidades*. Observatorio América Latina – Asia Pacífico (https://bit.ly/2PnSvTA).

Barbosa, F., Posada, E. and Serrano, E. (2011), *La inserción de Colombia en el Asia Pacífico: 2020: Colombia en el nuevo océano*, Bogota: Universidad Jorge Tadeo Lozano.

Bhojwani, D. (2012), "Latin America - Energising India," June 21. CUTS-Delhi http://www.latindia.in/media/Latin-America-Energising-India-July-2011-[Published-by-CUTS-DELHI].pdf

Bhojwani D. (2014), "India y América Latina: Looking Ahead," *India Quarterly*, Vo. 70, No. 1, pp. 33-46.

Bhojwani, D. (2015), "Latin America and India: Understanding Mutual Opportunities," *Indian Foreign Affairs Journal*, Vol. 10, No. 1, pp. 50–62.

Bolívar, L., Cruz, G. and Pinto, A. (2019), "Modelo gravitacional del comercio internacional colombiano, 1991 – 2012," *Economía & Región*, Vol. 9, No. 1, pp. 245-270.

Caro-Vargas, S. (2021), "Towards a new Indo-Colombian perspective in the shipbuilding sector," *Financial Express - Business News*, *Stock Market News* https://www.financialexpress.com/infrastructure/towards-a-new-indo-colombian-perspective-in-the-shipbuilding-sector/2204778/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 DANE (2020), *Balanza Comercial.* https://www.dane.gov.co/index.php/estadisticas-por-tema/comercio-internacional/balanza-comercial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 DPN (2020), *Resumen de Comercio internacional de bienes – Colombia*, https://www.dnp.gov.co/DNPN/mision-internacionalizacion/Documents/Notas_politica_Espanol/Comercio_Internacional_de_Bienes.pdf

Durán, J. E and Álvarez, M. (2008), *Indicadores de comercio exterior y política comercial: mediciones de posición y dinamismo comercial*,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CEPAL.

ECLAC (2012), *La India y América Latina y el Caribe: Oportunidades y desafíos en sus relaciones comerciales y de inversión*. Naciones Unidas https://repositorio.cepal.org/bitstream/handle/11362/3053/1/S1100952_es.pdf.

ECLAC (2016), *Fortaleciendo la relación entre la India y América Latina y el Caribe*, Naciones Unidas https://repositorio.cepal.org/bitstream/handle/11362/40755/1/S1601196_es.pdf.

Embassy of India (2020), *Summary of India-Colombia relations. Bilateral Relations* https://www.eoibogota.gov.in/page_ol/india-colombia/

Gallardo-Sánchez, C. and Vallejo-Zamudio, L. (2019), "Política comercial y evolución del sector externo en Colombia 1970-2016," *Apuntes del Cenes*, Vol. 38, No. 67 https://doi.org/10.19053/01203053.v38.n67.2019.8935.

Giordano, P., Ortiz de Mendívil, C., Jandhyala, V. and Dutta, A. (2019), *Un puente entre América Latina y la India: Políticas para profundizar la cooperación económica*. Exim Bank-BID http://dx.doi.org/10.18235/0001733.

Heine, J. and Seshasayee, H. (2016), "Recasting South-South Links: Indo-Latin American Relations," in Roett, R. and Paz, G. (Eds), *Latin America and the Asian Giants: Evolving Ties with China and Indi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Herrera, N., Ramírez, S., Sanabria, L. and Hurtado, A. (2020), "Análisis de los Costos y Beneficios de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Colombia y Corea del Sur," en Zerpa, S., Hurtado, A. and, Kim, W.H. (Eds). *Corea del Sur–América Latina: Relación comercial e inversión*, Mérida: GEEA, ULA, pp. 203-242.

Hurtado, A. and Zerpa, S. (2019), *India-Venezuela: Análisis comparativo de las medidas de desmonetización*, Mérida: GEEA, ULA.

Hurtado, A. and Zerpa, S. (2020), *India y América Latina: Evidencia de Convergencia Económica y Comercial*. Observatorio América Latina – Asia Pacífico, https://www.observatorioasiapacifico.org/images/archivos/quinto_Seminario_2020/DT00320_HurtadoyZerpa.pdf.

Instituto Nacional de Contadores Públicos – INCP (2020), *Cifras importantes para exportaciones e importaciones en 2019*, https://www.incp.org.co/cifras-importantes-para-exportaciones-e-importaciones-en-2019/.

Lederman, D., Olarreaga, M. and Rubiano, E. (2008), "Trade Specialization in Latin America: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Review of World Economics*, No. 144, pp. 248–271.

Lederman, D., Olarreaga, M. and Soloaga, I. (2008), "The growth of China and India

in World Trade: Opportunity or Threat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Lederman, D., Olarreaga, M. and Perry, G. (Eds). *China's and India's Challenge to Latin America: Opportunity or Threat?* Latin American Development Forum, World Bank Publications, pp. 101-120.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 Mincit. (2019), Perfil de China, https://www.mincit.gov.co/getattachment/35c3371b-5938-45ee-97fa-42160371fadb/China.aspx.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 Mincit. (2020), Perfil de India, https://www.mincit.gov.co/getattachment/4ab010cc-6ca6-4053-9620-1fd2b4a1035a/India.aspx.

Miranda, M., Peláez, J.T. and Velandia, S. (2016), "Colombia y la India: Relaciones de Comercio, Inversión y Oportunidades de Intercambio," *Journal of Business*, Vol. 8, No. 11, p. 91-109.

Misra, D. (2021), "The facets of India-Latin America relationship: Role of energy cooperation," in Zerpa, S., Gangopadhyay, A. and Hurtado, A. (Eds), *India y América Latina: Relación comercial e Inversión*, Mérida: GEEA, ULA, pp. 91-117.

Ocampo, H., Aponte, E., Castro, E., Muñoz R. and Arévalo I. (2013), "Aproximación a un plan estratégico Colombia - Asia para insertar a Colombia en el siglo XXI," *Economía, Gestión y Desarrollo*, No. 14. Universidad Javeriana de Cali.

Ocampo, H. (2014), "Perspectivas del comercio internacional de Colombia con los países asiáticos," *Pensamiento & Gestión*, No. 37, pp. 175-213 http://www.scielo.org.co/scielo.php?script=sci_arttext&pid=S1657-62762014000200008&lng=en&tlng=es.

Procolombia (2015), *Oportunidades de negocio con Asia*, https://www.uco.edu.co/web1/Oportunidades%20con%20Asia.pdf.

Rosales, O. and Kuwayama, M. (2007), "Latin America meets China and India: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trade and investment," *ECLAC Review*, No. 93.

Seshasayee, H. (2020), *The Ebb and Flow of India-Latin America Ties: Exploring Opportunities with Colombia*. Observatorio América Latina – Asia Pacífico. http://www2.aladi.org/biblioteca/Publicaciones/ALADI/Observatorio/Documentos_Trabajo/DT_002_2020.pdf.

Tharoor, S. (2012), "India-Latin America Relations: A Work in Progres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No. 2, pp. 69–74, http://www.jstor.org/stable/43134236.

Torres, J. (2013), "Colombia: inse,rción y desequilibrios comerciales en la Cuenca del

Pacífico," *Problemas del Desarrollo*, Vol. 44, No. 174, pp. 139-165.

Zerpa, S. and Andrade, R. (2020), "Perspectivas económicas y de inversión entre Corea del Sur y América Latina," en Zerpa, S., Hurtado, A. and Kim, W. H. (Eds), *Corea del Sur–América Latina: Relación comercial e inversión*. Mérida: GEEA, ULA, pp.35-56.

Zerpa, S., Gangopadhyay, A. and Hurtado, A. (2021). *India y América Latina: Relación comercial e Inversión*. Mérida: GEEA, ULA.

Trade Map. https://www.trademap.org/Index.aspx

Article received: 2022.07.12
Revised: 2022.08.08
Accepted: 2022.08.12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 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영문혼용학술지『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5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문분야별 다양성과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사이버 편집위원회도 이에 준한다.

제3장 투 고

제10조 (투고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회원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11조 (요령)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심 사

제12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도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 본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투고논문 주제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수) 한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 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7조 (심사결과의 처리)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결과를 처리한다.

제18조 (심사비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발 행

제19조 (발행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연 3회 간행한다. 발간일은 2020년에는 2, 6, 10월의 말일에, 2021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1조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라틴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 개정, 발효되었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개정, 발효되었다.

별표 1: 심사결과의 처리기준표

A(90-100) : 게재 (편집상의 수정, 보완 포함)
B(80-89) : 수정 후 게재
C(0-79) : 전면수정 후 다음 호 재심
D : 게재불가

심 사 평			심사결과 처리기준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A	A	A	(1) 편집상의 수정, 보완 후 게재
A A	A A	B C	(2)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A B B	B B B	C A B	(3)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B	B	C	(4)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심의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or 다음호 재심 or 제4심사자 심사의뢰 ※ 제4심사자 심사의뢰 시 판정이 A나 B이면 수정보고서 심사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A B C	C C C	C C C	(5) 다음호 재심

※ 다음호 재심 판정을 두 번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D)로 처리하여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다음호에 재 투고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자 수를 1인-3인으로 정한다.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심사의 경우: A or B
2인 심사의 경우: AA or AB or BB (AC or BC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인 심사의 경우: 위 표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한다.
※ 3인의 심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게재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안에 따라 (4)나 (5)에 준해 처리하거나 최종 게재불가(D) 판정을 내린다.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4)의 심사결과에서 당해 호 논문 수록을 위한 제4심사자 심사의뢰는 학술지 발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라틴아메리카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그 해당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의무를 명시하여 투고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라틴아메리카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와 출판물에 제출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 개요)

(1) 연구자는 각자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연구윤리의 범위는 연구활동,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출판 등을 포괄한다.

제4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본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첨삭하여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혹은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3)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자 소속과 직위의 허위 기재,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한 저자 자격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4) 중복투고 및 자기표절: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 혹은 단행본 등의 연구물 혹은 논문의 일부를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중복투고하는 행위
(5) 기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제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라틴아메리카연구』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이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 당사자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배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이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학회 임

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누구든지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연구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라틴아메리카연구』편집위원회에 위반행위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 제보 접수는 실명 제보인 경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제보를 접수한다.

제7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심의 및 소명)

(1)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2주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3) 제보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연구위반 행위 의혹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해서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출석을 통해서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참여자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7)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최종 부여한다.

(8)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9) 연구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위반 당사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2)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된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논문투고를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제한한다.

(3) 논문게재 이후에 연구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홈페이지와 회원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라틴아메리카연구』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4)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지침에 따라 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1)『라틴아메리카연구』의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최초 제정, 발효되었다.
(2) 현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10월 10일 개정되었다.
(3)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투고요령

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발간하는『라틴아메리카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지역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학술지이며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 본 학회는 회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 주실 원고는 언어에 상관없이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합니다.

3. 게재 신청을 하실 논문의 연구 분야나 제목은 제한이 없으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논문을 보내실 때는 원고작성 요령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셔서 e-mail(lasak@naver.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소정 양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라틴아메리카연구』는 연 3회 발간(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되며 원고마감일자 없이 수시로 논문을 접수합니다. 논문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일자 순서로 되며, 늦게 투고되는 논문은 학술지 발간계획에 따라 다음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습니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학회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7. 학회지 기고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고송달의 경우 겉봉투에 반드시 학회지 원고게재 신청이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접수 이메일: lasak@naver.com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원고작성요령

『라틴아메리카연구』에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된 모든 주제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을 통해 출판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논문작성언어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모두 가능합니다. 논문 길이는 10,000 단어 이내와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준 분량 초과시 편집위원회는 분량 축소를 요구하거나 게재를 다음호로 미룰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은 아래한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주십시오. 그림, 표, 지도, 그래프 등은 투고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출판시의 제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또한 최근의 학술적 동향을 신속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노트(Note)와 리뷰 에세이(Review Esay) 섹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섹션에 투고된 글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됩니다. 분량은 원고지 기준 40매 이상으로 최근 주요 이슈, 연구동향, 주목할 만한 연구서를 소개하시면 됩니다. 단, 주제나 게재 가능 여부는 편집위원회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 요령>

투고원고는 이전 학술지를 참고하여 제목, 성명 및 소속, Abstract, Keywords,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합니다.

1. 제 목

학술경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제목 맨 뒤에 *표를 하시고 각주에 경비지원 내용과 과제번호를 밝힌다.

예)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255).

2. 성명 및 소속

성명 및 소속은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표기한다. 소속 앞에는 단독 혹은 공동저작 사항을 표시한다. 맨 뒤에 *표를 하고(학술비 지원논문의 경우 **) 각주에 저자의 영문 소개를 덧붙인다. 외국어 이름을 표기할 때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며,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투고자의 e-mail 주소는 각주 저자소개 뒤에 쓴다. 공동저작의 경우 주 저자를 앞에 기타 저자를 주 저자 뒤에 쓴다.

예) 홍길동
단독/서울대학교*
* Kil-Dong Hong is a HK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dh@snu.ac.kr).

3. Abstract

초록은 200단어로 영어로 작성한다.

4. 키워드

키워드는 5개 내외로 영어와 국문으로 작성한다.

예) Keywords: Political chaos, Ladino, Mayan aborigines, Obvention and contribution, Speaking cross / 정치적 혼돈, 라디노, 마야원주민, 종교적 세금과 부역, 말하는 십자가

5. 본문 주석: 약주 사용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 괄호 안에 연도만 표시. 저자의 이름이 한글일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함께 표기.
   예) 홍길동은(Hong 1999) 세계화의 당위성을 강력히 지지한다.
   Drake(1966)는 이 조약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2) 저자의 이름을 본문에 언급하지 않고 인용한 경우는 성과 연도 표시
   예) 세계화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uentes 1979).
3) 인용 페이지를 밝힐 경우에는 ',' 뒤에 페이지 표시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Hong 1983, 22-25).
4) 인용 책 혹은 논문의 저자가 둘일 경우에는 가운데 'and'로 구분.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Lagos and Fuentes 1983, 22).
5)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et al.'을 사용.
   예)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6) 인용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로 구분
   예) (Lacan 1974, 45; Derrida 1977, 22-23)
7) 참고문헌에 동일인이 같은 해에 쓴 저작이 다수 포함되어 인용을 할 때 연도 표기만으로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 알파벳 소문자 사용.
   예)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23)
8) 재인용 방법
   예) Lacan의 말을 Derrida 책에서 재인용할 경우: (Derrida 1974, 45, 재인용)

6. 표와 그림

1) 각각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로 표기하며 표 1.은 내용의 위에 그림 1.은 내용의 아래에 위치시킨다.
2) 표와 그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a, b 등으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문에 인용된 것만 적는다.
2) 저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3) 동일 저자의 출판물은 오래된 것부터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편의 저술이 있을 경우 1999a, 1999b, 1999c 등으로 분류한다. 이때도 먼저 나온 것을 1999a로 삼는다. 동일저자의 출판물 중 단일저작과 공동저작이 있을 경우 전자를 후자에 앞서 배열한다.
4) 한국어 참고문헌과 논문 및 인터넷 자료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어 자료와 함께 정리한다.

   예) Hong, Kil-Dong(2010), "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영문 참고문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한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영문 번역을 병기한다.

   예) Hong, Kil-Dong(2010), "Mexico Kukkeongilui Gachi(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Jungnammi Yeongu*(*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5) 단행본 - 저자(연도),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명

   예) Von Misi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trunc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6) 저널 논문 - 저자(연도), 제목, 저널 이름, 권(Vol.), 호(No.), 페이지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 '권'과 '호' 표기법에 유의: 첫 글자는 대문자, 철자에 유의, 로마자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 계절, 달, 날짜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No.와 페이지 사이에 쓴다.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March, pp. 1-18.

7)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 - 저자(연도), 제목, 편자,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페이지

   예)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8)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문헌으로 올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를 가장 뒤에 쓰고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인터넷 논문이라도 발간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저자 뒤에 연도를 밝힌다.
예) Ortega, Daniel(2001), "La histoira inconclusa," http://www.danielortega.cl
*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주석을 염두에 둘 것.

8. 외국어 표기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우리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에 준할 수 있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Submissions and Review Process

Contributions to AJLAS are invited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rticles may be written in English, Spanish, Portuguese, or Korean and they will be published in the original language. Each contributor will receive, free of charge, ten off-prints of the article and a copy of the issue of the Journal in which it appears. Manuscripts must be original research; AJLAS will not consider papers currently under review at other journals or that duplicate or overlap with parts of a book or larger works that have been submitted or published elsewhere. If there is doubt about whether the manuscript is acceptable, authors should discuss this issue in a cover letter to the managing editor. Review essays are also considered. Submissions are accepted on a rolling basis.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Instructions for Contributors

1. All contributions and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ubmitted to the journal: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omepage: http://www.ajlas.org

   Attn: Dr. Gyoung-Mo, Gu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public of Korea
   Email: lasak@naver.com

2. Formatting of Manuscripts:

   - Length: Manuscripts should not be longer than 10,000 words, including text, tables, figures, title page, and references.
   - Style and Layout: Font size should be 'Garamond' throughout the work: text 10.5 point, footnotes 8.5 point.

- The entire paper should be double-spaced; please do not submit double-sided copies.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sequentially.
- Manuscripts should be ordered as follows: title page, text, abstract, keywords, appendices, references, tables, figure captions, figure pages.
- Titles, subtitles, and text subheadings should be chosen for succinctness and interest. The title page should also contain the name, academic rank, institutional affili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elephone, e-mail) for all authors. In the case of multiple authors, the title page should indicate which author will receive correspondence.
- Submission Form: All submissions should include this manuscript submission form, available in Word or PDF format. An abstract (200 words) should be included with the submission form.

3.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managing editor. Please submit properly-formatted electronic manuscripts (a single file containing all parts of the paper) in Microsoft Word.

4. References and Citations:
   In text, quotations must correspond exactly with the original in wording, spelling, and punctuation. Short quotations within the text should be noted by quotation marks; longer quotations or extracts should be indented from the left margin and require no quotations marks. Changes and additions to quotations should be identified by bracketing; ellipses [⋯] should be used to identify omissions; emphasis added should also be indicated. Embedded citations should be used, hence please do not use footnotes for simple citations. All citat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manner:

   (a) If the author is named in the text, cite by year of publication:
   ⋯ Drake (1966) has suggested ⋯

   (b) If the author is not named in the text, cite by last name, and year of publication:
   ⋯ it has been noted (Fuentes 1979) that ⋯

   (c) If necessary, pagination should follow the years of publication separated by a comma
   ⋯ it is argued (Lagos 1983, 22) that by ⋯

(d) Dual authors should be joined by 'and' multiple authors should be indicated by 'et al.':

… other approaches (Snyder and Diesing 1977, 392) may assume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e) If an author has multiple references for any single publications year, indicate specific words by the use of lower case letter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 the one hand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 …

(f) Series of references should be enclosed within parenthese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items should be ordered chronologically, by year of publication, and alphabetically within any year:

… proponents of the position (Russett 1981; George 1982; Holsti 1983; Starr 1983) and many …

The reference section should begin on a new page following the text and any appendices. Work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by author, followed by a section listed alphabetically by institution - or title of any material not attributed to any specific author(s). Reference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format:

(a) References to book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Von Misi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trun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b) References to journal articl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of article, journal name, volume, number(s) and inclusive pages:

…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c) References to works in edited volumes should list author(s), year, essay title, volume editor(s), volume titl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and inclusive pages:

…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d) References to monographs in a seri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series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Fromkin, M.(1986), *The Limits of Recognition*, *Sanger Series on Law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Haven: Sanger Publishers.

Page proofs will be supplied to the first author of a paper, but only errors in the type setting may be corrected at this stage. Any substantial alterations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Consequently, the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 paper is submitted in final form. Proofs should be corrected and returned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Manuscript Formatting Information
http://www.ajlas.org/

Review Process

1. Initial Review: Upon receipt of the manuscript, the managing editor or other area specialist will make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article and ensure that all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submission process has been included. If any information is missing, the reviewer will contact the author.
2. Full Review: After the initial review is completed,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will be sent out to three reviewers. The authors will receive the reviewer's comments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corrections and resubmit.
3.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fter authors revise and resubmit, the manuscript will undergo a final review prior to publication. The time from submission to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may be as little as two-three months to as long as a year.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Authors will receive ten off-prints and a copy of the journal in which the article appears.
4. Rejection: This may occur during either the full review or after the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uthors will be notified as quickly as possible if their manuscript is rejected so that they may seek publication elsewhere.

Code of Research Ethic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is to establish ethical standards to be adopted by all contributors and required for publication in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ereinafter "AJLAS"),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Associ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efines what constitutes a case of misconduct and specifies by category different types of research ethics violations. In doing so, the Code of Research Ethics seeks to provide ethical principles and guidance regard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authors, contributors, and members of our Association.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articles submitted to and published in AJLAS, as well as all manuscripts submitted for academic events and conferences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Article 3 (General Guidelines for the Code of Research Ethics)

(1) All authors,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are expected to follow the Code of Research Ethics.

(2)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research activities at all stages, including the publication process and the distribution of funding for members of AJLAS and the Association.

Article 4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JLAS regards the following activities as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1) Plagiarism: Misappropriation of an original author's ideas, intrinsic content, or research results without the acknowledgment or pre-arranged permission.

(2) Fabrication and Fraud: Falsification, invention, or manipulation of qualifications, data, sources, results, or cit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research.

(3) Authorship Disputes: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a researcher's affiliation or academic position, granting authorship to individuals who did not contribute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the failure to grant authorship of a manuscript to individuals who contributed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who made relevant contributions, without justifiable reason.

(4) Duplicate Submission and Self-plagiarism: Submission of manuscripts describing research results or elements that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ose described in another journal or primary publication.

(5) Other Violations: Any other reports of misconduct judg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AJLAS as noticeable miscondu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1) The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of AJLAS shall serve on the journal's Research Ethics Committee.

(2) Individu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 related to any investig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3)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consult or involve a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executive or an external expert in its decision making, dependent on the severity or nature of any violation.

Article 6 (Reporting Violations)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receive reports of misconduct by any available means, such as in writing, by phone, by mail, by email, or through the LASA website. It is acceptable for a proxy to submit a report of ethics violations.

(2) Reports of misconduct should be made by an informant using his/her real name. Anonymous allegations of misconduct may not be considered. However, if specific information and substantiated evidence related to a claim of misconduct are submitted, anonymous reports will be accepted.

Article 7 (Investigative Process and Vindication)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convene and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in two weeks of any report of violations being filed.
2.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obligated to gather sufficient evidence of specific misconduct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port.
3.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ny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son(s) who report violations be published. The committee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informant from negative repercussions or possible external pressures.

4. The person(s) concerned will be informed of the allegation in writing or by meeting with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n person.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are given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objections, and arguments.
5.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keep confidential the identity/ies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experience no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until the suspected misconduct has been verified.
6. All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including reports, deliberations, decisions, and suggested measures, shall be kept confidential. Individuals who take part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during the execution of the investigation or related tasks.
7.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notify the person(s) concerned of both the content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efore the final decision is made. All parties and persons related to the allegation will be given sufficient opportunity to respond.
8.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informant and the person(s) concerned after a decis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has been made by vote. For a vote to be executed successfully, more than two-thirds of the currently registered members and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in attendance are required.
9. The results of the ethics violation investig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board of the Association, and all records, including relevant documentation, evidence, and lists of individuals involved, shall be provided.

Article 8 (Measures after Verification) If it is determin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that there is an actual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isciplinary measures will be taken based on the severity of violation. These are as the following:

(1) The authors' institutions and sponsors will be notified of the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2) The authors will be prohibited from submitting manuscripts to any publication related to the Association and to AJLAS for three to five years.
(3) Published papers will be removed from AJLAS and from the Association's digital archive and members wi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for this decision.
(4)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reported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cording to that foundation's management guidelines for scholarly journals.

Addendum

1.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took effect on October 1, 2008,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2.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was revised on October 10, 2020.
3.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may be discussed and decided by the editorial board.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of Manuscript

About the author:

1. Name:
2. Title and institution:
3. E-mail address:
4. Telephone number:

About the manuscript:

1. Title:
2. Five Keywords:
3. Abstract (200 words):

Submission date:

* I certify that the manuscript represents original and valid work and that neither this manuscript nor one with substantially similar content under my authorship has been published or is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requested, I will provide the data or will cooperate fully in obtaining and providing the data on which the manuscript is based for examination by the editors or their assignees.

** For papers with more than 1 author, I agree to allow the corresponding author to serve as the primary correspondent with the editorial office, to review the edited typescript and proof.

*** Contributor's Qualification: All contributors must have at least a master's degree in order to submit a manuscript.

**** More information about the formatting and submission of manuscripts is available at: http:/www.ajlas.org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논문투고신청서

■ 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영문):
2. 소　속(국문):　　(영문):
3. 직　위(국문):　　(영문):
4. 연락전화번호:
5. e-mail:
6. 주소(우편물 수령지):

■ 논문관련사항

가. 논문제목(국문):
　논문제목(영문):
나. 논문작성언어:
다. 학문분야:　　라. 세부분야(자세히):
마. 학술대회 발표여부: _____　학술대회(일자:　　장소:　　)
바. 공동저작의 경우 주저자의 성명:
사. 주제어(Keywords)를 영어와 국문 병기하여 5개 내외 제시:
아. 본 논문의 심사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기술
　(예: 논문 형식의 특이성/분야의 희소성 등, 별지사용가능)
자. 원고 투고용 체크리스트(반드시 전부 표기한 후 투고 바랍니다)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각종 기관에 보고서로 제출된 사실이 없음. (　)
2. 투고요령 및 원고작성요령은 잘 숙지하였음. (　)
3. A4지 절반 내외의 초록을 첨부함(영어로 작성). (　)
4. 논문명과 저자명을 영어로 병기하였음. (　)
5. 참고문헌은 알파벳으로 작성하였으며 제시된 기준을 따름. 특히 해당페이지 반드시 명기. (　)
6. 공동저작의 경우 처음에 표시된 저자가 주저자임. (　)
7. 금년도 학회비는 납부함. (　)
8.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게재료 납부예정 (전임 및 연구비 지원 논문 30만원 이상, 미취업 비전임 10만원). (　)
9.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 귀속됨. (　)

위와 같이『라틴아메리카연구』(AJLAS)에 논문을 투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is an academic journal for discussion and debate on the subjects of Latin American affairs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between Asian and Latin American Societies. The AJLAS has been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LASAK) since 1988. Published four times a year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AJLAS seeks to stimulat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scholarship in a broad sense of Latin American Studies. The scope of the AJLAS covers all area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economics,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history, sociology, geography, anthropology and literature. Articles wit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re especially welcome.

1986년 창립된 이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비롯한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현안과제를 수행하며 학문의 사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문제의 접근을 꾸준히 시도한다.(예, 2000년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21st century challenge to Latin America and new perspectives")

둘째, 라틴아메리카연구의 학제적 연구 풍토 조성 및 강화에 힘쓴다. 특히 현 단계 학문 특성에 맞는 학제적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한편 지역연구의 핵심과제인 비교연구를 촉진한다.(2004-2006년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 민주화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셋째,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 라틴아메리카연구의 국제적 활동을 도모하고 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진작시킨다.(예, 2007년 '범아시아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학회(CELAO)' 행사 주관)

넷째,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의 다양화 및 다변화를 추구한다. 연구인력의 분업화와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 각종 연구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한다.(예, "인문사회분과", "정치외교분과", "경제경영분과"의 전공분야별 분과 세미나 운영)

이와 같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는 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유일한 전국적 학술단체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문화, 문학,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전문가집단이다.

학 회 안 내	
학회 연회비 납부	우리은행 1002-563-092001 (예금주: 전주람) • 연회비: – 정 회 원 5만원 – 종신회원 50만원 – 대학원생 3만원
논문 게재료 납부	하나은행 393-910457-92707 (예금주: 이순주) • 게재료: – 전임/연구비논문 30만원 – 비전임 10만원
학술지 논문 투고처 및 출판관련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0호관 310호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우편번호 44610) 전화: 052-259-276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학회 총무이사	조영현, 정상희, 강정원, 전주람 교수 대표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우편번호 46234) 전화: 051-509-5824 E-mail: lasakorea@gmail.com
학회홈페이지 학술지 아카이브	https://lasakorea.co.kr/ http://www.ajlas.org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이순주(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정치)

■ 편집위원

강경희(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정치)
김영석(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제)
노용석(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인류)
박구병(아주대 사학과, 역사)
오삼교(위덕대 경찰행정학과, 정치-국제관계)
우석균(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중남미 문화-문학)
이미정(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경제지리)
임태균(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사회)
최해성(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국제관계사)
하상섭(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국제정치경제)
Gian Luca Gardini(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u-Jin Lim(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University of Colima)

■ 편집이사

구경모(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김희순(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Bradley Tatar(Division of General Studies,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편집간사

유여진(서울대 경제학과)

필자소개(집필순)

이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혜선	한국국제협력단
민원정	칠레가톨릭대학교&서울대학교
양은미	한국외국어대학교
Melissa Rubio dos Santos	Dankook University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 제35권 2호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2년 8월 30일 발행

발 행 인 곽 재 성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전화: 031-201-2385

편집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0호관 310호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우편번호 44610)
전화: 052-259-276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발 행 처 스마일기획
08839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2길 18
전화 02-874-1911
E-mail: smilework@naver.com